



# 時計塔 SIGETOP



2020년 7월 20일

서울대학교醫科大學北美洲同窓會 發行

제47권 3호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발행인: 安祐成 편집위원: 金明源 徐亮 羅斗燮 徐仁錫  
편집인: 徐倫錫 李善姬 徐貴淑 朴恩景

자문위원: 盧鎔冕 金炳哲 李熙景 許善行

snucmaa@yahoo.com

www.snucmaaus.org



## 就任辭

신임회장 안우성(76)

자랑스럽고 존경하는 서울의대 미주 동문 여러분,  
저는 1976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북미주 남가주에서 정착하여 아직 현직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대 북미주 동창회의 남가주 지역 회장을 지내고 이렇게 북미주 전체 동창회장직을 맡아 여러 선배님을 모시고 일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선배님의 도움으로 설립되고 정성을 다하여 발전 시켜오신 미주 서울의대 동창회에 한 해 동안 성심을 다 하겠습니다.  
타에 모범이 되는 자랑스런 모습을 지킬 수 있도록 선배님의 조언을 부탁 드리고 후배님들의 많은 지원도 부탁 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COVID19으로 인하여 지난 해에 예정하였던 37차 학술대회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2021년 38차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모든 동문과 가족의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상황을 지켜보면서 38차 학술대회 일정을 시계탑을 통하여 발표할 것 입니다.  
현재 서울의대미주동창회의 꾸준한 시계탑이란 연결고리로 1200여 동문과 가족이 매우 가까운 유대관계를 이어오고 있고, 새 Website (snucmaaus.org)를 통하여 한 눈에 미주서울의대동창회 역사와 현재 소식도 접할 수 있습니다. 몇 년 마다 시계탑의 원고를 정리한 문집 발행이 서울의대 동문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경스러운 참여 동문들과 편집위원회 chairman과 위원회 원과 website committee chairman의 공을 높이 사게 됩니다.  
매년 개최하는 학술대회로 이어진 동기간, 선배님과의 친목과 화합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여한 committee chairman들과 숨은 조력자(김영애 여사)와 유능한 백승원(79) 동문의 지원으로 가능했으며 무엇보다도 참석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동문들의 힘으로 이룬 성과 입니다.  
새로 졸업하는 의대 후배들의 미주정착을 돕고, 교포자녀에게 주는 장학제도는 성심을 다하는 Scholarship committee와 Green Project committee chairman들의 힘으로 꾸준히 이어가고 성장하고 있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수년간 지원을 해 주시는 김태웅(63)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욱 fund를 지원하시는 가족계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유찬(64) 장학금을 지원하시는 가족계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매년 꾸준히 미주서울의대 동창회에 donation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모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해 동안 동, 서부 그리고 중부 모든 지역의 동문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 離任辭

회장 이성길 (71)

존경하는 미주 동문 여러분!  
시계탑(47권 2호)에 기재된 '바이러스의 늪과 의료인들의 소중한 증언들'의 박계영(90), 신원석(88), 강창욱(61) 글에서 보셨듯이 인류애가 넘치는 우리 서울의대인은 인술을 통하여 모교의 명예와 세계의 의학 발전에 계속 정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처리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서울대학병원이 세계적으로 탁월함을 증명하여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대하게 되는 자랑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미주 동문들과 가족들께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몇분의 예외는 있었지만 잘 견디고 계심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문 중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또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 드립니다.  
알프스 여행 중에 한승신(46대 전 회장) 님으로부터 48대 회장을 맡게 된 소식을 들은 것이 어제와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때 산속에서 동창회를 위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더 많은 후배들이 미국으로 진출하는 것을 돕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제일 큰 행사인 4월 학술대회를 위하여 신찬수 학장님과 홍보를 위하여 각 지역회장님들, 그리고 여러 동문들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이미 김 사무장님과 열심히 준비했었습니다. COVID-19의 발생으로 일찍(3월 5일) 학회 일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습니. 이만택(58)선배님의 가지 못하면 돌아가라는 말씀을 새기며 아쉬움을 달렸습니다. 많은 선, 후배님들과 71년 졸업 동기들, 또 서울에 계신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이해에 감사드립니다. 참여하시기로 되었던 의학부와 교양부 문 프로그램에 연사로 오시기로 되었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키노트 연사로 자리를 빛내주시려던 강수상(53), 임종식(57) 두 분 선배님께도 죄송하며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4월호 시계탑과 문집 6호가 나오도록 하신 서윤석 편집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편집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신찬수 학장께서 함춘미주공로상을 보내주셔서 강수상(53), 허선행(64), 전희택(64) 세 분께 우편으로 드렸습니다. 두산연강재단 학술장려상은 송경민(09)님이 박용현 선배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최영자(66)님의 사회사업부는 뉴욕 빈민가에 성금을 보냈습니다.  
새로 미주에서 레지던트를 시작하는 11명의 후배들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많은 후배들이 오게 된 것은 서인석(73), 장세권(01)과 여러 선배님들의 노력의 결과이며 앞으로도 더욱 기대해봅니다.

## 48년간 미주동창회를 이끌어 오신 회장단 명단

1대 (1972-1973년) 회장: 이광수(41)	총무: 강상진(59)	재무: 박준영(63)	27대 (1998-1999년) 회장: 배영섭(58)	총무: 서상헌(71)	재무: 위장호(73)
2대 (1973-1974년) 회장: 이규용(41)	총무: 강상진(59)	재무: 박준영(63)	28대 (1999-2000년) 회장: 한성수(60)	총무: 이근웅(67)	재무: 이치훈(69)
3대 (1974-1975년) 회장: 한용현(48)	총무: 이희경(61)	재무: 이준우(61)	29대 (2000-2001년) 회장: 동형근(57)	총무: 이종현(66)	재무: 이창석(78)
4대 (1975-1976년) 회장: 김정준(52)	총무: 이종욱(63)	재무: 권정덕(64)	30대 (2001-2002년) 회장: 조한원(63)	총무: 김홍서(69)	재무: 윤성수(72)
5대 (1976-1977년) 회장: 곽홍(51)	총무: 민병덕(59)	재무: 김준환(59)	31대 (2002-2003년) 회장: 정정수(62)	총무: 문대욱(73)	재무: 심완섭(73)
6대 (1977-1978년) 회장: 박승서(48)	총무: 송관호(64)	재무: 김용두(64)	32대 (2003-2004년) 회장: 이재승(61)	총무: 도상철(69)	재무: 조병선(71)
7대 (1978-1979년) 회장: 박요수아(51)	총무: 한기현(63)	재무: 추재욱(63)	33대 (2004-2005년) 회장: 이한중(65)	총무: 이태석(67)	재무: 오동환(71)
8대 (1979-1980년) 회장: 김재남(53)	총무: 권정덕(64)	재무: 윤홍기(64)	34대 (2005-2006년) 회장: 최준희(64)	총무: 서인석(73)	재무: 심인보(83)
9대 (1980-1981년) 회장: 박근수(49)	총무: 김건언(65)	재무: 한규상(65)	35대 (2006-2007년) 회장: 조동준(64)	총무: 김홍서(69)	재무: 김동훈(77)
10대 (1981-1982년) 회장: 노용면(55)	총무: 김용두(64)	재무: 박진섭(73)	36대 (2007-2008년) 회장: 최영자(66)	총무: 이선희(81)	재무: 백승원(79)
11대 (1982-1983년) 회장: 정구영(57)	총무: 정정수(62)	재무: 양운택(64)	37대 (2008-2009년) 회장: 윤효윤(69)	총무: 오동환(71)	재무: 장연웅(78)
12대 (1983-1984년) 회장: 김현규(47)	총무: 임현재(65)	재무: 김길중(65)	38대 (2009-2010년) 회장: 이성춘(70)	총무: 박진국(71)	재무: 박일우(77)
13대 (1984-1985년) 회장: 강상진(59)	총무: 최순채(66)	재무: 이영일(66)	39대 (2010-2011년) 회장: 정인용(71)	총무: 강창홍(71)	재무: 오용호(72)
14대 (1985-1986년) 회장: 박준홍(51)	총무: 정태(62)	재무: 이한중(66)	40대 (2011-2012년) 회장: 문대욱(73)	총무: 권오기(78)	재무: 심인보(83)
15대 (1986-1987년) 회장: 이만택(58)	총무: 김영남(68)	재무: 우준균(67)	41대 (2012-2013년) 회장: 김일영(71)	총무: 이원택(71)	재무: 김성환(71)
16대 (1987-1988년) 회장: 채규철(59)	총무: 조영갑(70)	재무: 강창홍(71)	42대 (2013-2014년) 회장: 김성환(71)	총무: 최광휘(76)	재무: 고용규(73)
17대 (1988-1989년) 회장: 이동성(57)	총무: 홍준호(64)	재무: 이신재(72)	43대 (2014-2015년) 회장: 서인석(73)	총무: 한창규(81)	재무: 심인보(83)
18대 (1989-1990년) 회장: 민병덕(59)	총무: 김중권(69)	재무: 김광호(72)	44대 (2015-2016년) 회장: 서윤석(68)	총무: 신원석(88)	재무: 주광국(68)
19대 (1990-1991년) 회장: 강수상(53)	총무: 하용수(69)	재무: 김용명(67)	45대 (2016-2017년) 회장: 이건일(68)	총무: 김홍서(69)	재무: 김명원(68)
20대 (1991-1992년) 회장: 이운순(57)	총무: 서인석(73)	재무: 이강우(74)	46대 (2017-2018년) 회장: 한승신(76)	총무: 강민중(91)	재무: 주광국(68)
21대 (1992-1993년) 회장: 오형원(59)	총무: 윤병인(68)	재무: 홍성진(71)	47대 (2018-2019년) 회장: 정근희(72)	총무: Mrs. 김영애	재무: 최광휘(76)
22대 (1993-1994년) 회장: 이희경(61)	총무: 조득환(67)	재무: 엄규동(69)	48대 (2019-2020년) 회장: 이성길(71)	총무: 신원석(88)	재무: 강유구(71)
23대 (1994-1995년) 회장: 한승업(59)	총무: 김충규(66)	재무: 강광원(62)	49대 (2020-2021년) 회장: 안우성(76)	총무: Mrs. 김영애	재무: 김자성(85)
24대 (1995-1996년) 회장: 한기현(63)	총무: 정인용(71)	재무: 조영갑(70)			(김성환(71) 부인)
25대 (1996-1997년) 회장: 김기태(58)	총무: 임윤명(68)	재무: 김원정(75)			
26대 (1997-1998년) 회장: 송관호(64)	총무: 김영철(67)	재무: 석창호(72)			

특별기고

# 신전의 연기는 다시 타오르고...

신응남 (서울대학교 미주 총동창회 회장)



기원전 430년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전쟁 2년에 아테네의 피레우스 항구에서 발병된 후, 아테네를 덮쳐 인구의 1/3을 죽음으로 몰고 간 무서운 역병이 있었다.

그리스인은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를 배출한 민족이다. 의료 수준은 높았고 의사도 많았다. 하지만 빈부 차이 없이 퍼져나가는 역병의 치료 방법을 그들은 찾아내지 못했다. 파르테논 신전은 신의 가호를 비는 제사장의 부르짖음과 시민들의 절규로 가득 찼고, 희생 제물을 태우는 연기가 아테네 하늘로 끊임없이 피어올랐다. 도시는 무정부 상태였으며 절망감으로 가득 찼다고, 현장을 목격한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생생하게 기록했다.

1347년 아시아로부터 온 상선 한 대가 시실리아의 메시니 항에 당도했다. 이 배의 선원들은 당도한지 얼마 후 이상한 전염병으로 전부 사망하였다. 이것이 유럽에 흑사병이 전파된 첫 계기였다. 당시 이탈리아 시에나에 살던 한 역사가는 이 흑사병의 참혹함을 “매일 밤낮으로 수백 명의 사람이 죽어갔다. 역병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다. 머지않아 온 땅이 묘지로 덮이

리라. 사람들은 세상에 종말이 왔다고 믿었다.”라고 기록했다.

3백여 년 후, 1665년 봄 런던 외곽에서 발생하여 런던 시내 전역으로 퍼진 흑사병은, 9월 초 일주일 7천여 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최고조에 달했다. 국왕 찰스 2세와 의회는 옥스포드로 급히 피난을 떠났고, 많은 사람들은 봉쇄된 도시로부터 탈출을 시도했다. 런던 대역병은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10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후 잠잠해졌다.

까무의 ‘페스트’에서, 오랑시를 뒤덮은 쥐들의 죽음에 이어 페스트 전염병이 인간을 덮쳤다. 죽음의 도시로 변한 오랑시는 차단되었고, 도시를 필사적으로 탈출하려던 람베르 기자는 뒤늦게 타루와 의사 리유가 말한 정부를 대신해 시작한 역병 진료를 도와 환자 치료하는 팀에 합류한다. 이듬해 1월 오랑시가 페스트로부터 해방되어 환희의 소리가 넘칠 때, 의사 리유 다음을 상기하며 소설을 끝맺는다. “페스트균은 결코 죽거나 소멸하지 않으며 그 균은 어딘가에 살아남아 있다가 아마 언젠가는 인간들에게 불행과 교훈을 주기 위해 다시 쥐들을 흔들어 깨워서 행복한 도시로 몰아넣어 거기에서 죽게 할 날이 올 것이다.”

금년 1월에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한 코로나 전염병은 3월엔 미국에서 창궐하여, 현재 8만(5월 10일 현재, 편집자 주)여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불야성의 문명도시 뉴욕은 유령의 도시로 바뀌었고, 앰블런스의 날카로운 싸이렌 소리는, 공포로 밤하늘을 뒤덮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라는 적과 싸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정부는 허둥지둥했다. 힘없는 백성들은 숨죽여 이 죽음의 공포가 빨리 지나가기를 빌었다. 그들은 운명을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허탈함과 절망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병원 응급실에서는 살려달라는 아우성으로 아비규환의 지옥을 연상케 했고 기본적인 의료 기구 공급 부족에 다수의 의료인들도 감염에 노출되어 희생되는 공포의 시간을 체험하기도 했다.

죽어 넘어간 주검이 넘쳐나, 공동묘지로 조성된 브롱스의 한 섬에는 불도저를 이용해 넓고 깊게 파헤친 구덩이에, 집단 가매장을 했고 죽음의 새 까마귀들이 까맣게 하늘을 덮었다. 병원엔 영안실이 넘쳐나, 냉동 트럭에 검은 바디 백을 지게차로 옮겨 차곡차곡 쌓아 갔다.

가장 피해가 큰 브루클린 동네의 한 장의사 주차장에는, 일반 렌트카 트럭에 쌓아논 시신의 썩어가는 냄새가 동네를 덮었다.

인지 혁명으로 걸음을 떼고, 농업혁명으로 달리를 시작한 문명의 역사는 과학혁명으로 날개를 달았다. 과학혁명으로 확보한 기술과 무기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제국을 형성했으며, 16세기 이후 인류사는 전쟁과 착취, 억

압의 제국의 질서 속에 유지되어왔다. 한 국가와 문명의 적은 항상 다른 국가와 문명을 이룬 호모 사피엔스였다. 그리하여, 모든 지구상의 제국은 군사적 정복을 위한 노력을 부단히 준비해 왔다. 가공할 만한 인명 말살의 무기와 방어할 무기 체제를 준비하는 데에만 몰두해 왔다.

1945년 7월 16일 새벽, 인간은 미국 네버다 주 사막 한가운데서, 핵무기 실험에 성공했다. 마침내 인류는 수천년에 걸쳐 지켜온 문명을 한번에 끝낼 수 있는 가공할 능력도 지니게 되었다. 21세기 들어서서 인류는, 생명공학, 인공지능, 우주개발 등에 몰두하여 신의 영역을 넘나드는 무적의 능력을 갖춘 인류로 발전했다.

그러나 인류 자신들은 지구에 존재하는 호모 사피엔스, 인류의 적이 진정 누구인지도 모르며 과학 만능의 세계로 달려가고 있지만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된다. 어쩌면 인류 전체의 적이 존재를 까맣게 잊고 살고 있다. 인류를 멸망시킬 힘은 키워서 보유했지만, 전염병으로부터 인류를 지킬 준비는 잊고 있으며 지킬 능력도 갖고 있지 않음을 우리 모두는 이번 COVID 19 Outbreak을 통해 아프게 인지한 것이다.

인류 문명을 지켜야 할 책임을 망각한 호모 사피엔스! 신들의 경지에 오른 호모 데우스! 이보다 위험한 존재가 또 있을까?

어쩌면 인류의 적은, 역사 교훈을 거부하고 있는 바로 우리 인류 자신인지도 모르지 않는가?

저자: 신응남 (농대 70 입학)

이야기로만 들은 이런 일을 우리 평생에 만날 것을 예측은 고사하고 상상이라도 해 본 일이 없었다. 지구에 사람이 정착해서 크게는 두 번 이런 일이 일어난것으로 알고 있다. 처음으로 알려진 13세기에서 14세기 가까이 유럽 일대를 휩쓴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1/3의 희생, 당시 전 지구의 추정 인구를 4억 5천만에서 3억 7천 5백만으로 줄인 참사였다. 그 뒤 1918년에 와서 Spanish flu라는 악성 독감이 유럽 전역을 휩쓸었고 미주는 물론 중국 일본을 위시한 아시아에도 퍼졌다. 일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이었는데 일 년 동안에 전쟁의 희생자보다 월등하게 많은 5천만의 사망자가 생겼다고 한다. 한국에도 “왜 고별” 이라고 일본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어머니가 해주신 기억이 난다. 당시 한국 인구 759만에서 38%가 감염되고 6만 이상이 사망하여 추수도 못한 농가가 많았다는 기록이 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시대는 치료는 물론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몰랐는데 1998년에 변질이 심해 조직은 회수를 못했으나 병원체인 바이러스 안에 손상된 핵산은 회수가 되어 5년 이상의 연구 끝에 RNA의 전모가 밝혀졌다. 그 당시의 일을 풀어 내면서 이 일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코비드 19의 문제를 풀어 내는데 불가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감개무량하다.

확실한 사실은 다소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효과적인 접근이 없는 한 100년 전과 비슷한 과정을 이번에도 밟게 된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시도하고 있는 치료제와 감염의 예방법이 순조롭게 작용된다면 이것 만으로 문제는 해결이 될지도 모른다. 방대하고 잡다한 대상을 취급할 때 현실적인 문제로 차질이 생길수도 있을 것이다.

1918-19년 1년 동안의 발병이나 사망의 과정을 살펴보면 질병의 진행 모양이 지속적인 변화라기 보다는 한 달 정도의 잠복기를 사이에 두고 2-3개월의 활성기가 3번이나 되풀이된 다음 눈이 녹아 없어지듯 모든 것이

## 코비드19의 수명과 코로나바이러스의 귀환에 대하여

강수상 (53, 시카고)

사라진 사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사망률의 심한 차이를 관찰한 사실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감염 후 첫 파동이 생긴 후 한 달의 잠복기는 3개월의 대 활성기를 가지고 다시 활성기와 잠복기로 연결되었으나 파동은 세계 각처에서 거의 비슷한 때에 가라앉고 환자의 사망이 멎었다 (Wikipedia의 Spanish Flu에서 Mortality: Around the globe 둘째 Figure 참조).

이 사실은 RNA와 이를 단순히 싸주는 것 만이 모든 것인 바이러스에서 한사람의 일생보다 더 오랜 백 년이란 시간이 걸려 이렇듯 특이한 변이체가 생겨 그렇게 많은 수로 번식하며 대단한 독성으로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pandemic 병원체가 생겨난 과정 즉 1918-19년에 가진 파상적 특징을 나름대로 추리해 본다면 현 상황을 이해하는데 보탬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빈약한 생명체의 조건을 가지고, 정상적인 대사환경을 가지고도 못하는 비상한 번식력과 독성을 발휘하는데는 이 일을 해낼 간헐적 지원이 동원되어야 하는 대사과정이 필수적인지 모른다. 바이러스가 이런 대사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잠복기와 활성기를 반복하는 것은 고식적 해결은 될지 모르나 근본적 해결은 어렵다고 본다. 문제는 첫번째 휴식은 대 성공이었으나 다음 번 활성기는 같은 절차를 따랐지만 영원한 휴식으로 끝났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비록 시간이 가며 감염에서 회복되면서 사망 인구가 줄어 든다고 해도 활성기와 잠복기의 반복이 계속되지 못하고 세 번째 종식되는 방식이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점은 이 현상이 환경으로 유발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병원체의 변화로 결정된 것으로 더 이상 본

래의 병원체가 아니라고 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런 변화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거나 같은 결과를 보았다면 같은 병원체로 존재했던 수명은 끝이 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coronavirus 19에 감염되어 이런 과정을 밟아서 COVID 19의 끝이 난다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잠복기에서 활성기로 가는 유전체의 수명은 다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어떤 특정한 변종에서 무작위로 얻는 그 변이체는 선택이 특이하면 할 수록 상상을 뛰어넘게 드문 일이며 비록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얼마동안 유지 될 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 흐물어지는 취약성(脆弱性 brittleness)을 갖는 경향의 가능성을 생각하게 한다. 이 점은 치료 제제 연구에 큰 이점이 된다고 생각한다. 좋은 예로 Chloroquine 같은 이 질환과 관계가 먼 제제에서 피상적이지만 고무적 반응을 보았다는 사실은 이런 변이의 약점을 파고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Coronavirus는 2000년 초기에 유행한 SARS와 가까운 병원체이지 백년전 유행한 스페인 독감의 병원체인 H1N1과의 분자 구조적인 관계는 소원하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지금 같은 악성 질병이 pandemic으로 언제 어떤 병원체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알아내기는 쉬운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병원체의 전염성, 주기성과 그 독성이 pandemic으로 되는데는 어떤 미생물이 어떤 숙주를 거쳐 몇 단계의 변이를 밟아야 하며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인지 추적이 가능하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변이가 제일 빠른 바이러스 특히 RNA 바이러스를 생각하고 또 제일 접근성이 용이한 호흡기 질

환으로 두 번을 연이어서 생긴 점이 주목되지만 이와 연관 없이 면역학적으로 소원한 바이러스가 다음 차례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면 면역에 의존하는 예방책과 동시에 spectrum이 큰 항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 치료 제제의 연구가 COVID 19 이후의 문제로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 같다.

끝으로 많은 숙주에서 수없는 변이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시간이 적어도 백 년을 소비하며 생긴 pandemic 이지만 3번의 파동기(활성기)를 넘기지 못하는 coronavirus 19, (SARS-CoV-2)가 SARS-CoV와 유사한 점은 재발의 문제에 대하여 놓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돌연 변이가 어떤 특정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변이가 이렇게 가까운 시간을 두고 일어난 사실은 믿을 만한 통계가 없이는 예측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경우도 그것을 배제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coronavirus 19이 외형적으로 SARS-CoV와 유사하다고해서 SARS-CoV2로 보기 보다는 백 년이 넘게 된 precursor로 부터 무수한 변이를 걸쳐 온 결정타로 보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 편집실에 온 편지

고 신영철(59) 동문의 부인 신영주 여사께서 아래와 같이 감사카드와 함께 300달러를 보내 오셨습니다.

Dr. Seo 7-6-20  
저의 남편 故 신영철(59)씨는 기성카데 2억 명의 'In May'를 시계탑 문림에 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배러 꽃신 마음 잊리 앓았습니디.  
언제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주 드림



### 제6회 미주 합춘공로상, 학장상 수상 보고

헌신적인 노력과 각별한 애정으로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와 모교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수여하는 미주합춘공로상이 금년으로 제6회를 맞아 제19대 미주동창회장을 역임한 강수상(53) 동문, 시계탑 편집장과 뉴욕동창회



장으로 많은 수고를 하신 허선행(64) 동문, 미주동창회 남가주 지부 창립회장과 이사장으로 공헌하신 전희택(64) 동문 등이 상패와 상금 500만원(4천 달러)씩을 수상했다. 또한 학장상에는 학술연구 활동으로 모교의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한 채영광(02) 동문이 받았다.

합춘의학상을 수상하신 허선행 동문은 상금 전액을 General Fund에 2천 달러, Green Project에 1천 달러, Charity Fund에 1천 달러를, 전희택 동문은 General Fund에 2천 달러를 기부했다.

사진: 위 강수상, 허선행, 아래 전희택, 채영광

### 2020년도 레지던시 합격자 환영회



올해 7월에 시작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매칭된 동문들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화상회의가 Green Project Chair 장세권 동문(01)의 주재로 5월 2일 토요일 동부시간 저녁 8시 (한국 시간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약 두시간 가량 열렸습니다. 미주 의대동창회장 이성길(71) 선배님의 인사말로 환영사를 시작하여 매치된 동문들이 돌아가며 자기 소개를 하였고, 동창회 젊은 세대 동문들(Green Project members)도 간략하게 자기 소개를 하며 후배들의 합격을 축하하였습니다. 매치된 동문 중 김명지(19졸, Memorial Healthcare System, FL, 내과), 오유정(17졸, Brooklyn Hospital Center, NY, 소아과), 박종한(08졸, Rutgers University Hospital, NJ, 내과), 이준구(08 졸, Brigham and Women's Hospital, MA, 내과), 이지영(19졸, UPMC Children's Hospital, PA, 소아과), 김하림(19졸, University of Maryland Medical Center, MD, 내과)이 참석하였고, 동창회원 중에서는 이성길(71, MI 산부인과), 한승신(76, NY 방사선종양학), 김정아(76, NY 방사선종양학), 서귀숙(84, NY 응급영상의학), 박계영(90, IL 호흡기내과), 강민종(91, CT 호흡기내과), 임경빈(99, CA 정신과 수면의학), 박은경(00, IA 핵의학), 김태곤(01, TN 혈액종양내과), 김민정(01, MD 신경과), 장세권(01, VA 혈액종양내과), 최태웅(02, GA 혈액종양내과), 이익재(08, AL 신경과), 양현식(09, MA 신경과), 송경민(09, PA사업), 김윤희(08, MO 혈액종양내과) 등이 각 지역에서 참여하였습니다. 합격자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접속하였고, 미국에서의 레지던시 수련을 앞두고 궁금한 점을 Q&A 형식으로 대화를 풀어갔습니다. 미국 이주 시 같은 지역에서 배우자의 직장을 찾는 법, Academia와 Primary care 커리어의 다른 점, 언어 문제, 향수병, COVID-19 사태로 인한 비자 발급 지연, 이민자 부모 입장에서 자녀 양육 철학, 레지던시 수련에 임하는 자세 등 여러가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GP Chair 장세권 동문은 직업과 삶 모두에서 멘토링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후배들이 좋은 멘토와 연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창회원들이 career adviser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동창회 홈페이지 (SNUCMAAUS.org)와 연례학술대회에 관한 안내를 한 후, 합격자들에게 환영 선물로 Amazon e-gift card를 전달하였습니다.

후배들이 곧 미국에 오면 가까운 지역에 계신 선배님들과 잘 연결될 수 있기를, 그리고 합격자들은 그 다음해 지원자들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전통이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 글: 박은경 편집위원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미주 동창회 (SNUCMAA)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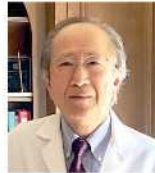
SNUCMAA 산하의 장학위원회 (Scholarship Committee)는 학업 정진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미주 지역 동포 자녀를 돕고, 또한 모교 재학생의 미주 지역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2020년 회기를 맞이하여, 장학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동문을 발굴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SNUCMAA 사무실 (전화) 516. 365. 5500  
eMail: snucmaa@yahoo.com

장학위원회 강민중 위원장 / 이선희 부위원장 올림

### 자랑하고 싶은 동기, 박승균 교수



행복의 지수를 무엇으로 재는지는 모른다. 우리가 무슨 값진 일을 했는지를 되돌아보는 나이에 이런 것 같다. 닥쳐온 바이러스의 만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더하게도 되는지 모른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등잔 밑이 어두운 것과 같이 늘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화려하고 감격적인 것을 바라는 경향이 있다.

박승균 교수, 아니 박승균 교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제15회의 동기동창이다. 졸업할 때까지 그리 가깝게 지나지는 않았지만 내가 부러웠던 친구였다. 특히 그 친구의 성품이었다. 학급에서 일어난 일들을 처리하기 위한 일에는 늘 리더십을 보여 주었다. 정의가 무엇인지 알려면 그의 사는 모습과 행동에서 보인다. 그는 동급생을 사랑했다. 내게는 마치 자기가 동급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 같았으며 늘 열정을 보였다. 공식적으로 하는 말은 정확하고 조리 있고 확실하였다. 그에게는 지도력이 있었다. 그의 뛰어난 한자의 필체는 예술적이다. 그래서인지 박교수의 부인도 목회에 출중하시다. 동기들이 모이고 여행하는 기회는 놓지 지를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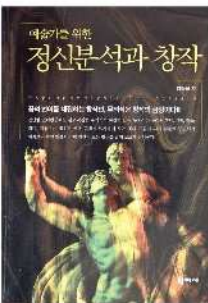
내가 놀란 것은 박교수가 미국에서 인턴을 끝내고 정신의학을 택하여 거기가 버펄로 대학(University of Buffalo)에서 교직을 맡아 계속하며 차근차근 진급하여 교수로서 5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왔다. 대개는 늦어도 70대 중반이면 퇴직을 하는 것인데 박교수에게 '자네 언제까지 할 참이야?' 라고 물으면 그의 대답은 늘 대학에서 봐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한 대학에서 50년을 지속한다는 것은 참으로 희귀한 현상이다. 나에게도 열정과 봉사의 표본으로 보였다. 해마다 언제까지 그 자리를 지킬 것인지 물으면 대답은 늘 분명치 않았다. 마침내 금년에는 그 답이 분명했다. 나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대학, 그 과장되는 사람 자네한테 신세 많이 졌네. 금덩어리라도 주던가?"라며 기어코 비꼬듯 한마디 했다. 박교수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폭탄 같았다. 버펄로대학 정신과에 박교수의 이름으로 해마다 최우수 레지던트에게 수여하는 상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S. K. Park Award for The Best Resident. 골프를 좋아했을 때 마스터스(Master's Golf Tournament) 경기에서 수여하는 그 상 컵에는 그해의 최고 선수의 이름이 새겨진다. 그것



은 그기에 영원히 남는 것이다. 상장, 상패, 상금, 비석보다 더 의미 있고 영원히 지속되는 영예다. 유명한 버펄로대학의 역사에 영원히 기억된다는 말이다. 나는 이제야 그러하면 그렇지 하고 오래 풀지 못한 수수께끼의 답을 찾은 희열이 불어왔다. 너무도 기쁜 소식이다. 이런 상을 받은 이 사람이 나의 절친한 친구라는 것은 나에게도 참으로 귀중한 선물이 아닐 수 없다. 박승균의 영예는 박씨택 영예인 것은 말할 것 없고 서울대학 의과대학, 특히 15회 졸업반의 영예이다. 내가 우쭐한 것은 말할 나위 없다. 이 나이에, (1961년 졸업이니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런 축복을 내게 던져준 친구를 갖은 은혜를 어떻게 더 표현하겠는가. 코로나건 말건 이것은 참으로 풍년이다. -강창욱(61)

#### 저서 소개



#### 예술가들 위한 정신분석과 창작

Maryland에 거주하는 강창욱(61) 동문이 지난 3월 10일 서울에서 학지사를 통하여 430쪽의 귀한 저서를 발행했다.

정신과 의사로서 연구한 모든 이론과 지식, 경험을 포함했음은 물론 이드(Id), 에고(Ego), 슈퍼에고(Superego) 사이의 역동 상호 관계, 꿈과 창작의 관계, 에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와 슈퍼에고, 심리적 성장, 의식, 무의식, 전의식, 정신분석 방법의 기초 또 정신분석이 모든 예술 창작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고 실례(實例)를 들어서 설명했다. 이 책은 문학을 비롯하여 모든 예술을 창작하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전문 서적이며 대학교 교재로도 유용한 내용들이다. 창작인은 꿈의 언어를 채집하며, 그들의 무의식은 창작의 금광이라고 했으며 이드의 욕구가 가면을 쓰고 표출되는 것이 창작 과정이라고 서술했다.

저자는 해군 군의관 복무 후 1965년 도미하여 코네티컷 Fairfield Hospital에서 정신과 교육을 마치고, Yale University Hospital와 The Selon Institute에서 웰로 우업을 마쳤다. Johns Hopkins University에서 외래 조교수로 재직했으며 또한 1999년까지 Saint Agnes Hospital에서 정신과 과장을 오랫동안 역임했으며 현재 미국 연방정부 사회보장부 정신의학 자문을 맡고 있다.

그의 저서에는 영문 'The Last Journey of C.S. Lewis', 'The best Short Stories of Yi Kwangsu' 그리고 '기도와 영혼의 숨결' 등이 있고 문학 논문으로는 춘원 이광수의 소설과 정신의학(춘원연구학회) 등이 있다. 책을 구입하실 분은 저자에게 연락하거나 교보문고(교보문고-US)나 알라딘서점(알라딘-US)을 사용하시고 또 인터넷에서 책 제목을 넣으면 찾을 수 있다. 글: 편집인 서윤석

#### 시계탑 편집회 초록

2020년 7월 11일(토) 동부시간 오후 1시

7월 편집회는 황창근 사장, 서귀숙, 박은경, 서윤석의 전화 통화와 인터넷을 통한 모든 편집위원들과의 상호 연락으로 이루어졌다.

충분한 양의 원고가 도착했으며 어려운 환경 중에도 무난히 7월호를 발간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7월호는 첫 면에 친구 회장단의 인사말이 들어가며 지난 1년간 우리 의대 졸업 필진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신용남 현 서울대학교 미주 총동창회장의 특별 기고를 실는다. 뉴욕 현장에서 코로나와 싸우면서 동창회를 이끄시는 분이시다.

아울러 지난 48년간 우리 서울의대 미주동창회를 이끌어 온 분들의 명단을 올린다. 이 중에는 이미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분들의 노력과 희생적인 정성으로 현재의 자랑스러운 우리 미주 의대 동창회가 탄생했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다음 편집회는 10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 편집장 서윤석



나는 금년에 만 86세다. 그런데 누가 나를 노인이라고 부르면 그분이 맞기는 맞는데 하면서도 듣기 거북하다. 겉으로는 못 들은 체 하지만 말이다. 실은 과거엔 60세가 넘으면 노인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65세가 넘으면 노인이라고 부르니 노인의 정의가 변했다고 스스로 위로도 해본다. 하여간 싫든 좋든 나는 노인이고 어떻게 내 나이가 이렇게 많아졌는지 나도 모른다.

내가 어릴 때는 할아버지가 사시던 대전 교외에 가면 동네 아이들이 70여세가 된 서생원이 갇힌 골방에 가 보자고 해서 서생원이 동네 아이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는데 호기심이 많은 어린아이들의 구경거리가 된 그 서생원의 나이보다 지금 월등히 많은 내 처지가 딱하다. 그 시대에는 70여세가 넘어서 대, 소변을 못 가리면 노망한다고 골방에 가두고 주로 며느리들이 먹을 것만 드러밀던 시대도 있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양로원 Nursing Home 입원 환자의 반은 치매병 Alzheimer's Disease 환자이고 주로 COVID-19에 감염되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낯선 직원들에게 학대를 받는 사람들이니 차라리 옛날 골방 신세가 더 좋았을런지도 모르겠다. 영어로는 연로인 Old People, the Elderly, Senior Citizens, Elders 등으로 부르지만 나에게서는 아무튼 어감이 좋지 않다. 무엇이라고 부르던 간에 낯선 사람들이 물려있는 양로원에 내가 들어가 팔시惣觀를 받을 가능성을 생각하니 인생이 처량하다는 생각이 든다. 한때는 정형외과整形外科 의사로서 남의 고관절, 슬관절을 갈아 넣기도 하고 골절이 되면 못을 박아 고정을 해줬지만 이제는 내가 그런 수술을 받아야 할 신세가 되었으니 내가 옛날에 짐승처럼 다루던 사람을 만나도 할 말이 없다. 내가 양로원에서 일하

는 간병인이라고 해도 나와 같은 노인들을 우대할 이유도 없고 기대를 했다면 내가 바보다. 내가 그런 환자들을 일일이 인간적으로 대하였던가 반성도 해보지만 기억도 삼삼하고 참회를 한들 무슨 변화가 있으랴 싶다. 결과로 죄가 있으면 받고 도살장에 들어가는 소들 심정어랄까.'

부모님께 재물을 떨던 시절로부터 일본의 교육제도에서 국민학교(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사춘기에 들어선 중학교 시절, 그리고 주로 해부학과 씨름하던 의대 시절, 그리고 청운의 꿈을 안고 다시 인턴부터 시작하여 전문의까지 고단한 줄 모르던 청춘 시절 모두 어제처럼 기억이 생생한데 어느덧 세월이 이렇게 흘렀다.

65세에 은퇴하고 십수 년간을 몸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어 세상이 다 그런 줄 알았더니 몸의 기능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거의 식물인간으로 향하여 퇴화 과정을 밟는다. 처음 사람 이름이 빠져나가더니 이제는 신앙, 철학, 역사 등의 구체적 사안들이 다 씻겨 내려가 토론장에는 아예 발을 뻗다. 대뇌 피질의 세포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겠지, 머리가 텅 비어가는데 막을 길이 없으니 답답하지만 어찌랴. 치매환자가 아니라도 옛날에는 자신 있게 부르던 유행가도 일 절을 못 채운다. 나이를 먹으면 하는 수 없지 하는 자괴감自壞感에 노인이란 낱말이 구역질이 날 만큼 잠재적으로 싫어진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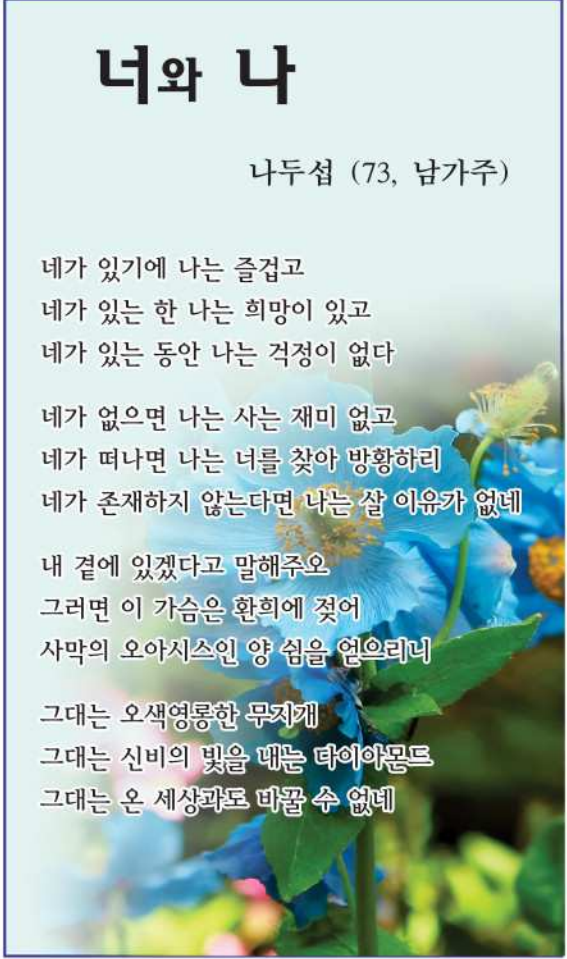
COVID-19 병이 노인들을 엄습하고 면역력이 약한 노인에게 치명적이라니 더욱 싫다. 나이를 먹는 것도 슬픈데 이 병까지 노인을 무시한다니... 말이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6월 말 현재 확진자가 세계적으로 천만 명을 육박하고 사망자는 약 50만 명이며 미국 내에서만 확진자가 약 250만 명에 사망자 수가 15만이 되어간다. 실제로는 그 두 배로 보는 것이 옳다고 말한다. 나는 평소에 황사는 면했으면 하고 희망했는데 만일에 이 코로나 병으로 간다면 그 바람이 못 이루어질까 걱정이 된다. 내가 더 늙어서 노인이라고 불려도 순순히 받아들이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나한테 저항의식이 남아있어서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든

다. 한편 그런 저항심이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가 싶어서 놀랍기도 하다. 멀지 않아서 이 저항심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으리니 참 서글프다.

교회教會에는 이번에 관데믹으로 닫기 전에는 주일 예배禮拜에 꼭 나갔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동안은 예수님께서 계시고 천국도 있는 것처럼 믿고 위로를 받는다. 사후의 영혼도 잠시 믿는다. 뇌세포가 산소와 에너지가 공급되면 활동할 것이고 따라서 전기 활동이 발생하겠지만 뇌세포가 다 죽고 산소와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면 더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하는 의문이 다시 생긴다. 내가 배운 생리학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는데 영의 세계는 내가 배운 생리학이 통하지 않는다니 할 말이 없다. 아내의 말대로 내가 의대에서 배우고 익힌 생리학과 생화학이 통하지 않는 세계가 과연 있을까? 결국 그렇게 생각하면 종교적으로 위로를 받지만 역시 그것도 순간일 뿐이고 내 믿음이 부족하다는 자책감만 쌓일 뿐이다. 그러나 정말로 영혼靈魂이 있다고 치자. 내 몇살 때의 영혼인가. 기억은 못 하지만 기어 다니기 시작할 때의 내 영혼인가 또는 내 아내를 밤낮으로 찾던 결혼초의 내 영혼인가? 또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던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님의 영혼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의문이 뒤따르니 잠을 설칠 때가 많다. 요즈음은 가끔 정신이 혼미해지니 86세의 내가 나를 대신할 수 없고 내 갓난아기 때는 기억이 없으니 영혼어랄 수는 없을 것이고 결국은 내 처지가 진퇴양난進退兩難격이 된다. 기어 다닐 때에는 내 사고나 이성이 미숙하니 참다운 영혼이 아닐 것이고 결혼초에는 호르몬이 내 생각을 주로 지배했으니 그것도 아니고 노년에 들어서면서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니 나를 대신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또 과거 지상

에서 살다간 부모님과 조상들의 영혼들은 지구 어느 곳에 계시며 지구가 아니면 우주의 어느 구석에 계시는지 궁금하다. 인간이 관찰한 바로는 우주에는 별이 있고 별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등 대단히 끊임없는 변화를 하고 있지만 천국을 보았다고 말하는 우주인은 아직 없다 내가 너무 계산적인가?

설명을 할 수 없으니 많은 사람들은 종교宗教를 찾는다. 기독교基督敎에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죽어서 인간이 갈 곳이 해결되고 영혼 문제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시면 그것은 믿음이 부족하다도 자책하면 된다. 하나님과 유사한 신神도 많지만 가능하면 하나님 이외는 다 잊는 것이 좋다고 한다. 너무도 철학적인 불교佛敎의 부처님도 있을 수 있으면 다 잊는 것이 좋다고 한다. 결국 나에게서는 노인의 뉘두리가 하나 더 늘었다.



**김일훈(57) 동문 별세**

펜실바니아에서 내과전문의로 활동 후 시카고 지역에서 은퇴생활을 즐기시던 김일훈 동문께서 지난 6월 2일 별세하셨습니다. 1남 2녀의 자녀들 중 2명은 의사로 또 한 명은 CEO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 동문은 문인으로서도 여러 권의 역사 문화 관련 서적과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의학정보 에세이 등을 한국과 미주에서 발간한 바 있으며 시계탑과 미주한인사회보 등에도 많은 글들을 기고한 바 있습니다.

**한성택(57) 동문 별세**

북부 뉴욕 Kingston에서 내과의로 활동하시다가 은퇴하신 후 버지니아 Falls Church 에서 거주하시던 한성택 동문께서 지난 5월 15일 별세하셨습니다. 유족으로는 한한희 여사와 두 자녀 Michael과 Janet가 있습니다.

**고 송관호(64) 동문 부인 정재옥 수필가 별세**

미주 동창회 총무, 시계탑 편집장, 미주동창회장, 미주한인사회회장 등 동창회와 한인의사회는 물론 한인 동포사회를 위하여 헌신과 열정으로 많은 공적을 남긴 고 송관호 동문을 도와 내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재옥 여사가 지난 6월 17일 별세하셨습니다. 정재옥 여사는 등단 문인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며 여러 권의 수필집을 발간하였고 시계탑에도 많은 기고를 했습니다.

**박형순(70) 동문 부인 별세**

버지니아 스프링필드에 거주하시는 박형순(70) 동문의 부인 김순자 님께서 지난 5월 29일 오랜 질병으로 타계하셨습니다. 영결식은 6월 8일에 있었습니다.

**한성택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 Albany 지부의 회장님으로 오랫동안 우리의 기둥이 되어 주시던 한 선생님께서 5월 15일에 돌아가셨다는 슬픈 소식이다. 코로나바이러스에 안 걸리시고 댁에서 Mrs 한의 보살핌을 받으시다가 90세 생신을 두 달 앞두고 돌아가셨다.

1980년도 초부터 서울의대 을바니 지부를 만들어 우리의 회장님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음식을 한 접시씩 해들고 모여 많이 웃고 즐겁고 정다운 시간들을 몇 십 년을 함께 보냈다.

2-3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도 다니고, 지나고 보니 그때가 우리들의 황금시대였다. 한 선생님은 큰 비디오 기계를 들고 오셔서 우리를 모델로 음악까지 곁들여 근사한 여행 기념 비디오를 만들어 나눠주셨다. 과묵하시지만 술이 거나

하게 오르시면 오셔서 Mrs 한 얼굴을 들여다보시는 애교를 부리셔서 우리가 웃곤 했었다. 가라오케를 하면 “애모” 노래는 Mrs 황이 제일 애교 있게 부르니 얼른 부르라고 하셨었는데 모두 나이가 많아져서 인생의 마지막 과정인 죽음이 찾아와 정다운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신다. 지난번 뵈었을 때 구두끈이 풀어졌다고 Dr 이남수 씨가 무릎을 꿇고 구두끈을 매드리는 걸 보며 코끝이 찡했었는데 그때가 마지막으로 뵈게 되었다.

한성택 선생님의 명복을 비오며 Mrs 한과 가족께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Mrs 황 철(66) 올림

**이운순 동기를 회상하며**

Since Daniel Lim (58) sat by me at the class, during my lab sessions and clinical session at premedical school, I was in a group with boys originated from North Korea. We also stuck together in social functions and earned the nickname of Marafunda, meaning insect group.



수년전 동기모임에서. 앞줄 오른쪽 끝 이운순, 네번째 이운순 부인 이재자와 신상근 부인

Although most of my siblings and cousins were born in Seoul, my mother was from Wonsan and my father was from Yangu, a few miles north of 38 parallel.

That time, Woon Soon (58) was rather a quiet guy. He was assisting his brother's OBGY practice at Pusan. That brother was the famous professor Jin Soon Lee (43) at the biochemistry department at Medical School. Woon Soon loved to listen to the classical music in the nearby tearooms, called as Dabang.

After a long eight years of military services, my second encounter with Woon Soon was in 1966, when I went to New York City for my residency. He became very talkative then. No wonder. Most psychiatrists talk all the time. Our wives liked each other at once and became inseparable ever since.

Mrs. Lee with music major background enriched Woon Soon's life, and they became the lifetime members of Metropolitan Opera. He also continued his voice lessons for himself. He had full life until he had to go to the nursing home. We hope he can find a unified Korea in Heaven!

Best Regards, Sarah and Young Lim (58)

# 편집위원이 만난 동문

- 1. 미국에 언제 어떤 계기로 오셨나요? 수중에 얼마의 돈을 가지고 오셨나요?
- 2. 배우자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가장 행복했던 때는?

- 3. 왜 의사가 되셨나요?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제일 중요한 의사의 조건은?
- 4. 관심이 있는 그동안 하셨던 연구분야, 하셨던 임상 전문분야는?
- 5.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힘 들었던 때는?
- 6. 의대 학창시절 추억 중에서 생각나는 이야기 한 두개만 소개해 주세요.

- 7. 다시 태어나신다면 또 의사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야에 일을 하시겠습니까?
- 8. 자녀분들을 가르치실 때 얻은 경험중 후배들에게 참고가 되는 이야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9. 특별한 취미 생활, 현재 건강을 위하여 하시는 비법, 운동이나 생활을 소개하여 주세요.
- 10.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나 시계잡 신문 발행에 조언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하여 주세요.

## 배영섭 (58) 선배님



1.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1959년 해군 군의관 시절 Philadelphia US naval Hospital에서 1년간 방사선과 수련의로 근무하면서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결혼 후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300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2. 부산 지인 선배의 중매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결혼 자체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5년간 자녀가 없다가 1966년 미국에 오자마자 다음 달에 첫 아기를 갖게 되고 4년 동안 아들 셋을 선물 받은 일입니다.

3. 신묘막측 생명에 대한 추구심. 의사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생명을 사랑하고 건강을 유지해야 하는 것.

4. 본교 해부학 교실에서 뇌조직에 대한 연구로 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함. 도미 후 일반외과 흉곽 심장외과 전문의를 취득, 현재 Retired.

5. 첫째: 생명 사랑, 믿음, 건강, 장수. 둘째: 십대에 부모님을 다 잃은

일. 셋째: 생명 구원, 죽어가는 찰나의 생명 구원.

6. 해부학 실습시간에 각 부분 해부 학명을 외우는 일이 기억남. 친구 따라서 믿음의 삶을 통해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된 것.

7. 의사가 되겠습니다, 수학이나 종교교학.

8. (1) 긍정적: 믿음 소망 사랑 자신감 목표 설정 최선을 다해서 완수할 수 있게 가르침. 그리고 아들들이 의사가 되고 굳건한 신앙인이 되다. (2) 부정적: 비관적인 사고 방식을 처음부터 갖지 않도록 인도함.

9. 긍정적인 생활 태도, 신앙생활, 운동 걷기, 골프. 담배는 처음부터 시작하지도 않았음. 술은 거의 마시지 않음. 젊을 때는 친구들과 가끔 마셨다. 나의 조상들이 음주로 다 단명하였다. 80대 후반으로 나 자신이 가족 중 최장수자가 되었다.

10. 동창회를 위하여 수고가 많습니다. 미주 동창회가 언제 단절될지 걱정이 됩니다. 오래 영속되기를 간절히 비는 바입니다.

간호원 20명을 고용시켰습니다.

6. 의대 학창시절은 환도 후 아버지의 정년 은퇴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가정교사를 하느라고 공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기용속 교수시간이 7시에 시작해서 뒷문을 잠가 버리기 때문에 한두번 밖에 강의를 못 들었지만 연필을 잘 굴려서 재시험을 면했습니다.

장질부사(Typhoid Fever)에 걸려서 고생을 했는데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김윤범 동기가 여러 가지 검사는 물론 치료 항생제까지 구해주어 완치되어서 고맷습니다.

7. 또 의사가 되겠지요. 공부 너무 힘들고 오래 걸립니다.

8. 딸 하나 아들 한 명인데 Southern Bronx의 Albert Einstein/Jacobi Hospital 근처에서 유년기를 지내고 Des Moines, Iowa에서 2년 지내고 지금은 이곳에서 자랐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강요를 안했습니다. 결국은 좋은 점 나쁜 점 다 부모를 닮아가더군요.

9. 대련에 살 때 여름이면 전차만 타면 수많은 해수욕장에 갈 수 있었고 겨울에는 집에서 걸어서 가는 거리에 호수가 3개월이나 얼어 있었습니다. 스케이트장에서는 백인계 러시 아인들이 판을 쳤지요. 학교에서도 정

구장에 물을 뿌려서 스케이트장을 만들었는데 한 해에는 교실이 정구장에 붙어있어서 수업 시간에도 스케이트 신은채 공부를 하다가 종만 치면 유리창을 넘어서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이곳 Evansville, Indiana에서는 1978년에 실내 스케이트장이 생겼는데 40살이 지나서 Hockey를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아내가 가끔 다치는 사람들을 보고 제발 그만하라고 빌어서 그만두고 Public Skating만 일주일에 세 번쯤 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닫았는데 곧 다시 열린다고 합니다.

골프는 원래 소질이 없는 편인데 우리가 속한 골프클럽에서 Four Some Member가 10년 전부터 하나둘씩 타게 하기 시작하더니 작년부터는 미망인들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바람이 좀 식어지면 연습장에 나가볼까 하고 있습니다.

담배는 대학생 때는 Non-Filtered Pall Mall이 왜 그렇게 커피하고 잘 맞았는지 애용했고 군대에서는 화랑 담배를 피우다 말다 했고 직장에서는 파이프를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차차 피울 장소가 없어져서 25년 전에 끊었습니다.

10. 특별히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 임영신 (58) 선배님



1. 진해 해군 병원에서 인턴을 할 때는 좋았으나 그 후 포항 해병대 사단에서 일 년, 진해 신병훈련소에서 반 년을 지내니까 내가 진짜 의사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운 지경이 됐습니다. 신병들은 병이 나면 기수가 늦어지니까 아파도 아프척을 안 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마침 San Diego, Naval Hospital 병리과에서 일 년 수련 코스가 있다고 해서 신청했지요. 샌프란시스코에서 Naval Station이 있는 워싱턴 DC까지 삼 일동안 최고급 침대차(Pullman Car)를 타고 고급 식당에서 같은 병원 정형외과에 지망한 김학륜 동기하고 하루 세 끼를 먹었으니 수중에 몇 백불 정식으로 받은 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Naval Language School에서 두 달 교육을 받고 샌디아고로 갔습니다. 이곳 해군 병원에서는 일 년에 600건 이상의 부검이 있었고 또 유명한 석학들의 모임인 Scripps Institute와 affiliate 되어 있어서 교과서에 있는 병은 이 눈으로 다 본 것 같습니다.

2. 신당동에 있는 전세용 동기 매부 병원에서 All Night Dance 파티가 있었는데 친구 부인이 고향 친구인 여의대 3학년생을 데리고 와서 금방 눈이 맞았습니다. 야간 통행금지 덕을 본 것이지요. 결혼 전 이야기이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최고의 행복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4.19날에 내무부 옆의 가락지 다방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나는 청량리 밖의 해군 병원에서 도미 신체검사를 받고 시위에 나가던 고려대학생들과 같이 콩북은 총소리가 나는 동대문 시장을 지나 겨우 약속 장소에 도착해보니 뜻밖에도 아직도 최 여사(현재의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콩북은 총소리를 들으며 종로 2-3가의 한옥 동네를 지나서 중앙청 근

처의 집까지 이 여인을 무사히 데려다주었습니다.

3. 만주 대련에서 일본 소학교를 다닐 때 작문을 잘 쓰고 노래를 잘해서 음악가나 신문기자가 되려고 했는데 변성기에 높은 음 한 옥타브가 없어져서 그 꿈을 버렸고 해방이 되고 중학교에서 한국말을 새로 배워야 할 신세가 되었는데다가 6.25가 터지고 해서 의과대학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의사의 조건은 봉사정신인데 이것을 다행히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4. 병리 레지던트를 Albert Enstein/Bronx Municipal Hospital에서 할 때 내과의 Hematology를 6개월간 들고 Neuropathology를 6개월간 돌았는데 이것이 새 직장을 갈 때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Blood Coagulation과 Alzheimer/Parkinson 관계로 저를 찾게 되었으니까요.

5. 서울 해군병원 검사실장으로 재직 시에 월남에 파견된 해병사단에서 30여 명의 병사들을 Tropical Malaria (Black Water Fever-검은 피오줌이 나옴) 때문에 후송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던 Time Magazine에 Quinine이 특효약이고 Chloroquine은 듣지를 않는다는 기사를 본 일이 있어서 약국에 연락을 하니 몇 년 전에 약국 지하실 밑에 기한이 지나간 일본 군대용 약을 파묻은 일이 있었다고 하며 시멘트 바닥을 파보니까 Quinine가 몇 병이 있었습니다. 즉시 보사부에 계시던 형님 친구 송재수 씨를 불러서 구할 수 있는 데로 다 더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당시 내과 과장인 신상군 동기와 그 밑 과원들의 노력으로 30여 명의 환자 전원이 아무 후유증이 없이 완쾌되어서 기했습니다. 그 후 우리가 Medal of Honor라도 탈 줄로 알았는데 해군 본부에서는 저의 제대를 일 년 더 연기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후에 팔 다리가 잘려서 나간 장병들이 몇십 명이 들어와서 박정희 대통령을 눈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비용으로 보조

## 강상진 (59) 선배님



1. 1959년 의대 졸업 후 3년간의 공군 군의관 복무를 1962년 5월에 마치고 그해 8월에 동급생 최의필 학령과 같이 Boston을 향하여 출발했다. 육, 해, 공군 군의관으로서 당시에 최초로 만기제대를 하게된 셈이다. 이때가 박정희 5.16군사 쿠데타(혁명)가 있었던 다음 해인데 그 군사정권이 새로 설립한 중앙정보부가 쉽게 처리할 신원조사 서류를 시간을 지연시키며 깔고 앉아 처리를 안한 관계로 미국 병원의 7월 1일 인턴(Internship)시작 날을 놓치고 결국은 뇌물을 조금 쓴 다음에나 출국허가가 나왔다.

처음 나의 목표는 정신과 Graduate Training을 미국에서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 정신과 학계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당시의 한국정부에서는 소유한 외화가 전혀 없는 상태여서 출국할 때 비행기표 값과 여비 \$100을 교환해 주었다. British Air Way Jet비행기가 Honolulu에서 하루밤 정박해야 하는 바람에 숙박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서 보스턴에 도착했을 때는 무일푼이 되었다. 다음 날 Decones Hospital에서 정형외과 Resident를 하는 오원환(61년 졸업)동문을 찾아가서 용돈을 빌렸다.

2. 2년 전에 작고한 내 57년간의 사랑하는 아내는 Campus Sweetheart였다. 우리와 같이 한 교정안에 있었던 음대 성악과를 졸업했으며 그녀는 내 평생의 단 하나의 사랑, 단 하나의 애인이었다. 처음 합춘원에서 만나서 첫눈에 사랑에 빠졌고 멀리서 그리워하며 1년, 교제하기를 1년, 까닭을 모르게 헤어져서 1년, 약혼하고 1년 다 합해서 내 생애의 60여년을 그녀가 차지했다, 서로가 사랑하는 정다운 부부

게는 서로가 함께 있는 동안이 바로 가장 행복한 때이다. 이제 홀몸살이를 하게되고 보니 행복한 부부에게는 남편이나 아내의 개인적인 장수長壽는 그리 의미가 없고 해로의 연조 (Conjugal Longevity)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3. 70년 전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5월에 중학 6학년(처음이자 마지막 중학 6년)으로 진급한 후, 공산군의 서울침입으로 학교문이 닫히고 정부, 학교, 많은 시민들이 부산으로 피난하여 6학년을 한 달만 다니고 중학교 졸업장을 받게된 것이다. 우리는 12명의 대가족이고 주택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우리 아버지의 친지인 소년법원 법원장의 호의로 법원 마당에 미국 군대용 텐트를 치고 숙소로 삼았다. 텐트 안의 더위와 추위는 너무 격심하여 우두커니 앉아서 시간을 보낼 곳이 못되었다.

나는 그래서 매일 음악다방인 돌체(Dolce)에서 커피 한잔을 마시고 종일 토크 도사리고 앉아 있었다. Disc Jockey를 친구로 사귀면서 희망곡으로 여러가지 새로운 음악을 발견할 수도 있고 책을 서로 나누어 읽어 볼 수 있었다. 뉴욕 법정이 판결을 내린 후 삭제부분이 없이 출판된 "차타리 부인의 사랑(Lady Chatterley's Lover)"도 여기에서 앉아서 돌려가며 읽었다. 나이 18세에 보헤미안 노릇을 하였다.

임시 수도 부산에서 하교방 교사를 세우고 명맥을 유지한 초창기였던 서울대학교가 2년째 입학시험을 시작한 1952년에 나는 이 다방에 앉아 "서부전선 이상 없다"의 저자 에리히마리아 레마크(Erich Maria Remarque)가 미국으로 이주한 후 영어로 쓴 1945년 출판된 "개선문(Arch of Triumph)"을 읽었다.

이 소설의 주인공 라빗치(Ravich)는 2차대전 발발 직전의 유럽 격동기에 모국과 고향을 버리고 파리(Paris)로 망명하여 무국적, <다음면에 계속>



**김태곤 동문**  
(01 졸업, 혈액종양내과)

**1. 미국에는 언제 어떤 계기로 오셨나요?**

의과대학을 2001년도에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인턴을 하였는데, 여러 로테이션 중 가장 일이 많고 힘들다는 보라매 병원으로 6월부터 소위 '뽀뽀뽀'(보라매 3개월 연속 근무라는 뜻)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듣던 대로 정말 바쁘게 일을 했는데, 동료 인턴이 아파서 저 혼자 24시간 동안 응급실을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돌보아야 할 환자는 많은데 아는 것은 없고, 제대로 진료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특히 행려 병동(homeless unit)을 맡으면서 공부를 제대로 더 해야겠다는 생각에 미국으로 갈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수련은 훌륭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차분히 책을 읽고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인턴을 마치고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 있는 혈액학 실험실(hematology lab)에 들어가면서 2002년 가을에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학문에 대한 의욕은 충만했지만, 사실 의학 연구(science)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길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저를 받아주신 고 Alan Gewirtz 선생님께서 백혈병(leukemia)을 연구한다는 사실만 알았지, 실제 무슨 연구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자세히 모르고 갔습니다. 그저 실험실 생활을 하면서 영어 실력도 늘리고, 잠시 머무르다가 추천장이나 받고 레지던트 수련과정을 시작해야

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영어 실력도 부족하고 실험실 연구는 해 본적도 없으니 첫 일 년은 귀머거리, 다음 반 년은 병어리로 살았습니다. 무척 괴로운 시기였지요.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너의 생각'이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시키는 일을 잘 해내는 것에 길들여져 있는데, 반대로 내 안에서 출발한 나만의 생각을 내놓으라니. 막막하기만 하였습니다. 다행히 그 시기가 지나고, 일본에서 온 Kenichi라는 박사 후 연구원(post-doc)과 친해지면서 science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배우면서 실험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science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이 길을 가야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2. 텍사스에서 박사과정, 플로리다에서 레지던트, 코네티컷에서 펠로우 수련 과정을 거치셨는데,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랩 생활을 몇 년 한 후 기쁘게도 2005년에 텍사스 휴스톤에 있는 MD Anderson Cancer Center에서 혈액종양학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꿈꾸었던 소규모 토론식 교육이 아니라 대형 강의 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하여 실망하였습니다. 고민 끝에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고 당시 비인기 전공이라 소수의 사람만이 지원했던 면역학으로 주제를 바꾸었습니다. 다행히도 면역학은 너무나 매력적이라 연구에 대한 열정을 다시 일깨워주었고,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

는 즐거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동기 4인방과 Rice University 근처 맥줏집에서 밤새워 토론했던 뜨거운 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연구가 한참 잘 되던 박사과정 중간에 제 멘토가 Florida 쪽 대학의 좋은 자리로 가게 되면서 함께 옮겨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가서 실험실을 새로 세팅하고, 가족들도 텅달아 플로리다의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마무리 실험만 하면 되었던 프로젝트는 엉뚱한 방향으로 갔고, 친구는 없었고, 음식은 입에 맞지 않았고, 지극히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지요. 하지만 아내의 내조와 사랑하는 아이들 덕에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University of Miami, Jackson Memorial Hospital에서 내과 레지던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안정과 행복의 시작인가 했는데, 안타깝게도 레지던트 과정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플로리다 주립 병원인 잭슨 병원은 공교롭게도 서울 시립 보라매 병원에 파견 나온 느낌이었습니. 당시 이미 텍사스에서 레지던트를 하고 있던 의대 입학 동기 변은광(00 졸업) 선생으로부터 받았던 많은 조언과 도움에 다시 한 번 고마움을 표합니다. 제가 일년 차 때만 해도 근로시간 제한이 그렇게 철저하지 않았고, 회진 준비를 위해 무조건 일년 차 인턴이 병동 환자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 했는데, 영어는 하나도 못 알아듣고 스페인어만 할 줄 아는 환자가 태반이니 환자 파악이 잘 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랩에만 있느라 임상 지식도 가물가물하고 영어도 부족한데, 심지어 스페인어로 환자를 돌보아야 한다니! 게다가 쿠바 2세들에게서 느끼는 문화적 괴리감이란, 아내의 아이디어로 스페인어 통역관과 친해지고자 달달한 한국식 인스턴트 커피믹스를 선물로 주고,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함께 회진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엔 쿠바 친구들도 생기고 수련도 무사히 마쳤지만, 여전히 고된 기억입니다. 제가 수련 받는 동안 아내는 MBA 과정을 했어요. 그 와중에

둘째 딸이 태어나서 부모님의 도움, 한국 아주머니 등 육아를 위해 온갖 카드를 써보았지요. 거기엔 딸아이가 아플 때 하루씩 번갈아가며 제 외래를 대신 봐주었던 동료 레지던트들도 있었습니다.

미국행을 희망하는 후배님들도 계실 텐데, 너무 힘든 이야기만 하였나요?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습니. 껌로우를 하러 북쪽 New Haven, CT으로 이사 왔더니 친한 선배님이 삼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선물로 무슨 삼을 주시나 했는데, 그 해 겨울 매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정말 매일 오더라구요. 웃픈 에피소드는 너무나 많습니다. 동문회에서 만나 직접 나눌 이야기가 많습니다.

**3. 혈액종양학 중에서도 백혈병과 골수 이식에 집중하게 된 계기는요? 선택하신 clinician-scientist track은 어떠합니까?**

먼저, 백혈병을 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미있어서 입니다. 기초 연구에 이어 임상 연구로도 백혈병을 다루게 된 것은 중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타 종양과 달리 비교적 짧은 기간에 완치 여부를 알 수 있어서 입니다. 개인적으로 길게 끄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인지 단기간에 승부를 볼 수 있는 백혈병이 성격에 맞습니다. 사실, 삶의 질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한 밤 중에도 백혈병 관련 응급 상황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지만 대부분은 보람이 있습니다.

골수 이식은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면역학으로 박사도 했었고, 골수 이식을 한 후 생기는 여러 면역 반응을 보면서 계속 알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요새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꾼 면역 치료는 사실 골수 이식에서 시작했으니까요. 기본적인 생물학적 기초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환자를 보면서 새로운 과학적 질문이 떠오릅니다. 제가 감염내과와 중환자 의학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이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는 주제는 골수 이식인 것 같습니다.

첫 질문에 말씀드렸듯이 science가 재미있어서 제 시간 <다음면에 계속>

<전면에서 계속> 난민이 된 산부인과 의사이다. 그는 프랑스 시민이 아니어서 의사면허를 못얻었다. 그래서 그는 이른바 고-스트 닥터(Ghost Doctor)노릇을 하면서 다른 의사들이 환자를 잠을 재운 후 수술실로 몰래 들어가 온갖 어려운 수술을 해내는 것이었다. 그 라비치와 마찬가지로 정처없는 난민으로서의 나는 그의 의사라는 직업에 한없이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언제 어디를 가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쓸모가 있는 봉사를 제공할 수 있는 직업, 나라와 고향을 떠나서도 언제나 어디에서나 알몸만 갖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의사라는 직업이 마음에 들었다. 나는 이 의사를 나의 천직으로 삼고 싶어서 문리대 의예과에 입학시험원서를 제출했다.

나는 언제나 의사는 경찰관, 소방수나 마찬가지로 사회의 공복이며 사회에 봉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 첫 해에는 길가 징집을 피하느라 거제도에서 미국 통역관 노릇을 하고 있었다.

의과대학 재학시에 명주환 확장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한다. <세상은 손을 꼽을 몇 명만의 명의名醫를 필요로 한다. 나머지 의사들은 모두 양의良醫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양의가 아닌 의사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4. 정신과에서는 특별히 응급정신과 Emergency Psychiatry에 관심이 깊었고, 뉴욕시 시립 우드홀Woodhull병원이 열렸을 때 이 병원의 새로운 정신과 응**

급실을 창립하고 이것을 수년간 자리가 잡힐 때까지 운영하였던 것을 흐뭇하게 기억한다.

5. 평생을 젊은 사람다운 이상주의에 몸을 맡기고 항상 자기보다 큰 것, 높은 것을 추구하는 삶이 보람된 삶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서 마음의 생활(Life of a Mind)가 있어야 하고 이 마음의 생활은 언제나 고상한 열망에 넘쳐있어야 한다. Life has to be lived, well and fully.

개인적으로 은퇴전 55년 의사노릇을 하는 동안 가장 보람있게 여기는 일은 나의정신과 감정의 결과로 힘이 없고 사회의 바다, 번두리에서 사는 미친한 시민들에게 그들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대변인(辯護者 Advocate)노릇을 멋지게 할 수 있었을 때였다.

6. 의대 3학년 때 학생위원장으로 입후보해서 다행히 당선이 됐을 때이다. 대한민국 초대 이승만 대통령 정권 때인데 독일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온 안호상 문교부장관이 히틀러 유겐트(Hitler Jugend)를 본따서 각 대학의 학생위원회를 학도호국단學徒護國團이라 부르게 만들었는데 나는 입후보자들의 정경발표자리에서 과감하게 내가 당선되면 우리는 그런 명칭을 버리고 나치즘 냄새가 너무 강했다 - 학생자치위원회라고 부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한가지는 나의 위원장 임기중에 윤번제로하던 서울대학교 신문 편집책임이 의과대학으로 마침 돌아왔던 때라 편집위원진들에게 세계 각국의 건강보험정책현황을 연구하게 하여 특집을 발간하던 일이다. 이 때 영국

의 내셔널 헬스 서비스가 입법 시행된 지 이미 십 년이 되었다는 것을 배웠다.

7. 독창적인 창작의 재질을 풍성히 축복받은 작곡가가 되었으면 한다. 80여세의 인생을 살고보니 인간의 자원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은 각자의 창작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류의 역사상 창작인들이 세상을 꾸미고 아름답게하고 지배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의사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의 머리 좋은 고급생 일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다.

8. 나의 자녀교육 맨트라Mantra는 <I am not going to raise an egotistic monster in this household>였다. 그래서 두 남매에게 16살, Sweet Sixteen이 되자 자기방에 TV를 갖게한다든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갖게하지 않았다. 흔히 미국사람들이 택하는 물질만능주의적인 해결책은 부모가 자식양육, 선도의 책임을 유기하는 옳지못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스크린에 온종일, 밤새내내 매달려 사는 아이들을 통제하는 길이 없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9. 나는 평생 운동 없이 살아왔다. 100% non-athletic한 인간이다. 골프도 시간이 아깝다는 핑계로 한번도 나간 적이 없다. 하루 골프를 치느니 차라리 집에 앉아서 오페라 2개 레코드를 들을 수 있다고 핑계를 댔는데 사실은 나는 스포츠에 적성과 소질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단지 근육 위축을 방지하고자 매일 도시길, 20블록Blocks 해당되는 거리를 매일 산책하는데 우리집에서 2블록만 떨어진 센트럴 공

원Central Park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맨해튼에 사는 혜택 중에 하나이며 늘 감사히 여기고 있다.

담배를 끊어서 10년쯤 피웠다.처음은 중학 4학년 때 시작, 친구들 등상에 가까운 친구들과 모여 빼끔거리며 호기심에 해본 것이다.

1951년 1.4 후퇴 이후 피난처 부산과 거제도에서 유랑생활을 하게 되니 그때 무척 많이 피우게 됐고 1963년 28세에 아내가 둘째아이(아직 태아의 성별감식 초음파 검사도 없었음)를 잉태했을 때 배짱도 좋게 아이에게 주는 선물이라면서 아내에게 담배를 끊는다고 맹세했다. 운수가 역세게 좋아서 그 언약을 지킬 수 있었는데 남들이 나에게 금연의 비결을 물어오면 나는 해명할 방법이 없어서 궁지에 몰린다. 권연에서 파이프, 씨가, 씨가 랠로 등등 여러 니코틴 흡입 방법을 돌아가며 바꿔보았다는 것만은 기억한다.

10. 회비 납부 통지서에 기부금을 증용하는 기부금의 분류가 너무 다양하여 주의를 산만하게 느껴진다. 차라리 하나로 묶어서 기부하는 액수가 덩치로 큰 액수가 되도록 하여 기부자의 심리를 흡족하게 하면 좋겠다. 농담 골목은 지적인 비중이 너무 가볍고 방귀 농담은 중학교 출판물에도 속하지 않는다.

끝으로 귀중한 10개의 설문을 이렇게 답하면서 나의 지난 생애를 회고하고 성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얘기했던 대로 이제는 글씨를 그리는 처지가 되었으니 손이 떨리지 않는 것만이 다행입니다.

<전면에서 계속>의 80%는 연구에 할애할 수 있는 Clinician-Scientist track을 선택하였습니다. 실험실 연구는 질병 현상의 기전을 알아내고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증명하고 거기에서 또 새로운 연구를 하는 것의 반복입니다. 사실 제가 하는 연구는 임상적으로 관련이 높은 주제이기엔 언젠가는 제 연구가 환자 치료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리라는 희망으로 일합니다만, 꼭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이 일 자체로 궁금증을 해결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4. 교수 임용을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건 연구실을 갖게 되었는데, 연구 책임자로서의 하루 일과는?**

하루 일과는 아직은 단순합니다. 제가 이곳 Nashville, TN에 온 지 일 년이 되어 가는데, 임상 진료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어서 대부분은 실험실로 출근해서 박사 후 연구원, 스태프들과 미팅하고 실험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하면서 일을 진행합니다. 다른 협동 연구를 하는 그룹과 미팅이나 세미나도 진행하고요. 임상 그룹 미팅도 참여합니다. 나머지 짤 시간은 논문과 연구 과제(grant proposal) 쓰는데 할애합니다. 제 연구실의 주제는 '백혈병 면역 치료'입니다. 암의 면역 기피(immune evasion) 중 면역 저해 물질(co-inhibitory molecule)이 관여하는 기전을 찾고, 항체를 이용해 면역 기피를 없애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면역으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는 연구를 합니다. 그것을 위해 백혈병 환자 세포를 분석해서 타겟을 찾고, 동물 모델로 증명을 한 다음, 다시 환자에게 적용하는 연구를 합니다. 아울러 백혈병을 면역으로 치료했던 고전적인 방법, 골수 이식 후에 생기는 합병증인 이식-숙주 반응(graft versus host disease)을 면역 저해 물질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찾는 연구도 합니다. 그 외에 면역 치료 임상 시험도 한 두가지 하고 있습니다.

**5. Vanderbilt와 Nashville 소개해 주세요.**

이곳에 온 지 일 년 밖에 안되어서 잘 모르지만, 제가 공부한 바를 말씀드릴게요. 내쉬빌 감리교 주교 Holland McTyeire 목사의 부인이 밴더빌트 부인의 친척인데, 맥타이어 목사가 뉴욕을 방문길에 밴더빌트 저택에서 머물렀던 것이 계기가 되어 밴더빌트 대학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감리교단에서 대학을 세우고자 하는데 재정적인 부족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맥타이어 목사가 당시 미국 제일의 갑부였던 밴더빌트 씨에게 도움을 청하자, 이 목사의 인품과 교육 신념에 감동을 받은 밴더빌트가 자신이 태어난 뉴욕 스테이튼 섬에 대학을 세우려고 하던 계획을 접고 5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밴더빌트는 '남북 전쟁으로 인해 생긴 모든 이들의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고 싶다'면서 79세가 되던 해인 1873년에 약속보다 많은 100만 달러(요즘 물가로는 2천 2백만 달러)를 기증했고, 이것이 기초가 되어 오늘의 밴더빌트 대학교가 탄생하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밴더빌트는 정작 한 번도 내쉬빌에 내려와본 적이 없고, 자기 이름을 넣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답니다. 제가 동부에 살 때 각종 별장이 다 남부 사람인 줄 알았던 밴더빌트 소유여서 신기하게 생각했었는데, 이 분은 뉴욕에서 태어나 꼭 뉴욕에 살았습니다.

내쉬빌은 아시는 대로 테네시에서 가장 큰 도시이고 컨츄리 음악의 중심지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테일러 스위프트도 여기 출신이고요. 신흥 도시로 각광받고 있어서 몇 년 전보다 인구 유입이 많아졌답니다. 의료 관련 산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먹거리로는 hot

chicken (소위 불닭), 치킨 & 비스킷, 버번 위스키가 유명합니다.

**6. 남부는 처음인데, 병원 분위기나 생활-문화 면에서 동부와 다른 점은?**

매우 다릅니다. 동부에서는 일을 할 때 서로 논쟁과 토론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배워왔고요. 유대인이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Yale에서 펠로 일년 차 때 금요일 아침마다 하는 신환 집담회(new patient conference)는 너무 따지고 드는 교수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남부는 대체로 부드러운 것 같아요. 오히려 동부식으로 꼬치꼬치 따지고 들었더니, 저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또, 사람들이 참 친절합니다. 'southern hospitality'라고 남부 특유의 친절함으로 항상 웃어주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대신 모든 과정이 매우 늦습니다. 이렇게 느린 문화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 아직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음식은 무조건 맛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먹어도 맛있습니다. 특히 치킨의 고향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쉬운 부분은 한국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예요. Yale에서는 펠로 동기 중에만 한국인 2세, 중국인 2세가 있었고, 레지던트나 학생 중에도 동양인이 너무 많다 싶을 정도였는데, 내쉬빌에는 아시아인이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7. 이민 20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미국 생활을 평한다면? 아이들 교육 면에서는 어떠한가요?**

미국에 온 지 벌써 20년이 되어 간다니 놀랍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어디에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의 직업적인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격의 없는 자유로운 토론, 새로운 생각과 다소 모험적인 연구 주제 등 행복합니다. 가족과도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으니 생활 면에서도 만족스럽습니다. 미국으로 안식년 나오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한국에서는 일과 사회생활에 치여서 가족과의 생활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장점을 보고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 교육의 장점은 한국에 비해서 덜 경쟁적이고, 아이들에게 본인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는 면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x는 y다'라는 지식을 알게 하는 것 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x는 y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방식의 교육을 합니다. 제가 박사과정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훈련을 받았던 점이 'What is your hypothesis?'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지도교수님은 제가 그 한 문장의 가설을 제대로 쓰게 하기 위해 6개월이 넘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미국 교육이 그런 것 같습니다. 가설을 세우고, 근거를 대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 배경을 설명하고, 증명할 방법을 제시하는 일련의 NIH grant proposal 양식과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논리적인 생각을 하며 자란 이들과 실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외 악기나 운동은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중심으로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8. 학창 시절 이야기 나누어볼까요.**

여름 방학에 카톨릭 학생회(CaSA)에서 김전 선생님(73졸) 지도로 진료 봉사를 갔던 기억이 가장 많이 납니다. 환자를 근처 보건소로 이동시키거나 물품을 옮기는 '운송부'를 맡게 되어 아버지 차를 빌려서 선배 두 분과 같이 굵이굽이 길을 물어 강원도 인제로 찾아갔지요. 진료소 일정이 저녁 9시쯤이면 끝났는데, 밤마다 술잔을 기울이며 우정을 다지느라 매일 3시간 정도 자면서 진료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세례식이라고 개천에서

신나게 물 놀이도 했어요. 테니스반 활동하던 추억도 많은데, 서연전(서울대-연세대 대항전)과 본교 총장배 테니스 대회에 출전하기도 했어요. 본과 4학년이던 2000년도에 의사들이 거리로 나와 투쟁했던 일도 학창 시절의 강렬한 기억이네요. 의사와 약사 사이에 처방약 조제권 분쟁이 있었는데, 결국은 의대생까지 수업을 포기하고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어찌하다 보니 제가 의사회에서 의약분업 평가단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실로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대학병원의 입장과는 다른 개원가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9. 바쁜 중에 체력 및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COVID 사태 동안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요?**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골프, 테니스, 스키 등 운동이라면 하는 것 보는 것 다 좋아하는데, 일하느라 바빠서 운동을 소홀히 하다 보니 체력이 여실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테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예전만큼 빨리 뛰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다시 치니 기분 전환은 됩니다. 두 해 전에 Snow-mass village, CO에서 열린 한 위크샵에 참여하면서 체력 관리를 다시 제대로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기반이 잡힌 physician scientist들이 신진 연구자들에게 멘토링을 해주는 자리였는데, 모든 멘토들이 산악자전거, 마라톤, 트래킹 등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반성했습니다. 아직은 실행을 못하고 있지만, 제 생활패턴에 맞는 운동을 다시 찾아보려고 합니다.

COVID 팬데믹 시기에도 저는 실험실에 나왔습니다. 다양한 유전자를 조작한 실험용 쥐들이 있어서 꾸준히 관리를 해주어야 했습니다. 그 김에 간단한 실험도 혼자서 하고, 그동안 미루었던 데이터도 분석하고 논문도 썼습니다. 물론 제 랩 동료들은 나오지 말라고 하고 미팅은 영상의회의로 진행했지요. 그리고 평소보다 집에 일찍 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아내와 한국 드라마도 봤습니다. 답답하지만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서 좋은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0. 앞으로의 소망이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미국에서 수련 받기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도 한 말씀해 주신다면요?**

소망은 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주는 것입니다. 하도 세상이 어수선한지라 그저 건강하게 커서 본인들이 원하는 길을 찾고, 세상과 주변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면 아내와 제가 서로를 의지하고 믿으면서 미국에서 살았으면 합니다. 직업적으로는 하루빨리 실험실이 자리 잡아 제가 원하는 연구를 거리낌 없이 진

# 난해시 푸념

이수인 (63 남가주)

서정시는 노년의 문학이라지  
애송할 수 있는 시를 발견할까 해서 가끔 시를 읽지  
위안이나 동감을 얻을까 해서  
철학을 얻을까 해서  
인생살이 푸념을 찾을까 해서

시가 갖는 모호함 때문인가  
개구리가 웨익스피어를 알지 못함일까  
정말 모르겠는 시가 여기저기  
난해시는 모두 심오한가  
난해성 뒤에 숨어있는 시인은 없는가  
듣는 이 없는 공간을 향해 중얼거림은 아닐까

위대한 비극시인이 백 여편의 작품을 썼으니  
주제 내용 용어까지 모두 탕진되었다드군  
좋은 언어는 벌써 다 쓰여져서  
후세의 시인들은 어찌지

"시인의 생활이란 고단하고 가파르다더니  
젊은 시절 기쁨으로 출발하나  
종당엔 낙망과 광기가 나온다더니"-유중호  
언어의 파편의 나열같은 불쑥들쑥  
연결이 안 되는 문장끼리 loose association, 아마  
이건 아무도 못알아듣지 자기 밖엔

시 독락당엔 이렇게 쓰여있드군  
"혼탁한 시류에 휘말리지 않고 정성 드려  
고운 서정시를 쓰는 시인은  
오로지 자신을 지키기위해  
자신이 지은 집에 가둬두고  
시대가 달라져도 변한 게 없다  
뽕잎만 먹고 살고 있다" - 권달용

어찌지 이젠 암송하고 싶은 시가 없으니

행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시간도 빠리가  
가는 것 같고 새로운 경향의 연구 방  
법을 따라가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  
다만, 이럴수록 초심을 잃고 싶지 않  
습니다. 내가 왜 미국에 왔는지, 와서  
어떤 걸 느꼈고 어떻게 살아가기로  
했는지 왜 clinician scientist의 길을 가  
려고 했는지 늘 되새깁니다.

미국에서 수련 받기를 희망하는 후  
배들한테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  
길이 열리니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말  
고 하라고요. 하다 보면 길이 생기고  
또 다른 길이 열리고 하는 일이 반복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긴 터널  
의 끝이 보일 거라고. 그런데 그 터널  
은 다른 터널의 시작일 뿐이니 그냥  
그 과정을 감사해하고 받아들이라고  
(embrace) 말하고 싶습니다. 기회가 있  
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미국에 처  
음 왔을 때 친 부모님처럼 보살펴 주  
셨던 심완섭 선생님(73졸)과 사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휴스  
턴에서 박사과정 학생이었을 때 돌보  
아 주셨던 김풍영 선생님(71졸)과 사  
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격려해  
주신 많은 선배님들, 동기들, 후배들  
도 고맙습니다. 아울러 제 미국 생활  
을 끝까지 지켜준 아내와 제 딸 희서,  
민서 그리고 한국에 계신 양가 부모  
님께 사랑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은경 편집위원: 인터뷰 고맙습니  
다. 이 땅에서 피워내는 우리 동문들  
의 향기에 늘 감탄합니다.

# 우연과 필연

이전일 (68, 남가주)

내 생전에 미국에 살면서 전염병의 공포에 부딪치며 나의 여생을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다.

한국에 살 때 가진 상식으로 전염병이라는 것은 콜레라, 장질부사, 뇌염 같은 것들로 생활수준 낮은 저개발국에서나 보는 질병이라는 관념이 깊었다.

이제 은퇴 후 여유롭게 여생을 보내려고 이곳 남가주까지 이사 오는 커다란 결정을 한 후였었다. 그저 몇 년 즐겁게 골프 치며 여행 다니고 이곳 온화한 겨울 날씨 즐기고 있던 중이었다.

이 무슨 청천벽력같은 홍보란 말인가!

인류가 과학 진보에 너무 자만심을 가지는 바람에 자연의 철퇴를 맞는 것인 줄 안다.

여행도, 친구 만나기도, 같이 식사하기도, 영화관에 같이 가기도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몇 주를 집에만 갇혀 지내 다 근래에 겨우 골프를 치게 되어 그나마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골프 치고 친구들끼리 어디 가서 점심 먹기도 힘들니 이 또한 문제이다.

이제 미국 내 감염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다니, 참.

최근 몇 년간 주변에서 내가 아끼던 사람들이 세상을 하직했었다.

코로나 팬데믹 전이니 그나마 좀 나은 것일까? 나의 남은 여생을 얼마나 더 즐길수 있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정할 터이니 참 한심하다.

나이를 먹어 가며 전염병의 공포에 시달리니 다음의 이야기가 자주 생각난다.

2017년에 내가 서울의대 미주 총동창회장을 하면서 이곳 남가주에서 치렀던 학술대회에서 non CME 연사로 초청하였던 나의 고등학교 동창인 전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였던 홍승수 박사가 행한 강의의 결론이라 할 수 있겠다.

그는 이 강의 후 한 이 년여를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몸이 아픈 중에도 내 초청을 수락해준 친구의 마음에 가슴이 아련해졌었다. 참고로 그는 가톨릭 신자였다.

천문학을 깊게 공부하다 보면 철학, 종교학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 없으니까. 그가 한 다른 강의에서 한 말이 있다.

천문학자들이 강의를 할 때 우주의 기원이 언제이었느냐는 문제가 나올 때마다 어물쩍 넘어간다고 한다. 확실한 증거는 하나도 없이 수학적 계산으로만 추론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나는 좋은 친구이자 석학을 한 사람 더 잃었다. 조금 먼저 떠난 우리의 조승렬 교수 말이다.

조 박사과 마지막 나눈 대화는 일본 여행 중 버스 속에서 종교 문제로 잠시 이야기하다가 내가, “그런데, 누구는 신이 없다고 하던데.” 하니

“너, Richard Dawkins의 The God Delusion.” 읽었구나 하였다.”  
“그래 지금 읽고 있어.”

참으로, 그는 박람강기(博覽強記) 하는 내가 제일 존경하는 학자님, 교수님이였다. 외풍으로 자기 분야만을 드러 파면서 옆에는 결눈조차 주지 않고 살았던 사람. 진정한 학자.

홍승수 교수의 강의 제목은 “지구-달 계에 얽힌 우연과 필연의 길항” 이었다.

우주의 신비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으며 우리 인생은 정말로 일장춘몽인 것을 다시 실감하는데 거기에 이런 바이러스 같은 미물들도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 인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니 참으로 인생이 한편의 꿈인지도 모른다.

허긴 바이러스는 우리 인간들 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 지구에서 살고 있었던 선주민들이다.

이 바이러스 창궐이 우연인지 필연인지를 나는 잘 모르겠다.

자연의 영역에 감히 손을 대어 창조주 노릇을 해보려 하였던 오만 불손한 인간들이 자초한 필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주에는 많은 우연이 있었으나 그 후 모든 삼라 만상은 필연적으로 생겨난 것일 거라고 나의 짧은 지식을 모자라는 뇌를 굴려 가며 생각해 본다. 중세의 한 격언에 말하기를,

나는 왔으나, 온 곳을 모르면서,  
나는 있느냐, 누군지 모르면서,  
나는 죽으리라,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나는 가느냐,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놀라운 일로구나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

이 격언은 ‘그리스도교 적’ 이 아니다. 왜냐하면 계시 종교에서는 모든 것에 합당한 답이 있다고 믿기 때문

이다. -칼 야스퍼스 (1883-1969)\*  
Ein mittelalterlicher Spruch lautet:  
Ich komme, ich weiss nicht woher.  
Ich bin, ich weiss nicht woher,  
Ich sterb, ich weiss nicht wann,  
Ich geh, ich weiss nicht wohin,  
Mich wundert's, dass ich froehlich bin.

Der Spruch ist nicht 'christlich'.  
Denn der Offenbarungsglaube gibt auf alles eine Antwort.

(\*Karl Theodor Jaspers (2/23/1883-2/26/1969) Der philosophische Glaube angesichts der Offenbarung, Piper, Muenchen-Zuerich, 3e., 1984, 28-29)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는 바람에 날개가 불타 추락해 버린 Icarus(= Icaro in Italian)의 동상.

Sicily 섬 Agrigento에 있는 옛 그리스 신전 앞에 놓여진 현대 조각품이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고 놀다 혼이 나는 인간들 같다.

을 견디려는듯 비스듬히 누워 있다. 저 먼 산기슭에 반딧불같은 작은 불빛이 보인다. 아마도 누군가가 잠 못 이루는 이 밤을 뜬눈으로 새우나 보다. 아니면 다정한 부부가 밤 새는 줄 모르고 소근소근 이야기라도 나누는 것일까.

떠나온 고향은 아스라한 기억 속에 떨어져 가고 있다. 정다운 고향 산천. 솜바꼭질, 딱지치기, 구슬 따먹기, 말타기 하던 어린 시절 친구들. 연 날리고, 냇가에서 피라미 잡던 아이들은 지금 다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한 반에 있던 그 예쁜 계집아이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기차는 여러 역과 마을을 지났다. 전쟁으로 파괴된 시골역, 폭격 맞은 화물열차, 초라한 시골 마을, 쓰러져가는 초가집, 민둥산도 보았다. 아름다운 초원, 강, 바다, 천 길 낭떠러지, 연기 가득 찬 굴, 폭풍과 벼락 속으로도 지나 왔다. 고층건물과 거리를 메운 자동차, 바쁜 사람들의 물결로 분주한 도회지도 지나 왔다.

지금은 멈춰버린 한순간. 나는 어디에 있고 이 기차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림: 노영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비극의 한 조각이 아닐까!

비극적 생이별로 인한 단절의 고통은 가히 메가톤급적 고통이었음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둘이 함께 있으면 등이 더욱 파스해지고, 고통은 반으로 줄고, 밧줄이 셋이면 더욱 튼튼해져 끊어질 리 없다는 말들이 더욱 생각나는 시절임이 분명하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사랑하던 가족들과 불의의 단절로 고통을 넘어 희생된 모든 분들의 영혼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2020년 5월 7일 청담 문성길

# 단절斷絶의 고통

문성길 (70, 남가주)

오랜 자가격리 후 CNN 앵커 자리로 복귀한 활기차 보이는 크리스 쿠오모를 보고 새삼 느끼는 소회를 적어보고자 한다.

3-4주 전 그의 형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자신의 막내동생 크리스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관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하는 모습과 그날 재택근무 방송을 그대로 계속하는 앵커의 모습은, 자신은 아무렇지도 한다고 주장하는 모습 이면에 벌써 한풀 꺾어 보이는 인간의 약해진 모습을 읽을 수 있었는데 오늘의 그는 본래의 활기찬 모습 그대로였음을 아낌없이 보여주어 나도 모르게, “대환영, 방송 복귀, 크리스!”하고 TV 화면에 대고 크게 외쳤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기도 하며, 그런 면에선 제3자인 필자의 주관적인 선입관도 어느 정도 작용했으리라 여겨진다.

다시 앵커의 처지를 생각해보자. 이탈리아계 미국인으로선 가장 이를 잘 알려진, 시쳇말로 가장 성공한 정치가문의 일원, 부친은 일찍이 뉴욕 주지사를 지내고 한때 민주당 대통령 후보군 물망에 올랐던 마리오 쿠오모, 그의 형도 현 뉴욕 주지사(한때는 로버트 케네디의 사위였던), 본인도 젊고 활기찬 전도 유망한 CNN의 앵커로 날카로운 비판으로 현 트럼프 행정부를 곤욕스럽게 하고 있다.

무서울 것 없고,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한마디로 아주 잘나가던 그였지만, 눈에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바이러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려

는 모습을 보면서 남의 일이지만 참으로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되었다.

바이러스야 젊음과 건강으로 격퇴시킬 수 있으리라 본인도 믿었겠지만, 자가격리되어야만 한다는 사실, 고로 사무실에 육체적으로 출근할 수 없다는 사실과 함께 평소와는 달리 우려와 온정이라는 당치도 않을 시선을 받아야만 된 자신의 신세를 비판하지는 않았는지?

단절의 고통과 그로 인한 고통은 엄청나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정들었던 직장을 정년 은퇴를 했건, 못된 상사의 부임으로 유능한 부하직원을 질투해 갖은 이유를 만들어 해고의 희생양이 되었건 간에 계획된 경우이건 예기치 못했던 경우이건 단절이란 말은 공통적이며 고통은 대단히 큰 충격일 것이다. 거기에 경제적 타격이 동반되면 그 단절의 고통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충격이 될 것이다.

얼마 전 미국 최고 대학을 나와 월스트리트에서 잘나가던 젊은이가 한번 인생이 뼈적한 후 나라의 길로 곧 두박질쳐 홈리스로 전락한 기사를 본 옛 동창생이 온갖 노력을 기울여 그를 회생시켜주었다는 기사를 기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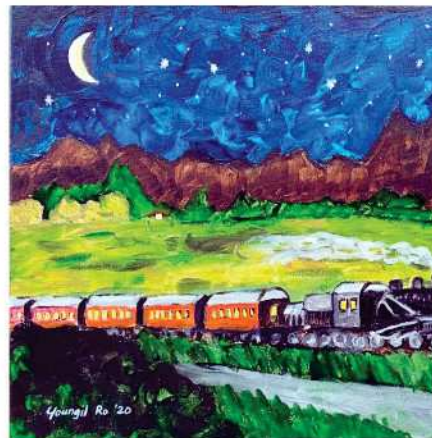
홈리스로 전락한 사람들에게겐 당장의 경제적 도움도 중요하며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단절의 외로움과 고통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더불어”, “공존” 내지 “공감”의 연대의식을 자연스럽게 그들이 느낄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조성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시혜를 주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 실제로 내가 들어가 그들처럼 된 입장일 때 혼연일체의 공감을 느끼며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코로나, 코로나, 홈리스, 홈리스 얘 기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 남북 분단으로 인한 애처로운 이산가족 이야기 들은 잘 알려진 사실들이 이루 헤아

# 야간 열차

노영일 (68, 시카고)



감감한 어둠 속을 뚫고 야간열차가 달린다. 덜컹덜컹.. 덜컹덜컹하는 단조롭고 규칙적인 바퀴 소리와 가끔 한 숨처럼 뿜어내는 목신 기적소리 밖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지친 승객들은 잠이 들었는지 모두 눈을 감고 제 자리에 누어져 있다.

창밖을 내다보니 하늘에는 촘촘한 별들과 기울어져가는 초승달이 즐

릴 수 없이 많지만 얼마 전 들은 이야기 중 하나는 65년 만에 상봉한 구순을 바라보는 노부부 이야기, 특히 노인 할머니에 대해 잠깐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얼굴도 못 보고(멀리서만 훑쳐본 편찮다 싶었던 미래의 신랑감), 손도 제대로 잡아보지 못하고 결혼한 새댁, 7개월 신혼생활 중 북으로 끌려간 신랑의 생환을 한결같이 염원하면서 유복자 아들을 키우며 수절해온 한 여인, 그리워 그가 신였었던 구두의 먼지조차 체취가 남아갈까 두려워 닦지 않고 그대로 간직해 왔다는 이야기는 손수건 없이는 들을 수 없는 한 가정

뿐만 아니라 민족의 비극의 한 조각이 아닐까!

비극적 생이별로 인한 단절의 고통은 가히 메가톤급적 고통이었음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둘이 함께 있으면 등이 더욱 파스해지고, 고통은 반으로 줄고, 밧줄이 셋이면 더욱 튼튼해져 끊어질 리 없다는 말들이 더욱 생각나는 시절임이 분명하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사랑하던 가족들과 불의의 단절로 고통을 넘어 희생된 모든 분들의 영혼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2020년 5월 7일 청담 문성길



### 진짜가 될 때까지 속여라

직장 동료와 수다를 떨다가 '언행 일치'를 어떻게 번역할지 몰라 말이 막혔다. 이중언어 사이를 왕래하다 보면 와이파이가 끊어지듯 영어의 흐름이 졸지에 끊어지고 한국말이 속나타나면서 의식을 차단할 때가 종종 있다.

나중이야 마음에 좀 들까 말까 하는 번역이 떠올랐다. 'Put your money where your mouth is' '자네는 행동을 말에 맞추어야 해'-- 이때 'money'는 사람의 행동을 부추기는 동력이고 'mouth'는 물론 말(言)이다.

'언행일치'에 해당하는 표현이 또 생각났다. 'Practice what you preach'. 직역으로, '네가 설교하는 걸 실천에 옮겨라'. 이 금언에는 우리가 남에게 설교하는 건 쉽지만 그걸 몸소 실천에 옮긴다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뉘앙스가 묻어있다. 19세기 말경 시카고 데일리 트리뷴에 처음으로 쓰인 'Talk is cheap, 말은 값싸다' 또한 비슷한 의미로 잘 쓰인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 갚는다'는 우리 격언과 뜻이 반대다.

'Practice what you preach'를 '(너의) 언행을 일치시켜라'로 의역을 하면 더 자연스럽다. 비슷한 맥락에서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유명한 대사가 있다. -- "너나 잘 하세요!" 출소하는 금자에게 두부처럼 하얗게 살라는 훈시를 하며 건네 주는 전도사의 두부를 냉정히 거부하며 하는 사이타 발언이다.

얼마 전 그룹 세션을 하다가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이라는 말이 나왔다.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은 말해 보라 했더니, 한 환자 왈, 움직이면서 말할 때는 조용히 말하라는 것이라. 'louder'는 목소리의 크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한 후,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며 나는 한껏 언성을 높였다. 이 말은 1856년에 에이브러햄 링컨이 미국인들을 감동시킨 말이기도 하다.

2019년 11월에 '언행일치' 분야에서 낙제점을 받고 있는 한 정치인의 행태를 살펴본다. 말과 행동이 일관성 있게 어긋나는 사람을 우리는 사기(詐欺)꾼이라 부른다. 만약 당신이 묵직한 한자어에 부담을 느끼는 체질이라면 같은 뜻으로 무게가 좀 덜 나가게 시리 거짓말쟁이라 해도 무방하겠지. 아니면 다시 "Talk is cheap!"은 어때냐.

영화감독이 한 것을 찍을 때 "Action!"하며 소리치는 습관이 처음 시작된 것이 1923년. 이때 'action'은 어떤 목적의식이 있는 일련의 행동을 의미한다. 이 말은 명사로 쓰이지만 'act'는 명사와 동사로 두루두루 사용된다. 'act'에는 행동한다는 뜻에다 '연기하다, 가식을 부리다' 같은 묘한 의미도 있다. 연극에서 1막, 2막 할 때 'act 1, act 2' 한다.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가식적인 요소가 숨어있다. 'Fake it till you make it'이라는 속언도 마찬가지다. '진짜가 될 때까지 속여라' -- 이 충고는 표정을 관리하거나 벅찬 감정을 통제하기 위한 소시민적 수법이다. 궁지에 몰린 범죄 혐의자의 길이 결코 아니다.

날씨가 을씨년스러워지는 요즘,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5막 5장에 나오는 독백을 상기한다. 음산한 배경음악이 들리는 듯하다. 맥베스의 독백은 이렇게 울려온다.

"인생은 한자 걸어나는 그림자, 불쌍한 연기자, 무대 위의 자기 시간을 뽐내고 안달하네. 그리고 나서 더 이상은 들리지 않네. 인생은 바보천치가 들려주는 이야기, 소리와 분노로 가득하지만,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네."



서 랑(69, 대뉴욕)

### 말할 수 없는 스토리텔링

-- To live is to suffer. To survive is to find some meaning in the suffering. (Nietzsche) -- 삶은 시달림이다. 살아남는다는 것은 그 시달림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 것이다. (니체)

제임스가 죽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망원인이었다. 몸이 뚱뚱하고 지능이 남들보다 많이 낮은 반면에 성격이 참 원만했던 제임스가 엇그제 죽었다. 내가 묻는 말은 전혀 대답하지 않고 탄소리를 하는 버릇이 있었지만 아무 결론 없이 이야기를 마무리해도 늘 좋은 기분을 남겨주는 병동환자였다.

내과의사가 어두운 표정으로 저도 제임스를 좋아했다고 말하면서 그의 죽음을 슬퍼한다. 나는 코로나 환자와 가족과 응급실 의사들의 미치광스러운 나날에 대하여 잠시 생각한다. 지구촌이 고통에 시달리는 2020년 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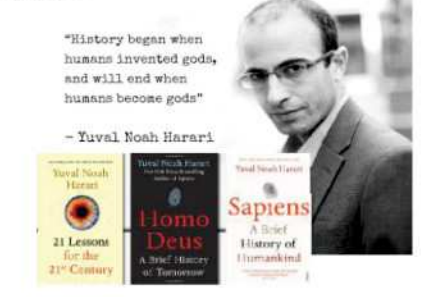
매일 아침 병동 문을 밀치고 들어설 때마다 직원들 중에 무증상 감염자와 바이러스 전파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으로 심한 긴장감이 엄습한다.

'suffer'는 13세기 고대 불어와 라틴어에서 어떤 일이 '지속해서 일어나다, 벌을 받다, 견디다, 고생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전인도유럽어에서는 '임신하다'는 뜻이었다. 당신과 나를 한참 생각하게 만드는 말이다.

'survive'는 15세기 중반에 널리 쓰이기 시작했는데 '남보다 더 오래 산다(outlive)'는 뜻이었다가 나중에 역경을 견디어 넘는다라는 뜻이 됐다. 찰스 다윈 진화론에 나오는 'survival of the fittest, 적자생존!' 바로 그 '생존'이다.

니체의 발언, '시달림의 의미'는 불교 냄새가 물씬 나는 발상이다. 언어 철학의 기반을 세운 비트겐슈타인(1889~1951)은 이런 따위의 어려운 명제를 강하게 일축한다. --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침묵하라.-- 그는 인류에게 언어의 한계성을 일깨워 준 최초의 철학자였다. 그리고 얼마 후 사르트르(1905~1980)를 위시한 실존주의자들은 우리 삶의 기쁨과 즐거움의 뒷전을 좇아다니는 고통의 그림자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까칠하게 설명한다.

철학은 의미를 추구하지만 의학은 원인을 파고든다. 나 또한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된 최초의 원인과 경로가 매우 궁금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질문은 침묵으로 응수할 만한 논제가 아니다. 정직한 반응은 '모른다'지만 정치가들은 여러 가능성과 의심을 내세운다. 어쩌면 2020년 코로나 사태에 대한 유력한 대처 방법은 정치적인 각도에 있을지도 모른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Yuval Harari, 1976~)는 2018년에 발간한 그의 최근 저서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첫 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한다. -- 인간은 팩트, 숫자, 또는 공식보다는 스토리로 생각한다. 그리고 스토리는 단순할

수록 좋다.

그는 인류의 역사가 스토리의 연속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이야기에든 기승전결과 자초지종을 내세우는 인간의 천성이 깔려있기 마련이다. 올해 44살의 하라리는 종교와 과학마저 스토리텔링의 범주에 속한다고 간간한 모범생처럼 지적한다. 우리가 내세우는 너절한 '팩트'들이 진실을 감추기 위한 교묘한 가면이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한 사람의 삶 또한 스토리라는 생각에 잠긴다. 당신과 나는 역사의 흐름에 합세하는 네버 엔딩 스토리텔링이다. 우리는 다 신화이거나 동화다. 당신의 삶이 자신과 남들을 위하여 단순하고 재미있는 스토리이기를 바란다.

### 소통, 쇼통, 또는 소똥

병동환자 로버트에게 이렇게 말했다.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모두 스트레스가 심한 판국에 약을 안 먹겠다니 아무래도 법정에서 관사가 내리는 결정을 따라야 되겠다."

환자의 인권존중 때문에 강제 투약은 꼭 법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전에도 법원의 강제 치료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그는 결핍하면 자기가 젊었을 때 보던 빌딩을 한 이야기를 끄집어낸다. 그리고 셔츠를 들어올려 거북이 배처럼 희미하게 금이 간 복근을 그 증거로 제시한다.

린다 맥칼리스터(Linda McCallister)의 저서, "I wish I'd said that, 내가 그걸 말했으면"(1992)에 나온 대화방식 여섯 가지를 여기에 이렇게 간추린다.

- 1) 귀족형 - 직설적이고 솔직하다.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어린아이가 "임금님이 빨가벗었다" 했던 말이 좋은 예. 본 대로 느낀 대로 하는 황당한 화법이다.
- 2) 소크라테스형 - 문답식으로 사태를 설명하고 어떤 해결을 모색하는 대화방법. 남을 가르칠 때 잘 쓰인다. 정신과의사들도 종종 이 수법을 쓴다. 간간한 대화절차.
- 3) 반추형 - 대화의 흐름과 상호관계를 유지하는 마음가짐. 절대로 상대방과 의견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 정도가 심한 경우에 화자는 무골호인이라는 말을 듣는다.
- 4) 집정관형 - 단호한 발언이다. 의견을 허용하지 않는 태도. 다분히 독단적이고 독재적이다. 군대 지휘관이나 CEO 스타일. 고집불통의 직장 상관!
- 5) 후보자형 - 끊임없이 재잘재잘 이야기한다. 화자는 쉬지 않고 말하는 동안 세상이 평온하다고 굳게 믿는 듯하다. 입에 침을 튀기는 수다쟁이!
- 6) 상원위원회형 - 뚜렷한 목적이 있는 침묵을 고수한다. 사실 이들은 본심을 숨기기 위하여 말을 한다. 차분하고 계산적이면서 내숭스러운 화법.

그날 로버트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가 얼떨결에 사용한 대화법을 이렇게 분석한다. 1)의 귀족적 20%, 2)의 반추적인 태도로 한 관계유지 노력이 40%, 3)의 집정관다운 단호함이 10%, 4)의 상원위원같은 본심 감추기가 30%로 섞여졌던 것이다. 그때 상황에는 5)의 소크라테스형 문답이나 6)의 후보자형 수다스러운 수법이 들어설 틈이 전혀 없었다.

로버트의 화법은 어땠는가. 그의 언어는 정신과에서 말하는 '형태적

사고장애(formal thought disorder)' 범벅이었다. 자기가 힘이 세다는 증거로서 거북이 배 복근을 과시했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심하게 아프게 한다. 그와 나 사이에 그 외에 어떤 의미심장한 의사소통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로버트는 나에게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지 않고 이른바 쇼통(show通)을 한 셈이다. 나 또한 그쯤해서 화제의 본질을 망각한 채, "야, 너 젊었을 때 힘 꺼나 썼었구나!" 하며 감탄하듯 응수했다. 이렇듯 필요한 말 대신 부질없는 말만 늘어놓는 대화를 'bullshit'이라 한다.

'bullshit'은 '헛소리'라 번역하지만 'shit, 똥'과 합쳐진 말이기 때문에 듣기에 거북살스러운 비속어다. 이 말을 내뱉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지성인 취급을 받지 못한다. 한담(閑談)이라는 묵직한 한자어가 있지만 '불싯'이 풍기는 짜릿한 뉘앙스가 없어진다.

'bullshit'의 'bull'은 '황소'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은 고대 불어 'bole'에서 유래한 '가짜, 사기'라는 뜻이었다. 로버트와 짧은 대화를 마친 후 마음이 잠시 어두웠다. 그와 나는 소통이 아닌 '소똥'을 한 것이다.

### 맛, 맛

옛날 서울 종로에 만나당이라는 빵집이 있었다. 팔랑금이 듬뿍 들어간 만나당의 찹쌀떡 맛이 마냥 그립다.

만나당은 맛이 좋다는 뜻의 '맛나다' 외에도 '만나다'를 연상시킨다.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반갑게, 또는 조심스럽게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가 숨어있다. 긴 세월이 지난 요즘 한국은 빵집보다 '맛집' 소식이 대단하다. 만나당 말고도 '맛나당'이라는 음식점 이름이 눈에 띈다. 사람보다 음식이 우선이란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emotional eating, 정서적 섭식' 증상이 발생하는 2020년 5월 중순이다. 불안과 공포를 정성껏 삭히는 우리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집에만 있으면서 삼시 세끼를 준비하는 알뜰살뜰한 여인들이 업로드한 음식 사진들을 본다. 좋은 조명과 두드러진 색채감으로 나를 현혹시키는 저 멋진 사진들!

맛과 멋은 말의 뿌리가 같다. 멋은 맛이 변한 말이다. 멋은 맛이라는 미각에서 시각 용어로 변하면서 나중에 추상적인 의미로 전환됐다. (조혁연, 2003)

우리의 술한 감각과 감성은 서로의 영역과 경계를 손바닥을 뒤집듯이 넘나들고 침범하고 잠악한다. 무엇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는 감성을 두고 눈에 '밝힌다'고 말하는 것이 그 좋은 예다. 멀쩡했던 시각이 운동감각으로 송두리째 전환되는 순간이다.

'맛깔스럽다'는 음식이 입에 당길만큼 맛이 있거나 무엇이 마음에 든다는 뜻이다. 당신은 전복죽이 맛깔스럽다는 말도 하지만 어느 수필가의 문체가 맛깔스럽다는 논평도 한다. 어떤 시가 감칠 맛이 난다고 말할 때 한편의 시를 양념이라도 쳐서 먹는 장면을 누구도 연상하지 않는다.

우리의 감각기능은 손에 어떤 물체가 잡히면 응당 입에 넣으려는 생후 몇 개월의 간난아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는 마음도 먹고, 육도 먹고, 감동 먹고, 사기꾼들은 돈을 때어먹고, 남을 등쳐먹고, 식인(食人) 근성이 있으면서 말투가 사나운 사내들은 여자를 먹는다는 비속어도 쓴다.

우리의 구강성(口腔性)은 이토록 세련미 있는 패션감각과 예술과 멋진 인간성을 추구하면서도 하면서도 아주 일상적이고 조잡한 항목들을 두루 두루 겸비하고 있는 것이다. 취미(趣味)와 기미(氣味) 같은 고도의 정신활동을 뜻하는 단어에도 '맛'미가 들어가는 것이 재미있다. <다음면에 계속>



# 여성의 관찰력

정유석 (64, 북가주)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자 마누라는 느닷없이 쇼핑물에 가자고 졸랐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 이 더위에 무슨 돈 어디에 쓸 일이 있기는 하나?) 설명인즉슨 이렇게 더운 날에 집에 들어박혀 에어컨만 틀고 있으면 전기료나 엄청나게 오를 터이니 차라리 쇼핑물에 가 있으면 시원하고 돈도 절약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오래간만에 걷는 일이라 금세 피곤해져서 벤치에 앉아 좀 쉬기로 했다. 지난번 오리건주 아틀네 집에 갔다가 그때까지 엎드려 기고 있던 손자가 아장아장 걷는 모습을 보고 마누라는 신이 나서 금년 겨울 손자의 장갑은 자기가 손수 짜서 보내겠다고 말했는데 벤치에 앉자마자 실 꾸러미를 꺼내들고 뜨개질을 시작했다. (아기 장갑 한 짝 짜는데 무슨 한 달씩이나 걸리노.) 나는 물려오는 줄음을 물리치려고 고개를 흔들고 있는데 마침 잘 차려입은 금발의 미녀가 내 눈 안에 들어왔다. 푹 푹 푹 빨간 구두 아가씨가 노오란 머리카락을 흔들며 코너를 돌아 내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이거 웬 떡이냐. 눈요깃거리가 되었으니 오늘 한 밀전은 뽑았군.)

감탄사가 저절로 터져 나왔다. “야! 참으로 예쁜 아가씨로구먼. 세상 사람들 모두 반하겠네.” 내 말에 마누라는 잠시 뜨개질을 멈추고 눈을 들어 이 아가씨를 힐끗 쳐다보더니 금세 눈을 내렸다 빨간 구두 아가씨가 조금 멀어가자 마누라가 입을 열었다.

“원 게으른 여자도 있지. 머리 염색도 제대로 하지 않고.”

“염색했는지 아는지 어떻게 아노.”

“아니 갈색 머리털이 반 인치나 삐죽삐죽 나와 있네.”

“내게는 블론드로 보이던데.”

“이 양반 눈이 빼었나. 머리털은 물론 눈썹까지 갈색인데 그 머리색이 어찌 블론드란 말이요.”

“그래도 얼굴은 예쁘지 않소.”

“눈이 짝짝이야. 한쪽 눈은 검고 한쪽 눈은 파란색이고. 한쪽 콘택즈 렌즈를 잃어버렸나 보지. 그러고도 길에 나섰으니 게으르기는 참말로.”

(아니 어느새 흘깃 지나가는 사람 눈동자까지 살펴보았나.) “그래요?”

“수염도 있던데. 코밑이 거뭇거뭇하고. 뽑아버리든지 면도로 밀면 될 것일.”

“그래도 소매 없이 팔은 내놓고 있으니 시원은 하겠더군.”

“어깨부터 팔까지 주근깨가 오글보

글 가득하던데. 원 그런 것은 가려야지. 보일 것을 보이고. 주근깨가 햇볕에 노출되면 피부 암이 걸린 데요.”

나는 조금 변명 조로 말을 이었다.

“그래도 그 여자 젊지 않소?”

“아니 젊기는. 그 여자 목에 있는 그 주름살은 보지 못했어? 젊은 여자 목에 그런 것 본 적이 있어요?”

콧수염, 주근깨, 주름살같이 마누라는 보는데 보지 못하는 내 무딘 관찰력으로 인해 조금 부아가 났다.

“그래도 유방은 풍성하던데. 앞으로 튀어나온 모양도 정말 일품이고.”

여자들이 무척 민감해 하는 유방을 언급하자 마누라는 꿀을 내기 시작했다.

“눈은 가죽이 모자라서 뚫어져 있나. 그걸 눈이라고 갖고 있어. 이 화상야. 그 여자 코르셋을 해서 허리는 잘록하게 조이고 젖통이는 위로 밀어서 커 보이지 코르셋만 풀면 축 처진 젖이야. 다 짜고 나서 찌그러진 암소 젖 보고도 환장할 남자로군.”

원 누가 여자 옷을 벗겨 보았나. 코르셋을 했더니. 나는 기어드는 목소리로 방어적 자세로 말을 이었다. “미니스커트를 입었으니 예뻐 보였겠지.”

“안짱다리를 해 가지고도 미니스커트를 입었으니 가관이지. 다리가 흰 사람은 바지를 입어서 자기 약점을 가려야 하는데.” “아 그렇겠네.”

“엉덩이는 잔뜩 올라가 허리에 붙고.”

“그래도 뒤가 평평한 동양 여자들에 비하면--”

“아예 말 궁둥이를 얻어다가 함께

사시구려.”

무심코 대꾸라고 한 것이 되로 주고 말로 받은 셈이다.

“미니스커트를 입어도 제대로 입어야지. 속치마가 밖으로까지 나와 있던데.” “그랬나?”

“그리고 삼각팬티를 입은 것까지도 나타내고.”

“아니 그 여자가 삼각팬티를 입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팽팽한 스커트를 입으면 팬티라인이 밖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 삼각팬티 말에 나는 할 말을 거의 없었다. “---”

“스타킹에는 흠집이 났어.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신고 있으니.”

“아, 아. 음, 음.” 할 말이 없었다.

“키는 똥자루만 해 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높은 하이힐을 신고 있으니, 십리도 못 가서 발목이 삐졌네.”

이건 아예 악담 수준이다.

내가 그 여성을 계속해서 바라본 것은 족히 3분은 넘었을 것이다. 그 사이에 내 눈에 뜨인 것은 금발 머리, 비교적 잘 빠진 가슴과 둔부뿐이었다. 그런데 마누라가 눈을 들어 힐끗 쳐다본 것은 이삼 초가 넘지 않는데도 그렇게 자세히 보았으니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관찰력에 큰 차이가 있나보다.

푹 푹 푹 빨간 구두 아가씨는 한번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눈앞에서 멀어져서 결국 코너를 돌아 사라져버렸고 마누라는 다시 뜨개질로 돌아왔다. 나는 잠시 멍 때리고 앉아 있다가 다시 줄음 속으로 빠져들었다.

주위가 고요하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 조용히 눈을 감는다. 맑을 것 같은 영혼은 세상의 미세먼지에 오염되었는지 선명하지가 않다.

생각해 보면 삶도 허공을 닮아서인지 내 것이라는 집착이나 아집이 불가능할 듯싶다. 거대한 우주 속 작은

마침내는 지구를 휘돌아 광대한 우주로 변한다. 온갖 세상이 생겨났다 소멸되며, 무한한 영겁이 찰나로 돌변하

통한 자연의 눈으로 보면 원래 분별이 없는 것을, 사람들은 나누고 구별하며 세상의 온갖 번뇌를 만들어 내는 것 같다.



시간이 지나자 혼의 탁한 기운들이 서서히 가라앉는 것 같다. 하지만 내 영혼은 썰물 끝에 남은 갯벌처럼, 세상에서 내쳐진 듯 초라해진 느낌이다. 어쩌면 그것은 시끄러운 세상 물결이 빠지며 자연스레 드러나는 나의 실체인지도 모른다. 아니, 성황리에 막을 내린 공연의 끝머리처럼 모두가 사라지고 화려했던 세상의 소리조차 자취를 감추며 생기는 적막 속의 고독일 것도 같다.

점에 불과한 지구 한 모퉁이에서 무엇을 얼마나 오랫동안 소유할 수 있을까. 우주의 큰 눈으로 살피면, 삶은 죽을 힘을 다해 허공같이 비어진 곳을 향해 달려가는 것일 듯도 하다. 사람들은 신기루 같고 허공 같은 삶을 움켜쥐려 애쓰지만, 떠날 때는 누구도 그 무엇도 손에 넣어 갈 수 없지 않은가. 명상은 우리를 좀 더 진실에 가까워지게 만드는 것 같다.

명상의 세계. 작은 지구의 한 구석에서 나는 모든 의식의 시작과 끝을 명상을 통해 창조하고 멸진시키고 있는 까닭이리라.

영혼이 밝은 빛으로 가득 찬 명상이 이어지면, 혼은 짜한 민트 향을 주입시킨 듯 투명하게 맑아진다. 반복되는 단전호흡으로 가슴이 청량한 기운으로 가득 차면, 혼은 얼음이 녹아 물로 변하듯 부드러워지다 우주와 하나를 이루며 무한대로 커지는가 싶더니 불현듯 한없이 풍요롭고 넉넉해진다.

명상은 들숨과 날숨을 자연의 호흡과 맞추며 그것과 하나를 이루어 자연인으로 거듭나게 만든다. 명상을 통해 자연과 하나가 된 영혼은 어느 생명체와도 소통이 가능해질 듯싶다. 시공을 잊은 혼이 명상을 통해 우주를 윤회하며 찰나와 겁을 오가는 동안, 하염없는 평온함은 온몸 세포에 넘치는 희열로 퍼져 나간다.

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깊은 단전의 동굴에서부터 뿜어지는 들숨과 날숨으로 온몸이 편안해지자, 맑은 영혼에서는 새로운 세계가 신비롭게 전개된다. 어깨에 얹힌 책임과 의무, 온갖 세상 시름들이 허공 속으로 사라지면서 무한한 시공 속에 나만의 세상이 펼쳐진다.

하지만 반대의 눈으로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허공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허공을 닮은 내 영혼도 나의 모두를 내포하고 있지 않은가. 내 마음 속에는 극과 극을 이루는 선과 악이 존재하고,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가 나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지옥과 천국을 오가지 않는가.

우리는 인생은 부모가 지어준 몸을 빌려 쓰며 잠시 세상에 머물다 떠나는 나그네이다. 헤아려 보면 삶도 세상도 잠깐 빌려 쓰다 자연의 본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 명상은 자신의 삶을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관조할 수 있게 만들어, 생의 진한 통증까지도 슬기롭게 끌어안고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다. 삶의 질통을 명상으로 승화시키고, 자기 분수에 만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가진 것이 넉넉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

한편으로 헤아려보니 명상은 허공을 닮아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무한히 넓고 커서 무엇에도 걸림이 없는 허공. 명상을 통해 영혼을 허공같이 커다랗게 만들면, 삶에 걸리거나 막히지 않아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지 않을 듯도 싶다. 허공은 허허로워서 결코 다치거나 상처를 입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면 허허로운 명상도 삼라만상 모두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다. 그곳에서는 온갖 파노라믹한 영혼의 세계가 변화무쌍하게 전개되기 때문이다. 혼이 열리고 자신만의 세계가 무한대로 펼쳐지면 그것은 유한과 무한의 세계를 경계 없이 넘나든다. 산이 되었다 물이 되고, 바다로 변했나 하면 하늘로 승천해 구름이 되었다

문득 뒷마당으로 눈을 돌리자 장미와 보겐볼라가 명상에 잠긴 듯 온몸에 정(靜)을 이루며 침묵하고 있다. 세상이 구별해 놓은 잘난 꽃도 못난 꽃도 차별없이 명상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것들은 깊은 명상을 통해 예쁘고 밍다는 형상의 분별조차 무너진 것 같다. 돌아보면 세상이 만든 잘나고 못났다는 분별 때문에, 불쌍한 영혼들은 얼마나 세간의 탓에 걸려 상처를 입고 피를 흘렸을까. 명상을

자신을 내려놓고 명상에 들면 영혼은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을 보게 된다. 살아 있음에 고마움을 느끼고, 하루를 지낼 수 있는 식량을 가진 것에 감사하며, 자신을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해준 모든 것에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

그런가 하면 허공에는 그 어떠한 것도 새겨 넣을 수가 없다. 삶에서처럼 내 것과 네 것에 금을 그어 표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너와 나의 잘못도 새겨 넣지 못한다. 그리고 보면 명상은 영혼을 허허로운 허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음식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경험의 뒷맛이 개운치 않았다는 뜻이다.

맛있다는 뜻으로 ‘palatable’이라는 좀 품격 있는 말이 있는데 어떤 일이 나 사람의 언행이 입맛에 맞거나 마음에 든다는 뜻. 그 다양성과 강도가 우리들보다 많이 뒤떨어졌지만 서구인들도 이 정도의 구강성은 있는 모양이다.

홀 메이드 김밥이며 잡채 사진을

보면서 식욕이 솟는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리면 식욕이 없어진다는데 나는 건강한 것 같으며 자신을 안심시키는 동안, 옛날 서울 만나당 빵집 입구가 자꾸 눈에 밝힌다.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찾아낸 찹쌀떡이 컴퓨터 모니터에 뜬다.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더니. 그러나 그림의 떡은 어디까지나 그림의 떡인 것을 어찌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아침이다.

숨을 쉴 수 있는 생명이 있고 무한한 자유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감성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일까. 살아 있음에, 오감의 온갖 빛으로 삶의 수채화를 그릴 수 있기에 인생은 아름답고, 그 순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 같다. 천국은 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피어나는 순간마다 영혼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닐까.

(필자: 김성환 71, 동문 부인)

<전면에서 계속> 더 재미있는 것은 ‘재미’라는 일견 순수한 우리말이 자미(滋味, 자양분 있고 맛있음)에서 유래했다는 사실!

‘taste’라는 영어도 맛, 미각이라는 뜻 외에 기호, 취향, 경험, 풍미(風味)라는 추상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He has a good taste’하면 그 사람의 취향은 품격이 있다는 뜻이고 ‘It left a bad taste in my mouth’하면

(이 네 편의 수필은 근래에 뉴욕중앙일보 컬럼, ‘잠망경’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 편집자)

### 바로잡습니다

지난 호 시계탑(47권 2호) 5면에 게재된 고 박종식(52) 선배님의 부인 성함 최영애를 최영해(崔英海)로 바로 잡습니다.

1 세균과의 전쟁 중에도 잘 다 들어진 골프코스를 따라 산책을 할 수 있으니 다행한 일이다. 방금 지나간 소나기에 말끔하게 씻긴 길을 따라 걷는다는 것, 새들의 노랫소리와 숲 사이에서 졸졸 흘러내리는 물소리를 들을 수 있다니 감사할 뿐이다. 지난 주말에는 릭 화올러Rick Fowler와 로이 맥일로이Rory McIlroy 등 4명이 캐디도 없이 자신들의 가방을 메고 코로나 모금을 위한 시합을 하는 것을 골프 채널에서 볼 수 있었다. 푸른 잔디와 야자수 경치와 더불어 젊은이들의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니 숨통이 트인다. 마음껏 스포츠를 즐길 수 있었던 자유로웠던 우리들의 세상, 그렇다, 잃고 나면 그리워지고 아쉬워진다. 애환이라 할까 혹은 추억이라 할까 골프에 얽힌 내 주위의 반세기를 정리해본다.

처음 골프공을 만져본 것은 거의 5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군의관 3년, 무의촌 1년 복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오기 직전 몇 달간, 1972년 봄, 충북 청주에 있는 주성병원에서 주관하던 도내의 회사들의 사원이나 직공들의 건강 진단팀의 담당 의사로 있을 때였다. 원장 되시는 분이 아주 활동적인 분이었는데 친구들과 골프를 치고 와서 저녁이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환자들을 열심히 진료하던 것을 기억한다. 그 집의 뜰에 넷트로 된 연습장이 있었다. 수없이 많은 구멍이 뚫린 귀엽고 예쁜 하얀 공들과 그것을 때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여러 개의 골프채를 그 연습장에서 처음 보고 휘둘러본 기억이 난다. 채가 십여 개 있는데 한두 개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몇 달 후 미국으로 오게 되어 웨인 주립대학 그레이스 병원 Wayne State University, Detroit Grace Hospital에서 인턴을 끝내고 일반외과 레지던트General Surgery resident 1년 차였는데 이때 우리가 살던 아파트 뒤에도 골프장이 있어서 지나가는 골퍼들을 가끔 보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며 무심하게 지나가곤 했다. 그러다가 레지던트를 마치고 1977년 중부의 도시인 라이마Lima Ohio에서 이비인후과 개업을 시작한 지 이 년쯤 지나서 골프를 쳐보자는 주위의 몇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금색 곰 상품 표시Golden Bear Mark가 달린 싸구려 채를 구입하여 골프장에 처음 나갔다. 9월에 100타도 더 쳤지만 무척 재미가 있어서 나는 골프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골프가 유행이 되어 그 핑계로 근처에서 사는 동창들과 만났다. 심지어 동창회 학회에서도 대부분 골프 프로그램이 따라다녔다. 또 내가 살던 타운에서는 매주 목요일이면 많은 의사들도 당직이 아니면 환자 진료를 쉬고 골프를 쳤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아내에게 염치가 없었던 일이었다. 주말에도 골프를 친 셈이다. 요즈음같이 핸드폰이 없었으니 프로 샵으로 응급환자가 있다고 전화가 오면 연락을 취해주기도 했다. 추운 날이면 화씨 32도만 넘으면 되고, 비가 오는 날에도 빗물이 얼굴에서 똑똑 떨어지는데도 미친 듯이 골프를 즐겼다. 어떤 가정의학과 의사 Dr. Blood Young는 녹음기에 <여러분 얼마나 좋은 날씨입니까! 응급환자이신 분은 병원의 응급실로 가세요, 본인은 골프를 하러 갑니다.> <What a nice day is! If you have any emergency go to emergency room. Your doctor is in golfing> 라고 했다고 소문이 나서 기막혀들 했는데 요즈음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단체개업Group Practice이고 실제로 급해서 부르면 911을 부르라고 하니 옛날 의사들이 더 책임감이 있었다고 생각이 든다. 같은 도시에 한인 의사들이 15명 이상 살아서 한인

골프대회(Lima Korean Open)시합도 했다. 그 행사는 20여 년간 계속됐다. 이 도시는 공립Public 학교가 좋아서 한인 2세들이 잘 교육을 받고 성장했다. 자녀들이 각 학년마다 미국 사람들에 비하여 성적이 뛰어났는데 모두들 테니스, 피아노, 바이올린을 경쟁적으로 부모들이 시켰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국 여자 아마추어 대회 US Women Amature에 출전했다. 당시 14살이었던 박인비를 기억한다. 한국 식당에 같이 가는 버스 속에서 <너, 골프 하는 게 좋아?> 하며 물어보니 <네, 네, 되게 재미있어요.> 하던 그 아이의 대답이 생각난다. 그렇다, 그렇게 재미가 있어 하고 즐기는 사람이니까 후일 대

## 골프에 얽힌 이야기들

서윤석 (68, 버지니아)



1999년 9월 초 Pebble Beach 골프장에서, 한민원 서윤석 이건일 김주평 이규달 고남규 박정식 황훈규 김희주 정경일 김철 서진석 문광재 유우영 노영일 김태기 부부. 참석은 했으나 유우영 부부와 최철 사진에서 빠졌습니다.

골프를 배운 아이는 없었다. 예외로 늦게(1980) 태어난 우리 집 막내딸 썬라Sarah가 스포츠를 좋아했는데 네 살 때부터 연습장에 데리고 나가면 언니들은 그늘에 앉아서 책을 읽었는데 이 아이는 연습공을 계속적으로 치는 것이었다. 언니들처럼 피아노 바이올린 같은 악기도 잘 다루었지만 정말 좋아하는 것은 배구, 농구, 축구, 소프트볼, 테니스 등 스포츠였다. 랫슨을 준 일도 없는데 내가 보는 텔레비전의 화면에 나오는 잭니크라우스가 치는 것을 보고 배웠다고 하는데 그 골프 스윙이 훌륭했다. 여름방학이면 청소년 골프시합 Junior Golf Program이 있어서 참여했고 AJGA에서 하는 전국 행사에 참여했다. 나도 시간을 내어 이 아이의 토너먼트를 따라다녔는데 재미도 있었지만 마음을 조이는 일도 많았다. 특히 퍼팅이 안 들어 간 다든지 볼이 골프장 밖으로 나가서 없어지든지 하여 벌점을 받게 되어 손해를 보면 속이 상했다. 그래도 해를 거듭하면서 실력이 일취월장하여 차츰 오하이오주의 시합은 물론 USGA에서 주최하는 전국적인 시합에도 참여했다. 나는 환자를 돌보아야 하니 아내가 멀리 데리고 다녔다. 오하이오에서 멀리 아이오와주까지 이틀을 운전해서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고 비행기가 있는 동료들에게 부탁해서 자가용 젯트 비행기를 대절해서 타주로 멀리 다녀 오기도 했다. 한 번은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펑크Flat Tire가 났을 때 골프를 치러가는 것을 알고 교통경찰이 아주 친절하게 도와주던 기억이 난다. 이때 스포츠를 통한 이 나라 사람들의 공통적인 정서를 느꼈다. 이런 스포츠를 통한 자제가 미국을 강하게 한다는 것임을 깨닫게 했다. 스포츠 전문Sport Illustrate 잡지와 USGA 잡지에 이름이 나오니까 많은 이웃들이 그 잡지를 들고 와서 보여주며 대학 골프 코치들이 연락을 해왔다. 고등학교 시절에서는 남자 골프 팀에 속해서 활동했다. 테네시에서 열렸던 USGA의 Junior Champion 에서 출전, 매치 플레이로 올라가 타이랜드에서 온 한국 교포 쌍둥이 중 한 명인 송나리를 이기고 멕시코 출신 로레나 오초아Lorena Ochoa와 대결하여 1대 1로 시합했다. 그 후 포틀랜드 Portland, Oregon에서와 코미디안 빌 머리Bill Murray가 어떤 참가 선수의 캐디를 해서 웃겼던 슬리피 헬로 클럽 Sleepy Hallow Cuntry Club, NY에서 열린

성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썬라가 대학에 진학할 무렵인 1998년, 우리나라는 IMF로 힘들었던 해였다. 헤성처럼 나타난 박세리 선수 이야기다. 아직 알려지지 않았던 그녀가 델라웨어주에서 있었던 듀폰 회사Dupont 주최 4대 Major 중의 하나인 LPGA 시합에서 명문 듀우크Duke University 팀이었던 아마추어 제니 시스러폰Jenny Chuasiriporn 을 자신의 볼이 잘못 들어간 개전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친 샷으로 동점 경기에서 물리치고 우승하여 기쁨을 토했을 때다.



사진(위): 앞줄 썬라와 박세리 선수, 뒤에 마중기 시인 부부.

사진(아래) 뒷줄 세번째 박세리 선수, 두번째 마중기 시인, 다섯번째 필자, 끝이 이상열(65), 앞에 앉은 첫번째 임윤명 (68) 그 옆 박세리 아버지.

1998년 7월 9일 이동해(62) 댁에서.

그다음주에 톨레도Toledo, Ohio의 실바니아 하이랜드Sylvania Highland 코스에서 시합이 있었다. 아직 장래가 미지수였던 박세리인지라 그 지역의 한국 주민들의 성원은 대단했다. 하던 일과를 닫고 모두들 응원하려고 골프장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줄을 서서 따라다녔다. 물론 서울에서 온 박선수의 부모도 그랬다. 당시 그곳에 살던 임윤명(68) 동기가 점심때가 가까워올 무렵 박세리 아버지에게 가까이 접근해서 미소를 지으면서 <오늘 저녁에 불고기 파티를 하는데 오시겠습니까?> 하며 권하니 한국 식당도 없고 배도 출출한 시간이라 그랬던지 흔쾌히 승낙을 받게 된 것이었다. 당시 아마추어였던 골프의 명문 아리조나

주립대학에 다니고 있었던 강남의 삼원가든집 주인 딸 박지은Grace Park 선수와 일본 선수 고바야시도 같이 초대되어 모였다. 산부인과를 하시던 이동해(62) 선배님의 저택에서 있었던 뜻깊은 모임이었다. 이곳 한국 교민들이 이처럼 단결하여 모두들 그녀를 응원을 해주었던 것이다. 박세리는 그 다음날 61을 치고 LPGA 선수로 2승을 기록했다. 그녀가 이기고 난 다음에는 도시가 Sylvania Road를 Seri Pak Road로 1년간 명명했으며 그 후 잇달아 우승하는 선수들의 이름으로 바뀌어 왔는데 대부분이 아직까지 한국계 선수들의 이름이다. 이렇게 박세리의 신화가 시작되던 이 일을 우리는 잊을 수 없다. IMF로 축 쳐져있던 대한민국의 기상을 올려준 선수가 바로 박세리였던 것이다.

그날 저녁식사에 나왔던 갈비구이, 불고기로 영양섭취를 잘 한 것과 무엇보다도 교포들의 성원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2 우리 68년 동기들은 다른 학년에 비해서 일찍 골프를 즐기며 모였다. 그리고 요즈음도 워싱턴 근처 동기들(골프 회장 신용계) 11명이 아직도 이상하게 한 지역에 모여살게 되었고 차츰 80을 바라보는 나이에 지난 10년간 은퇴 후 일주일에 평균 하루씩 모여서 친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중단된 상황이지만 몇 달 내로 다시 회동을 희망하고 있다. 우리는 90년대 중반부터 골프로 모이기 시작했다. 메릴랜드주의 오션시티Ocean City에서 모기한테 뜯기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루 36홀씩 치기도 하고 해마다 겨울이면 남자들만 16명씩 모여서 후로리다의 올랜도 베이힐, 탬파 또는 김주평 동기가 살던 마이애미의 도랄 Doral 클럽에서 모이거나 캘리포니아의 아이젠하워 코스, 애리조나 피닉스 웨그만 리조트 등 유명한 코스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만났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17명의 부부 총 34명이 모였던 1999년 페블비취(최철 주관)와 골프의 원산지 스코틀랜드의 앤드류 코스 San Anrew Old Course (이건일 주관)에 다녀온 일이다. 부부가 참여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 유럽 왕복 여행 경비와 골프료Green Fee (캐디값만 25파운드 즉 45불, 스타터에게 25불)가 비쌌지만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 당시 광우병 Mad Cow 질병이 있던 20년 전 일이다. 물가가 비싼 영국, 한국 식당이 별로 없었던 때이다. 라면과 고추장을 들고 다니기도 했다. 우리는 소고기도 못 먹고 다녔는데 몇 명이 블랙 앵거스 Black Angus 소고기를 먹었으나 모두 아직 무사하다. 미국에 사는 동기들처럼 서울 동기들도 많은 사람이 골프를 쳤다. 그래서 졸업 30주년, 또 50주년에는 강원도 춘천에 있는 아름다운 라데나Ladena 코스(두산 박용현 동문 주선)에서 즐길 수 있어서 참 좋았다.



68년도 졸업 50주년 기념 골프, 춘천 Ladena 골프장에서 좌로부터 강조웅, 박용현, 서윤석, 신용계

서울에서 골프를 치면 그늘집의 경험이 좋고 운동 후 쉼없이 목욕을 하고 식사까지 대접을 받았는데 갈아 입을 옷은 있으나 가방이 없어서 비닐봉지에 넣어서 <다음면에 계속>

<전면에서 계속> 들고 다니던 것이 신사 체면상 조금 미안했다. 그래도 손님 대접으로 잘 간수해준 비서진들의 배려가 고맙다. 방문할 때마다 식사, 교통편이나 모든 것을 서울 최고급으로 대접을 받은 것임을 그곳(김상우 평생 동기 회장 포함) 동문들께 늘 감사한다.

미주 동기 골프 회장직을 한동안 돌리다가 말았고, 정경일, 김경탁, 임윤명, 고남규, 이한홍, 홍광신, 최철, 김주평, 한민원, 이견일, 이규달, 그리고 후반기에는 본인이 10여 년간 맡아서 지형적으로 중간인 콜럼버스 오하이오에서 했다. 우승 트로피를 만들어 돌려받고 했는데 우승자인 한민원 동문이 가지고 가서 돌려주지 않고 중국 여행 중에 사망하여 이제는 그 옥색같은 트로피가 없어졌다. 가장 많이 친 경우가 김경탁이 주관하던 5박 6일로 애리조나의 피닉스의 웨그만 리조트에서 모였을 때이다. 36홀씩 매일 치니까 4일째부터는 지쳐서 점수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볼을 원수를 다루듯이 두들기는 것이었다. 마치 골프장에 노동을 하러 나온 사람들처럼 신물이 나도록 많이 쳤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카드놀이(마이트)도 못하고 고단해서 모두들 잠자리로 들어가서 잠꼬대를 하면서 앓는 소리들을 내는 것이었다.



St Andrew Old Course 새벽 6시 2000년, 김철(68)부부와 함께

아직도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우리 미주의대 학술대회 때는 골프가 꼭 따라다녔다. 1996년 한기현(63) 선배님 24대 동창회장 때 허쉬공원 Hershey Park, PA에서 서울에서 오신 이길녀 선배님 그리고 고 오태희(64) 님과 한 조로 치던 기억이 난다. 이길녀 명예 회장님은 여자분으로 몇 개 안되는 골프채를 사용하며 스윙도 아름답고 잘 치셨다. 나도 재수가 좋게 근접상 Closest Pin을 하게 되어서 그때 받은 탁상시계가 아직도 잘 돌아가고 있다. 오태희 님은 당시 수십 년에 걸쳐 폐암, 전위된 뇌암을 이겨내고 C 간염에 대한 치료도 받고 생존했던 본인에 예일대학 마취과 교수였으며 수필을 잘 쓰시던 문필가였다. 수십 년간 잘 견디시다가 불과 몇 년 전에 작고했다. 청중들 앞에서 공연 도중 쓰러져 사망한 장래가 총망 되던 음악 탤런트를 지닌 사랑하는 아드님에 대하여 쓰신 수필, 그 시계탑에 올린 그 작품은 독자의 심금을 울렸다.

**3** 골프라는 운동을 통하여 싸라는 입학하는데 아주 유리했다. 고등학교 졸업반이 될 무렵에는 차츰 이름이 스포츠 잡지에 올라오고 USGA에서 참여했던 때는 신인 발탁을 위하여 참가한 각 대학 코치들이 그 자연스러운 멋진 스윙을 눈여겨보았다. 그리고 각 대학교에서 인터뷰를 오라고 연락이 왔다. 가까운 몇 대학교에 우선 가서 골프팀으로 면접을 했지만 본인이 제일 좋아하던 곳은 멀리 떨어진 Yale 대학 팀이었다.

첫째로 골프장이 마음에 들었고 LPGA 선수였던 코치 도나후리오 Heather Donafrio가 전화를 하고 3일간 골프팀과 같이 지내게 해주었다. 팀들과 합숙 후에 아주 흡족했던 모양인지 3일 후 데리러 갔더니 벌써 그 대학 모자를 쓰고 나오면서 “아빠 나 이 학교에 올래.” “Daddy I am coming

to this School.”라고 한다. 이렇게 마음이 정해진 후 며칠 후 하바드 코치 스미스씨와 프린스턴의 코치 Mr. Stein한테서 어찌 됐느냐고 연락이 왔지만 이미 결정했다고 알려주었다. 이들 코치들을 그 후 Ivy league 골프시합에서 여러 번 만났다.



Yale 여자골프팀 2001

이 나라에서는 SAT Score, MCAT, Grade Point 등 학업성적도 중요하지만 운동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이때 비로소 알았다. 입학 후 골프를 통하여 과외 활동을 많이 했는데 대학 생활 중에서 주말이 오면 남들이 놀 때 시합에 나가야 하므로 공부하는 시간을 빼앗겼지만 시합을 나가려고 여행하는 버스 속에서 밀린 공부도 하고 정성을 들여서 학점을 제대로 얻었다. 참고로 부언하면 등록금을 주며 뽑는 학교에 들어가면 스포츠를 주로 하게 되는 의의감이 있다. 그러나 IVY 리그 대학에서는 입학 후에도 본인이 원하면 골프팀을 탈퇴하고 학업을 우선으로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러 면으로 힘이 더 들었을 터인데도 다행히 여러 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했고 아이비 리그 개인 우승 IVY League Solo Champion도 했고 Yale 팀이 아이비리그 단체 우승 Ivy League Championship 팀이 되는데도 공헌했다. 3-4학년 때는 팀 대표 Captain으로 봉사했다. 졸업할 때 가장 우수한 운동선수에게 수여하는 총장 상 (Nellie Pratt Elliot Award)를 과분하게도 받았다. 졸업식 무렵 리처드 레빈 총장(Richard Levin) 저택으로 전 골프팀과 부모들이 초대를 받았던 즐거운 추억이 있다.



Yale Richard Levin 총장과 필자와 싸라

대학을 졸업한 후 싸라는 휴처 리그 Future Tour에서 1년 프로 pro-golf 생활을 했다. 그러나 그 프로 골프 생활이란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다. 자신의 생활비는 물론 우선 참가비(약 300불), 호텔 숙박비, 캐디 값을 부담하고 여행경비가 든다. 매 주말 시합 장소를 옮겨 다니게 되는데 방랑자들의 신세다. 시작을 한 후에도 성적이 안 좋아서 커트에 걸리면 돈을 번다는 보장도 없다. 같이 골프를 하던 많은 동료들이 LPGA까지도 올라갔다가도 이름을 날리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져 나오는 것이 보통이다. 1년쯤 지나고 나서 싸라가 나에게 결심을 말했다.

“아빠 나 학교로 돌아가야겠어요. 의과대학을 지망하겠어요.” “Daddy, I have to go back to school. I plan going to the medical school!”라고 말한다. 나는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었다. 그런데 의과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쉬웠다. 지원서를 낸 Ohio 근처의 모든 학교에서 오라고 했다. 그런데 하필이면 집에서 아주 멀고 뉴욕 맨해튼 한가운데의 학비가 비싼 마운트 싸이나이 Mount Sinai 의과대학에 간다고 한다. 그 의과 대학의 이사장이자 학장인

닥터 데이비스 Dr. Davis는 골프팀의 친구인 조디 Jodi의 아버지이다. 대학 골프시합이 있었을 때 지나가는 말로 만일에 의과대학을 간다면 자기네 학교로 오라고 농담처럼 준 언질 때문에 그랬는지 혹은 큰 도시가 있는 동부가 좋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싸라는 미드웨스트 보다는 동부에 인연을 맺고 살게 된 것이었다.

닥터 데이비스 부부는 2001년 911사태 때에 공포에 썩인 뉴욕의 텅 빈 밤거리를 운전하여 병원을 지키기 위하여 출근했던 심각했던 이야기와 한 동안 병원 운영에 어려웠던 이야기를 나에게 허심탄회하게 설명했던 기억이 난다. 부부가 정신과 교수인데 치매 Alzheimer's Disease 치료약 개발에 권위자들이다. 그 후 싸라가 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비인후과를 지망해서 면접을 다닐 때도 골프 경력이 큰 도움을 주었다. 나와 수십 년간 이비인후과 환자 진료료 서로 인연이 있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Drs. David Sculler, Brad Welling(현재 MGH ENT Chairman) 프로그램에서 면접을 하고 나온 날도 골프 이야기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나왔다고 해서 웃었다. 미국의과협회 American College of Surgeon에서 나오는 책자에 실린 글을 보니까 외과의사로 우수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학생 때 팀스포츠를 한 사람들이 많다는 논문 Article을 읽은 일이 있다.



Dartmouth Invitational 여자 대학 골프경기 2019년 가을

지난 가을 싸라가 조교수로 일하는 다투머스 히치콕 Dartmouth Hitchcock 대학병원이 있는 뉴햄프셔에 갔다가 다투머스 초청 여자부 대학 골프 Dartmouth Invitaion 토너먼트를 구경할 기회가 있었다. 젊고 활기찬 학생들의 게임을 그들 부모들과 같이 몇 홀을 같이 보았는데 이십 년 전에 나도 저들처럼 마음을 조이며 따라 다녔었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4** 흔히들 18홀의 골프게임을 인생에 비교한다. 골프만이 아니라 농구, 야구, 소프트볼, 럭비, 미식축구 등 이런 스포츠를 통하여 이 나라에서는 젊은이가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배운다. 그중에서도 골프에서는 예의범절, 정신적인 수양 내지 인내심, 골프규칙(Rule)을 지키는 준법성, 체력의 단련, 공동생활에 필요한 사회성을 중요시한다. 18홀의 골프를 같이 치고 나면 잘 치고 못 치고를 떠나서 그 사람의 됴됨이를 알아볼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이 스윙을 하는 시간인데도 옆에서 연습 소리를 내거나 말을 하면 안 된다. 남을 배려함이 없이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거나, 너무 오래 걸리거나, 허락도 없이 예고도 없이 뒤에서 여러 개 공을 치거나, 공을 잃어버렸을 때 슬쩍 찾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가르친다. 또 게임이 다 끝났을 때는 모자를 벗고 정중히 인사를 하고 헤어진다. 내기를 했는데 졌을 때 화가 나서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은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도 같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는 다음에는 같이 치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스코어를 (더 많은 타수

를 잘못 보고하는 것은 벌점이 없음) 속이는 사람, 규칙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장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스포츠이다. 어찌 보면 좋은 골프를 배우는 과정은 올바른 크리스찬이 되려고 교회에 나가거나 훌륭한 스님이 되려고 절에서 수양하는 것과 닮았다. 독선가가 아닌 민주주의적 사고방식을 갖춘 훌륭한 신사도, 숙녀도를 배우는 고상한 스포츠인 것이다. 코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입는 옷에 대한 복장 규정 Dress Code이 있다. 남자들은 상의에 옷깃 Collar이 있는 옷을 입어야 한다. 그런데 이 점은 요즈음 여자들에게는 많이 자유로워진 것 같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골프를 부유한 사람의 스포츠로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골프를 통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대학 입학에 도움이 되는 일도 많다. 물론 자질이 있어서 성공적인 프로가 될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게 되기는 참 어렵다. 세계적인 프로가 되면 좋지만 그 수십 배수의 지망생들이 젊은 날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실패하고 포기하게 된다. 그리고 다른 직업으로 전향한다. 물론 그런 젊은이는 다른 직업으로 갔을 때 골프 경력이 있으면 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 살아가는데 취미나 운동으로 평생 즐길 수도 있는 것이다.

골프는 스코틀랜드에서 수백 년 전에 생겨 보통 사람(병사들)도 즐기던 긴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좋은 스포츠이다. 우리 동기들도 이 골프에 중독이 되어 열심히 배우고 즐겼으며 아직도 치는 사람들이 많다. 다만, 70대에 접어들면서 비거리도 줄고 육체적으로 팔, 갈비뼈, 허리, 어깨, 무릎, 손목 등 신체 부위에 부상을 입는다. 특히 많은 친구들이 아래 허리 수술을 받는 것을 목격한다. 그래서 골프를 중단하는 것이 필수인 사람들도 생겨나는 것이다. 모두들 자신의 몸의 컨디션을 생각하여 무리가 없도록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본인이 4-5년 전 미주 동창회 일로 동아제약의 강신호 선배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 그때 그분의 연세가 거의 90이신데 18홀을 걸어서 치신다는데 놀랐다. 그런 분들은 아주 드문 것이다.

나는 이번 코로나 사태 중에도 집 뒤로 나가면 연못이 나오고 골프장이 있어서 프로샵의 허락을 받고 13홀부터 4-5홀을 6개의 채만을 짊어지고 치며 매일 걷는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히 친구들과 같이 다시 모일 수 있는 날만 기다린다. 며칠 전 앤소니 파우치 박사 Dr. Anthony Fauci가 발표한 희망적인 뉴스처럼 하루속히 백신 약 Vaccine이 개발되어 마스크 없이 모여서 골프도 마음껏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부유한 이 미국인데 비인간적인 시진핑 공산당 정부도 우선 나쁜지만 무서운 미생물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인식과 준비가 잘못되어 10만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니 가슴이 아프고 창피하다. 사망하신 수많은 분들의 영혼 앞에 머리 숙인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 각성하고 더욱 생명을 경외하며 의학 연구와 예방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는 전 국민이 함께 노력하면 이 어려움을 곧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 모두가 끝까지, 약해지거나 헤이해지지 말고 불편하더라도 사회격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사용하며 견디면 세균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결국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것처럼 같이 모여서 스포츠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평화로운 세상이 곧 다시 올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 인격장애 III Personality Disorder

## 부제: 당신은 정상입니까?

이 원 택(71, 남가주)

### 자기애성(narcissistic) 인격장애

또한, 미국의 심리분석가 Kohut (1913-1981)는 성숙한 인격의 형성에서 자기 통합(self-cohesion)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때 자기 대상(self-object)으로 떠오른 부모가, 자식과 감정의 기준(code)이 맞아떨어져야 건전한 이상화(idealization)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저자의 부모님들은 서울에서 낙향해서 초등학교 선생으로 근근이 생활하는 자기 자신들의 처지를, 그 잘난 아들을 통해 방까지 해보려고 하였으니 그 기준(code)이 제대로 맞아 들어갔는지. 그래서 자기 통합을 못 이룬 이 이원택 박사는 아직도, 세상에서 제일 잘 쓰인 정신과 교과서를 출판해서 돈을 왕창 벌여보자는 공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미숙한 저자가 암만 발버둥을 쳐도, 역시 이 방면으로는 북한에 계신 김정은 장군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우리의 국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분이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풍운아, Rhett Butler도 자기애성 인격성향(trait)이 상당히 짙은 인물이다. 또한 많은 정신과 의사가 트럼프도 이 범주에 포함시키는 모양이나 저자가 보기에 그는 자기 사랑보다 ‘무대성 체질’이 더 강한 사람이다.

비근한 예로 땅콩 시비로 국제선 여객기를 회항시킨 ‘갑질’이 있다. 현저한 특성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타인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으며 타인과 다르다는 특권 의식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강요하고 조그만 비판도 못 참는 등, 세상만사가 자기중심으로 이루어져야 성이 찬다.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라, 까발리면 별 볼일이 없는데, 의사나 교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요한 감별 진단으로 첫째 경조증(hypomania)이 있다. 이때 나타나는 과대성은 일시적이고, 자기애성 인격장애에서는 평생 나타나는 증상이며, 경조증 환자나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나 자기가 생색낼 일을 만들어 내지만, 자기애성 인격장애에서는 그래도 앞뒤 다 재보고 자기가 인정받을 만한 일만 벌인다. 좀 약은 사람들이다. 반면에 경조증이나 조증 환자는 막무가내인 경우가 많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연민의 정을 자아내게 한다.

둘째 반사회적 인격장애와의 감별 진단으로 다 같이 대인 간에 정감이 없고 타인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자기애성 인격장애에서는 훨씬 덜 충동적이고, 또한 자기를 자랑하느라고 남을 폄하하는 것이지 남을 해치려는 의도는 없다.

셋째 경계성 인격장애는 정서적으로 밑바탕에 깊은 의존심과 폭넓은 결핍증을 내포하고 있으나,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겠다는 너무 지나친 지배욕이 문제인 것이다.

약물치료는 뚜렷한 조증이 있을 때는 lithium을, 심한 우울증이 겹쳐져 있을 때는 SSRI를 쓰기도 하나, 근본적으로는 심리요법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제 잘난 맛에, 의사를 찾아오는 일이 거의 없고 할 수 없이 의사를 봐야 될 때도 꼭 그 방면에서 최고의 권위자를 찾는 경향이 있다.

이 사람들도 무대성 인격장애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성향을 가진 환자로 구성된 집단 치료에서, 다른 놈들

이 잘난 척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거울삼아 자기 행동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심리극을 가미해서 장군과 조개의 역할을 서로 바꾸어 가면서, 다른 사람의 처지도 생각해 보는 이타심을 길러 주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차이점에 집착한 나머지, 자신의 내부는 사실은 불안과 불만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 이때 인지요법을 사용해서, 자기가 남한테 어떻게 보이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는, 즉, 내면적 안정의 도수를 바꿔주는 방법이 있다. 가끔가다 치료가 너무 잘 되어서 모든 속세의 욕심을 다 버리고(asceticism 금욕주의: 성숙한 방어기제 중의 하나), 도를 닦으려 입산하는 수도자가 되기도 하지만 말이다. 결국, 도가 튼다는 것은 남들이 자기를 존경해 주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를 존중해 주는 자기애성 인격 성향(trait)이 승화(sublimation: 또 하나의 성숙한 방어기제임)한 것이 아니겠는가.

Narcissus는 희랍신화에 나오는 강의 신과 요정의 아들인데, 어머니는 그가 자신의 얼굴을 보지 않는 한 장수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다. 자신의 용모에 자신이 있었던 Narcissus는 여자들이 꼬셔도 안 넘어가고 매일같이 연못에 가서 자기가 얼마나 잘났나 감상하다가, 연못 속에 비친 자신의 분신에 반해 빨려 들어갔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들은 젊어서는 자기도취에 빠져 그러저럭 지내다가, 중년기가 되면서 주름살도 생기고 똥배도 나오고 머리털도 빠지기 시작하면, 극심한 우울증과 절망감을 가져와서 약물중독이나 심한 건강염려증(hypochondriasis)이나 잘못하면 자살에 이르는 수도 있으므로, 중년기 위기를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하다.

### 우울성 인격장애

세상에는 매사가 시큰둥하고 평생 밀도 끝도 없이 항상 암울한 부류가 있다. 예전에는 멜란콜리성(melancholic) 인격장애, 신경증적(neurotic) 우울증, 성격적(characterological) 우울증, 기질적 불쾌감(temperamental dysphoria) 등으로 부르다가 DSM-IV에서 기분부전장애(dysthymia)로 통일돼서 한숨 놓았더니, DMS-V에서는 지속적인 우울장애(persistent depressive disorder)로 한 단계 낮춰 서술해 놓았는데, 저자가 보기에 다 오십 보 백 보로서 싸잡아서 소형(minor) 우울장애 때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자. 통계적으로도 기분부전장애 때는 평생 유병률이 4%나 된다고 하다가 지속적인 우울장애 때는 연간 발병률이 0.5%밖에 안 된다고 하니 어디다 장단을 맞춰야 할지 잘 모르겠다. 좌우간 이와 같은 우울성 인격 성향을 가진 사람은 평생 마누라한테 놀려 지낸 위대한 대통령 링컨과, 평생 전쟁과 평화 사이에서 벗어나지 못한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있다.

### 가학-피학성(sado-masochistic) 인격장애

요즘은 정신의학을 한다는 사람들은 성(sex)에 대해서 과민반응이라도 있는지, 저자가 보기에 인격장애 중에서도 중요한 이 가학성 또는 피학성 인격장애를 DSM-V에서도 의붓자식 취급을 해 버렸는데, 이와 같은 성격장애는 단지 성 도착증(paraphilia)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폭넓은 성격 장애로서 지면을 할애할 가치가 있다

고 본다.

Sadism 이란 말은 18세기 프랑스의 작가 겸 장교로서 못 여성에게 갖은 못된 짓을 해서 감옥에도 몇 번 갔다 온 Sade 백작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성적 흥분을 맛본다는 것을 실천한 데서 나왔는데, 비단 성적 학대뿐만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인 학대를 가함으로써 희열을 느끼는 것으로, 네로를 위시한 역사상의 폭군이나 중앙정보부 고문 전담반 또는 중고등학교 때 무거운 쇠 주전자 뚜껑으로 골통을 까는 선생님들 등 부지기수인데, 프로이트 선생은 혹시 자기한테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상사(그는 거세-castration를 예를 들)를 판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일종의 액땀이라고 보았다.

Masochism이라는 말은 19세기 오스트리아 소설가 Leopold Von Sacher Masoch가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성적 흥분을 맛본다는 것을 묘사한 데서 나왔는데,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이나 도덕적으로 수모를 당할 때 희열을 느끼는 것으로 프로이트 선생은, 자기가 불안이나 죄의식 때문에 오르가슴을 못 느낄 때, 그 죄의식을 자기학대를 통해 날려보내는 일종의 보상 심리가 작용했다고 보았다. 이같은 현상은 수많은 도색 영화에도 자주 나오는 장면이고,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 젊은 성직자, 걸핏하면 자기 손목이나 뺨가죽을 면도칼로 긁는 양아치들, 또는 금식 기도를 하는 교황이나 단식 투쟁을 하는 국회의원 등에서도 그 편린을 엿볼 수 있다.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등으로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 한국의 성문학을 풍미한 국문학자 마광수 군도 다분히 가학-피학성 인격성향(trait)이 있다고 보는데, 왜 하필이면 여자가 긴 손톱을 기르고 높은 하이힐을 신어야만 성적으로 흥분이 되는가(?) 모른긴 몰라도 아마도 그 긴 손톱으로 할퀴어지기를 바라고 그 뽕족한 하이힐로 난타당하기를 고대하는 무의식적 보상 심리가 깔렸을 것이다.

또한, 여자한테 힘든 일을 강요하는 가학성, 그리고 그 결과로 자기가 피를 보는 피학성이 대부분 같은 사람에게 공존한다. 중·고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은 싸움하는 두 아이를 교단에 올려놓고 서로 따귀 때리기를 명령하곤 했다. 그리고 서로 봐줘서 슬슬 때리기라도 하면 그 별로써 10대를 더 맞아야 한다고 배수진을 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가학성-피학성 인격장애의 금메달감은 고려의 공민왕으로서, 그는 주색에 빠져 자신이 여자 몸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부인 익비를 자기가 보는 앞에서 신하와 통간하라고 명령하는가 하면, 그 신하가 죽기로 말을 안 듣자, 자기가 데리고 놀던 동자들을 시켜 익비와 교접하는 모습을 병풍 뒤에서 보면서 즐기다가, 결국은 그들의 하나인 흥분과 내시 최만생에 의해 살해당하고 말았다. 이 양반도 제법 똑똑한 임금이었다는데 너무 센 자극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망조가 드는 모양이다. 또한 성교할 때 항문이 찢어지는 고통을 즐기는 anal sex(비역) 선호자들은 다 가학-피학성 인격 소유자들이고, 가만히 누워서 알아서 다 해주기를 바라는 oral sex(입씹) 선호자들은 다 의존성 인격 소유자라고 한다면, 아마도 프로이트의 망령이 되살아났다고 돌팔매질케나 당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병적인 인격장애는 어떻게 치료하는가? 이때는 단연코 역동심리학적 치료가 제격이다. 우선 어렸을 때 몸이 허약했거나 해서 판 애들한테 핍박을 받고 자라면서 쌓아 올린 공격성을 건전한 방향으로 발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과도한 수음이나 성에 대한 혐오감 등으로 오는 죄의식을, 자기학대를 하지 않고 예술이나 운동 등 건전한 방법으로 풀어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줘야 한다.

아무튼 이 가학성-피학성 인격장애는 생각보다 많은 편이나 모두들 쉬쉬하기 때문에 역학이나 예후 등은 별로 연구된 것이 없다.

### 해리성(dissociative) 인격장애

그리고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에서와 같이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전혀 다른 인격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이는 이를 해리성 인격장애, 어떤 이는 다중(multiple) 인격장애라고도 하나, DSM-V나 ICD-11에서 한결같이 해리성 주체 장애(dissociative identity disorder)로 분류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해리장애(dissociative disorder) 편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자. 저자가 보기에 이것도 정신 사회적 성장과정에서 무언가 뒤늦게서야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격장애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말이다.

### 속박성(anankastic: aka 강박성: obsessive-compulsive) 인격 장애

전체 인구의 약 1%가 이와 같은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고 남자가 3%인데 여자는 0.6% 정도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으며 첫 번째 태어난 어린이가 더 많은 비율로 진단을 받고 있다. 또한 흑인보다 백인에서 또 교육 수준이 높고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가 더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되어있다.

부모·형제 중에 동시 발병률이 약간 높은 것으로 봐서 유전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으나, 프로이트는 심리적인 요인 특히 2살을 전후해서 나타나는 항문기(anal stage)에서 가혹한 똥, 오줌 가리기(toilet training)가 원인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도 학설(theory)이 못되고 가설(hypothesis)에 불과할 뿐이다. 한마디 부연하자면 학설은 한국의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는 정도로 어느 정도 검증된 이론이고 가설은 저자가 어딘가 감춰둔 여자가 있으리라는 것처럼 감새가 이상하기는 하나 아직 검증이 안 된 이론이다.

이 속박성 인격장애의 정신적인 특성은 남이나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의식적이고 엄격하고 모든 일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항상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항상 먼지 하나 없이 청결해야 하고, 모든 것이 질서정연해야 하며, 무슨 일이든지 속속들이 다 알아야 하고, 일 분도 틀리지 않고 시간을 맞추어 만나야 하며, 일 전짜리까지 다 똑떨어지게 장부를 정리해야 하니, 남한테 일을 맡길 수도 없고 무슨 일이든지 제시간에 끝맺음을 못 하게 되어 항상 무엇에 쫓기듯 안절부절못하고 표정도 항상 굳어있다. 저자 자신을 보는 느낌이다.

저자가 의과대학 다닐 때 한 친구는 성격이 얼마나 꼼꼼한지, 강의시간에 카세트테이프 녹음기를 두 개씩 들고 와서는, 맨 앞줄에 앉아서 교수님들의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하는데, 그것을 다시 깨알만 한 글씨로 반을 접은 노트에 옮겨 적는 과정에서, 말 한마디 글자 한 자가 빠지거나 틀리면 그냥 난리가 나는 것이다. 그 친구는 그것을 교정하느라고 급우생들 노트를 다 빌려다가 맞추어 보고, 방과 후에 교수들을 찾아가서 확인하는 통에, 암만 공부를 열심히 해도 맨날 뒤에 쳐지고 마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남들은 제5장을 나가고 있는데 그 친구는 제2장도 제대로 못 끝냈기 때문이다. 결국은 3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지 않을 수 없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한국은 왜 유일한 분단국가일까요 (4)

2019 미주서울의대 Medical Convention non-CME 강의 초록

## 온 기 철 (71, 남가주)

**장제스: 북벌과 1차 국공합작 결렬**  
순원을 승계한 장제스는 북벌에 나섭니다. 천하를 조각조각 나누어 지배하고 있던 군벌들을 토벌하여 중국을 하나로 통일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군벌의 착취에 시달렸습니다. 따라서 장제스 군대는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장제스 군대에게 정보와 식량 등을 제공하며 도와주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용이하게 북벌은 진행되었습니다. 1927년 3월 21일, 장제스는 북벌의 마지막 단계인 상하이 점령을 문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제1차 국공합작으로 저우엔라이는 국민당 소속으로 장제스를 도와서 북벌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주은래는 상하이 노동자들을 동원하여 상하이를 장악하고 장제스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제스는 상하이 조폭, 상하이 자본가와 외국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하이의 공산당을 총공격합니다. 국민당의 공산당 토벌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를 상하이 대학살이라고 합니다. 제1차 국공합작은 이렇게 해서 결렬되었습니다. 아무튼 북벌은 불완전하나마 1928년에 완료되었습니다.

다. 국민당의 협조가 절실한데, 이를 위해서는 만보산사건으로 추락한 조선독립군 신임도를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민족주의 성향의 조선청년 8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김구와 한인청년애국단은 요인 암살이나 공공기관 파괴 등에 참여할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이에 응해서 나타난 사람이 윤봉길과 이봉창이었습니다.

만주사변이 끝나갈 무렵인 1932. 1. 28. 일본은 상하이를 침공합니다. 국민당군이 패퇴하여 사실상 일본이 상하이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동년

4월 29일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전승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단상에 일본 고위급 장성과 정부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윤봉길은 도시락으로 위장한 폭탄을 들고 행사장에 들어가서 단상에 폭탄을 던져, 일본 해군 총사령관 사라스와 요시노리, 상하이 거류민 단장 시게미쓰 마모루가 즉사하고 여러 명이 중상을 입어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장제스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감복하여, "중국군 백만이 할 일을 조선인 한 명이 해냈다" 라고 극구 칭찬했습니다. 이후로 장제스는 김구와 임정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참고로 윤봉길이 던진 폭탄은 외무장관을 지낸 김홍일이 만들었습니다.

### 중화 소비에트 공화국: 장제스의 총공격, 대장정, 공산당의 패퇴

중국 공산당은 1931년 11월 7일 장시성 루이진에 마오쩌둥을 주석으로 중화 소비에트 공화국을 세웁니다. 장제스가 공산당을 토벌하자 수세에 몰린 공산당원들은 이곳으로 집결했습니다. 상하이에서 장제스에게 배반당하여 패배한 주은래도 이곳으로 왔습니다. 무려 5번에 걸친 장제스의 공격에 못 견뎌 괴멸 위기에 봉착하자 총퇴각을 하게 됩니다. 1934년 10월에 장시성 루이진을 출발하여 무려 9000km를 370일 동안 10만 대군과 민간인 그리고 나라 살림을 이끌고 서북쪽으로 피난했습니다. 북쪽 연안에 도착했을 때는 겨우 8천명이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대장정 중에 주은래가 모택동보다 우위에 있었으나 연안에 도착했을 때는 모가 일인자 그리고 주가 이인자로 서열이 확정되었습니다.

### 시안사건과 제2차 국공합작

겨우 8천명 남은 병력을 가진 모택동은 장제스가 한 번만 더 공격하면 괴멸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빠져나올 구멍이 있다고 시안사건이 일어납니다. 국민당 동북권 사령관 장쉐량이 장제스를 시안에서 구금하고 국공합작을 해서 일본군과 싸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이 만주를 침공하자 장제스는 장쉐량에게 일본군과 싸우지 말고 연안의 공산군을 공격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관할 구역인 만주를 포기하라고 하니 속이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명령대로 싸우던 중 저우엔라이와 국공합작에 대해서 협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내의 여론 또한 국공합작으로 일본과 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1936년 12월 12일 장제스를 시안성으로 유인하여 생포하고, 제2차 국공합작을 이루어 냅니다. 그리고 일 년 후에 일본은 중국을 전면적으로 침략합니다. 1972년 일본 수상이 중국을 방문하고 주은래에게 난징대학살에 대한 사과를 하자, 주은래는 "무슨 말씀입니까?"



일본은 우리 공산당의 은인입니다." 라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 중일전쟁(1937-1945): 일본군 상하이에서 고전

1937년 7월 7일 일본은 베이징과 텐진을 기습 공격하여 점령했습니다. 사실상의 세계 제2차대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조선, 만주, 몽고, 산둥반도와 상하이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상하이에는 일본군 3만과 일반 시민 3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장제스는 상하이를 총공격했습니다. 의외로 장제스 군은 강했습니다. 불과 2, 3일이면 장제스 군이 패퇴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무려 3개월이나 싸워야 했습니다. 항공기를 포함한 다량의 무기 손실과 인명피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더 이상 확전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전사령관 야나가와는 본국의 명령을 어기고 남경으로 진군을 강행했습니다. 진군 도중 일본 정부는 할 수 없이 남경 공격을 허락했습니다. 야나가와는 국민당 정부의 수도인 남경을 점령하면 중국을 쉽사리 굴복시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 일본, 난징대학살

장제스는 국민당 정부의 수도인 난징을 사수하지 않고 버리다시피 일본에 내주었습니다. 12월 13일 겨우 3일 만에 난징을 점령한 일본은 마치 상하이에서 당한 것을 보복하는 양 "보이는 대로 죽이고, 불태우며, 약탈하라" 라고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강간까지 허용했습니다. 많은 여자들이 위안부로 각출되었습니다. 무려 2십만 명이 죽고 2십만 명이 강간당했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 본토는 중국 수도 난징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 난징 대학살 주범 다니이사오 중국의 저력: 장기전 돌입

허술한 듯 보이는 중국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반만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국 사람들은 외침에 대한 저항력이 그 어떤 민족보다도 강력했습니다. 방대한 영토와 수많은 인구는 점령국이 다스리기에는 무리였습니다. 의화단 사건 이후 서방국가들은 이미 중국을 식민지화할 것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침략전쟁을 감행했습니다. 장제스는 넓은 국토와 많은 인구를 십분 이용한 장기전에 돌입했습니다. 동쪽을 일본에 내주고 험악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서쪽으로 퇴각하여, 동굴을 파고 무기공장과 병력을 이동하여 일본 항공기의 포격을 피했습니다. 일본군의 보급을 방해하기 위해서 철도, 교량, 도로를 파괴했습니다. 전면전을 회피했습니다. 수도는 중경으로 옮겼습니다. 임정도 국민당 정부를 따라 피난했습니다. 게릴라전은 공산군이 주도했습니다. 중국인들은 간헐적으로 일본군을 공격하여 괴롭혔습니다. 한편 일본은 1941년에 중국 동해안 중요 도시를 전부 점령합니다. 허수아비 중국정부를 세워 점령지역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은 통치 기능이 미치지 못했고 게릴라의 공격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나치 독일과 소련의 원조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일본은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으로부터 비행기 연료, 무기, 항공기 등을 사들였고 많은 차관을 얻어서 전비를 확충했습니다.

### 인도차이나 점령: 태평양전쟁 발발

1941년 7월 21일 일본은 인도차이나를 점령합니다. 이제 중국군에게 군수물자를 보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동해안 항구와 인도차이나를 일본이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는 프랑스, 영국, 미국,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습니다. 구미국가들은 자기를 영토가 일본의 침략에 노출되자 모든 원조를 끊었습니다. 미국은 비행기 연료, 항공기를 비롯한 무기 부속품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협상을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전쟁으로 미국을 굴복시키고 1941년 12월 7일 진주만을 공습했습니다. 태평양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즉시 중국을 4대 연합국 중의 하나로 승격시켰습니다. 중국은 영국, 미국, 소련과 같은 발언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임정은 장개석을 통해서 전후 한국 독립을 강대국으로부터 보장받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한편 일본은 파시즘 국가인 독일, 이태리와 동맹을 맺고 연합국과 싸웠습니다.

### 도조 히데키의 광분과 일본영토 확장

1941. 10. 8 도조 히데키는 총리, 내무, 육군대신을 겸하고 참모총장까지 맡아서, 사실상 독재자였습니다. 독일의 히틀러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은 그의 지휘로 진행되었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를 점령할 것을 목표로 전쟁에 매진했습니다. 그들은 대동아전쟁이라 하여 아시아인들이 일본의 지도로 총단결하여 백인종의 침략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조선,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점령의 대의명분이었습니다. 1942년, 일본은 조선, 만주, 몽고, 중국 동부와 남부 해안 도시, 인도차이나, 버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뉴기니아가 포함되는 방대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호주까지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은 항공모함이 침몰하는 결정적인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후 일본은 패퇴하기 시작했습니다.

### 일본의 전시체제: 조선사람 일본화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을 전쟁을 위해서 동원했습니다. 따라서 본국민이나 조선 사람들은 식량, 의류 심지어 신발까지 부족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조선 사람들까지 황국 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습니다. 당시의 일부 조선의 지식인들은 이를 환영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일본 사람과 동격으로 격상되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조선인들을 일본 사람으로 만들어 전쟁에 동원하려고 조선인 정부가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는 창씨개명을 단행했습니다. 남자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탄광과 군수공장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1944. 8. 23 일본은 여자정신대 근무령을 발동했습니다. 12세에서 40세의 조선 여성들을 강제 동원하여 군수공장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이중 일부 5-7만을 중국과 남방전선에 보내어 군인들의 성 노예가 되게 했습니다.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위안부가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 조선지식인들의 친일화와 대한민국 보수 세력의 형성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일본 정부의 보도 관제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전쟁 초기의 연전연승은 사실이었으나 미드웨이 해전 이후의 일본의 후퇴는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고 조선의 지식인들은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믿게 됩니다. 거기가 극심한 항일운동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탄압은 전향을 부추겼습니다. 일제 강점 초기에 일제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요즈음 <다음면에 계속>

# 琵琶行(비파행)

琵琶行 唐朝 白居易 비파의 노래  
비파행 당조 백거이 당조 시인 백거이



번역: 정 관 호(63, 대뉴욕)

潯陽江頭夜送客，楓葉荻花秋瑟瑟  
심양강두야송객하니, 풍엽적화추슬슬을  
主人下馬客在船，舉酒欲飲無管絃  
주인하마객재선하니, 거주욕음무관현을  
醉不成歡慘將別，別時茫茫江浸月  
취불성환참장별하니, 별시망망강침월을  
忽聞水上琵琶聲，主人忘歸客不發  
홀문수상비파성하니, 주인망귀객불발을  
尋聲問彈者誰，琵琶聲停欲語遲  
심성암문탄자수하니, 비파성정욕어지를  
移船相近邀相見，添酒回燈重開宴  
이선상근요상견하니, 첨주회등중개연을  
千呼萬喚始出來，猶抱琵琶半遮面  
천호만환시출래하니, 유포비파반차면을  
轉軸撥絃三兩聲，未成曲調先有情  
전축발현삼양성하니, 미성곡조선유정을  
絃絃掩抑聲聲思，似訴平生不得志  
현현엄억성성사하니, 사소평생부득지를  
低眉信手續續彈，說盡心中無限事  
저미신수속속탄하니, 설진심중무한사를  
輕攏慢撚抹復挑，初爲霓裳後六么  
경롱만연발부조하니, 초위예상후육요를  
大絃嘈嘈如急雨，小絃切切如私語  
대현조조여급우요, 소현절절여사어를  
嘈嘈切切錯雜彈，大珠小珠落玉盤  
조조절절착잡탄하니, 대주소주락옥반을  
間關鶯語花底滑，幽咽泉流水下灘  
간관앵어화저활이요, 유열천류빙하란을  
水泉冷澁絃凝絕，凝絕不通聲漸歇  
빙천냉습현응절하니, 응절불통성잠홀을  
別有幽愁暗恨生，此時無聲勝有聲  
별유유수암한생하니, 차시무성승유성을  
銀瓶乍破水漿迸，鐵騎突出刀鎗鳴  
은병사파수장병이요, 철기돌출도창명을  
曲終收撥當心畫，四絃一聲如裂帛  
곡종수발당심획하니, 사현일성여열백을  
東船西舫悄無言，唯見江心秋月白  
동선서방초무언하니, 유견강심추월백을  
沈吟放撥插絃中，整頓衣裳起斂容  
침음방발삽현중하니, 정돈의상기염용을

심양 강가에서 밤에 객을 보내려니,  
단풍잎 갈대꽃 가을날 쓸쓸하기 그지없네.  
주인은 말에서 내리고 객은 배에 들어가  
술잔 들어 마시려도 반주가 없어,  
취해도 기쁨 없어 슬프게 작별하려니  
이별할 때 망망히 강에 달이 젖었네.  
홀연히 물 위에서 비파 소리 들으니  
주인은 돌아가기 잊고 객은 떠나지 못하다.  
소리 찾아 은근히 묻기를 타는 이가 누구고?  
비파 소리 멈추고 말하기 늦어지네.  
배 옮겨 가까이하여 만남을 요청하여  
술을 더하고 불 다시 밝혀 거듭 연회를 여니  
여러 차례 불러서 나오기 시작 함에  
오히려 비파를 안아 반쯤 얼굴이 가리었네.  
조이개 돌리고 줄을 튕겨 두세 번 소리 내니  
곡조를 이루기 전에 정이 먼저 흐르더라.  
줄과 줄은 잠겨있고 소리 소리 애원이니  
마치 평생에 뜻을 얻지 못했음을 호소하는 듯.  
눈 내려갈고 손에 맡겨 연이어 뜰는데  
마음속 무한한 사연을 모두 말해 주는 듯.  
가벼이 줄 두드려 천천히 조정해 문지르고 뜯기에  
처음에 예상위의 곡을 후에는 육요를 탔다.  
굵은 줄 큰소리 급히 오는 비 같고  
가는 줄 간질함은 사사로운 말 같도다.  
굵은 소리 가는 소리 섞이어 타니,  
큰 구슬 작은 구슬 옥쟁반에 떨어지네.  
맑고 고운 피꼬리 소리 꽃 아래서 미끌어 지 듯  
그윽이 흐느끼는 샘물이 얼음 아래 여울로 흐르듯  
얼음 샘이 차갑고 막히어 줄이 엉키어 끊어진 듯  
막히어 통하지 않으니 소리는 잠시 멈추었네.  
별로이 그윽한 수심에 남모를 한이 생기니  
이때 소리 없음이 소리 있음을 능가하도다.  
갑자기 은병이 깨어져 물이 솟구쳐 나오 듯,  
철기가 돌출하여 창칼이 부딪쳐 울리는 듯,  
곡이 끝남에 줄 채를 빼어 비파의 중앙을 그으니  
네 개 줄이 한 소리 내어 비단 찢는 소리로다.  
동쪽 배 서쪽 배에서 고요히 아무 소리 없으니,  
오로지 강 가운데 가을 달만 희도다.  
생각에 잠겼다가 채를 거두어 줄 속에 끼우고  
의상을 정돈하여 일어나 얼굴을 거두었네.

自言本是京城女，家在蝦蟆陵下住  
자언본는京城女,家在蝦蟆陵下住  
十三學得琵琶成，名屬教坊第一部  
십삼학득비파성하니, 명소교방제일부를  
曲罷曾教善才服，粧成每被秋娘妬  
곡罷曾教善才服,粧成每被秋娘妬  
五陵年少爭纏頭，一曲紅綃不知數  
오릉연소쟁전두하니, 일곡홍초부지수를  
鈿頭銀篦擊節碎，血色羅裙翻酒汙  
현두은비격절쇄하니, 혈색나군번주오를  
今年歡笑復明年，秋月春風等閑度  
금년환소부명년하니, 추월춘풍등한도를  
弟走從軍阿媽死，暮去朝來顏色故  
제走從軍阿媽死,暮去朝來顏色故  
門前冷落車馬稀，老大嫁作商人婦  
문前冷落車馬稀,老大嫁作商人婦  
商人重利輕別離，前月浮梁買茶去  
상인重利輕別離,前月浮梁買茶去  
去來江口守空船，繞船明月江水寒  
去來江口守空船,繞船明月江水寒  
夜深忽夢少年事，夢啼妝淚紅闌干  
夜深忽夢少年事,夢啼妝淚紅闌干  
我聞琵琶已嘆息，又聞此語重唧唧  
我聞琵琶已嘆息,又聞此語重唧唧  
同是天涯淪落人，相逢何必曾相識  
同是天涯淪落人,相逢何必曾相識  
我從去年辭帝京，謫居臥病潯陽城  
我從去年辭帝京,謫居臥病潯陽城  
潯陽地僻無音樂，終歲不聞絲竹聲  
潯陽地僻無音樂,終歲不聞絲竹聲  
住近盆江地低濕，黃蘆苦竹繞宅生  
住近盆江地低濕,黃蘆苦竹繞宅生  
其間旦暮聞何物，杜鵑啼血猿哀鳴  
其間旦暮聞何物,杜鵑啼血猿哀鳴  
春江花朝秋月夜，往往取酒還獨傾  
春江花朝秋月夜,往往取酒還獨傾  
豈無山歌與村笛，嘔啞嘲哢難爲聽  
豈無山歌與村笛,嘔啞嘲哢難爲聽  
今夜聞君琵琶聲，如聽仙樂耳暫明  
今夜聞君琵琶聲,如聽仙樂耳暫明  
莫辭更坐彈一曲，爲君翻作琵琶行  
莫辭更坐彈一曲,爲君翻作琵琶行  
感我此言良久立，卻坐促絃絃轉急  
感我此言良久立,卻坐促絃絃轉急  
淒淒不似向前聲，滿座重聞皆掩泣  
淒淒不似向前聲,滿座重聞皆掩泣  
座中泣下誰最多，江州司馬青衫濕  
座中泣下誰最多,江州司馬青衫濕

스스로 말하기를 본래 경성의 여인이니  
집은 하마에 있어 살았지요,  
열셋에 비파를 배워 이루었으니,  
이름은 교방 제일부에 속했답니다.  
한곡 끝남에 스승이 칭찬하여 패복을 받았고  
화장하면 항상 추랑의 질투도 받았답니다.  
오릉의 귀족 소년이 머리 싸매고 다투었으니,  
곡 한 번에 붉은 비단 수없이 받았어요.  
장식 넣은 은비녀는 박자 맞추기에 깨어졌고,  
핏 빛 비단 치마 술 엷질러 더럽혔지요.  
금년에 즐겨 웃고 또다시 새해가 오니,  
가을 달 봄 바람을 시름없이 보냈어요.  
아우는 전쟁에 나가고 언니는 죽었고,  
저녁이 가고 아침이 오며 얼굴은 늙었지요.  
문 앞은 쓸쓸하고 안장 말은 드물어  
늙어서 시집가서 상인의 처가 되었지요.  
상인은 이익을 중히, 이별을 가버이 여기니,  
지난달 부랑에 이르러 차를 사러 갔지요.  
강어귀에 왔다 갔다 하며 빈 배를 지키니,  
배를 둘러싼 밝은 달에 강물을 차가워요.  
밤 깊어 홀연히 소년 시절을 꿈꾸니,  
꿈속에 울어 화장 지운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나는 비파를 듣고 이미 탄식을 하였고,  
또한 이 말을 들어 거듭 감개 하도다.  
동시 하늘 가에 윤락한 사람이니, 서로 만남에  
어찌 일찍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나는 지난해 제경에서 떠나서,  
귀양 와서 심양성에서 병들어 누웠네.  
심양은 벽지라 음악이 없어,  
해가 지나도 악기 소리 들을 수 없네.  
거주지 가까운 분강은 땅이 낮고 습하여  
누런 갈대와 대 숲이 집을 둘러 싸고 자리네.  
그 사이 아침저녁으로 무얼 듣는가?  
두견의 피 울음 원숭이의 설운 소리라  
봄 강 꽃피는 아침 그리고 가을 달 뜨는 밤에  
자주 술을 갖고 돌아와 홀로 기울이네.  
이 여찌 산 노래와 촌 피리가 없겠는가?  
잡란하고 깨어지는 소리라 듣기 힘들도다.  
오늘 밤 그대의 비파성을 들으니,  
신선의 음악을 들을 듯 귀가 잠시 밝아졌네.  
다시 앉아 한 곡조 타기를 사양치 마오,  
그대를 위하여 비파행을 읊겨 지으려니.  
나의 이 말에 감동하여 한동안 서 있다가,  
문득 앉아 줄을 당겨 줄이 급히 돌아가니,  
슬프고 슬퍼 전 소리와 같지 않아,  
가득한 사람들이 소리에 얼굴을 가리고 우네.  
그중 눈물을 누가 가장 많이 흘렸는가?  
강주 사람의 푸른 저고리가 흠뻑 젖었도다.

<전면에서 계속> 친일인사로 비난받는 이유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만주에 군관학교를 세워 조선인들을 일본군 장교로 양성했습니다. 박정희, 정일권, 백선엽 등 수많은 대한민국 장군들이 만주군관학교 출신들입니다. 일본은 만주에 관리 양성을 위해서 건국대학을 설립했습니다. 3.1운동 33인 중에 하나인 최남선은 이 대학의 교수였고, 국무총리와 대통령을 지낸 최규하는 이 대학 출신입니다. 만주군관학교 출신 장교들은 국군 창설 때 크게 등용되었고, 5.16의 주체 세력으로 대한민국 보수세력의 근간을 이룹니다. 그들의 약점이 친일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진보세력의 공격 목표가 됩니다. 한편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독립운동가-사회주의자(공산주의자)라는 프레임은 해방 후에 보수세력이 반대세력을 빨갱이 프레임을 씌워 탄압하는 정략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다행히 세대가 바뀌면서 친일-빨갱이 논쟁은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소련군 만주와 북한진입**  
1945년 5월 독일이 항복했습니다. 소련은 서부전선의 병력을 동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지오마, 오키나와 전투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여 만주에 군대를 보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1945. 7월 알타회담에서 루스벨트가 스탈린에게 만주의 일본 관동군을 공격할 것을 촉구하자, 스탈린은 유럽 종전 후 3개월 이내에 공격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됩니다. 원폭투하 후 불과

9시간 만에, 소련은 만주를 침공합니다. 그와 거의 동시에 북한에도 소련군이 들어왔습니다. 일본군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함이었습다. 제정러시아 때부터 조선을 재배하려고 했던 러시아의 염원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일본의 항복**  
소련군이 만주에 들어온 지 하루 만인 8월 10일 일본 천황은 포츠담 선언을 인정한다고 발표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일본의 항복을 의미했습니다. 1945년 7월 26일 연합국은 포츠담에서 일본에 항복조건을 제시했고, 트루먼은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자폭탄 투하를 암시하는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것도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원자폭탄을 맞은 나라가 되고서야 항복했습니다. 도조의 광분은 히틀러의 그것에 못지않았습니다. 만주 할빈 교외에 731부대라는 생체 실험소를 만들어 참으로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세균을 산 사람에게 감염시켜 병력을 기록하고, 산사람을 칼로 배를 갈라 기관을 관찰하고, 영하 섭씨 50도에 사람을 노출시켜 생체의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세균전을 했습니다. 일본 본토에 수용된 죄수들에게도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운동주는 대체 수액 실험 대상이 되어 해방을 목전에 두고 사망했습니다. 이 생체실험의 기록물들은 미국이 가져갔고 그 대가로 생체실험을 했던 일본인들은 전후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잘 살다가 죽었습니다. 원폭 투하는 하늘이 내린 천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항복 소식을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된 조선총독부는 조선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 80만과 일본군인 10만을 무사히 귀국시킬 절차를 밟기 시작합니다.

**여운형의 조선총독부 접수**  
8월 11일 총독부는 송진우에게 수권을 부탁합니다. 우과 독립운동가인 그는 상해임시정부가 말을 일이라고 거절했습니다. 김성수와 가까웠고, 당시에 동아일보 사장이었습니다. 손기정이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하자 그는 일장기를 지운 손기정의 사진을 게재할 것을 지시한 사람이었습니다. 총독부는 중도 좌파인 김준연과 접촉했으나, 송진우가 참여하지 않으면 자기도 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결국 불은 여운형에게 넘어갔고, 8월 15일 아침 총독부가 그의 요구 5 개항을 받아들이자 그는 수권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하루 전인 8월 14일 영관급 장교인 찰스 본스틸과 딘 러스크는 서울과 인천이 포함된 38선 이남은 미국이 그 이북은 소련이 점령하기로 결정하고 소련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미군이 서울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소련군이 들어올 것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파시즘은 공산주의자들을 탄압했고 공산주의자들은 파시즘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여운형의 수권 작업:**  
**건국동맹-건국준비위원회**  
여운형은 상해임시정부 수립을 주도했고 해외에서 삼일운동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일본이 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일본에 초청하여 정치인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했는데, 그는 오히려 조선 사람들이 나라를 가지려 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나라를 가지는 것과 같이 당연한 것이라고 하여 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연설을 들은 정치인들은 그를 존경했다고 합니다. 잘생긴 얼굴, 건장한 체격과 웅변은 조선 사람들에게 대단한 인기를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라디오 방송을 도청하는 등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일본의 전쟁 진행 상황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전쟁에서 진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자, 1944년에 건국동맹을 국내에 조직했습니다. 국내 유일한 수권 조직이었습니다. 8월 15일 총독부의 수권 요청을 받아들이고, 곧바로 건국동맹을 건국준비위원회로 개편하고 경찰서, 학교, 관공서를 총독부로부터 인수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16일 그는 휘문고등학교에서 수권 연설을 하고, 정치범을 석방했습니다. 만주 관동군이 소련군의 포로가 되어 시베리아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조선총독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천황의 사진을 태우고 신사에 불을 지르는 등 총독부는 협조적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은 감춰두었던 설탕, 밀가루 등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전쟁 중에 급속감았던 물건들이 시장에 범람했습니다. 물론 가구도 팔았습니다. 건국준비위원회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편 북한은 소련군이 들어오자마자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친일과 청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친일인사들이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 2019-20 회비 및 후원금 현황

이성길 회기 (2019년 7월 1일 ~ 2020년 6월 30일)

- 1949 고영철 1950 한원봉
- 1952 박종식 1953 강수상 이상봉
- 1954 김갑균 김용민 이동식 1955 노용면
- 1956 김신형 김운태 박상기 서상철 1957 김용진 임종식 임종원
- 1958 김부근 김운범 김석희 김순옥 김시한 김학륜 김해암 류치열 문석면 박호현 배영섭 송세엽 신상균 유영호 이만택 이상설 이종국 이종용 이희성 임영신 최병두 최창승
- 1959 강상진 강재룡 김교안 김병구 김용덕 김한섭 나길진 반응균 방덕환 방석운 서경화 신한수 이교락 이종수 임낙중 임원기 정태진 최대한 최용천 최종진 최혜숙 한달수 한성업
- 1960 고재경 권기홍 김영환 김완주 김인환 김택경 박명근 박정우 박형순 박춘명 오신중 이경화 이광준 이덕승 이상일 이종석 이철희 임종원 임필순 전용주 전희근 조재동 한성수
- 1961 강창욱 고의걸 곽동린 김영철 김성준 김예흠 김유홍 김학철 김화섭 박장생 박준환 박호식 서휘열 손기용 안창현 양명교 이동해 이재두 이재승 이준우 이회백 이한수 장성환 장태환 정두현 정철용 조은순 진창건 차철준 최공창 최지원 최성덕 최용성 최태순 한수웅 한혜원 황현상
- 1962 고희호 권익현 김석식 김한중 남성희 민경환 박종진 박찬형 승홍일 오태요 이기범 이상무 이상복 이상원 이석우 이용길 이태봉 장항순 정정수 조명호 허서룡(66) 500 강명식(67) 175 김성철(67) 75 김명원(68)1,000 안세현(68) 500 이건일(68) 300 김병오(69) 250 김중권(69) 200 김창남(69) 250 김형달(70) 150 문성길(70) 350 박찬진(70) 100 조남현(70) 100 김성환(71) 500 박동수(71) 175 이원택(71) 375 오동환(71) 225 장철철(71) 75 나두섭(73) 500 민인기(73) 50 박인영(75) 50 차민영(82) 500 박정미(85) 100 신원석(88) 125 \*Mrs. 송영두(62) 300
- 1963 고영희 권영재 권영조 김갑중 김계운 김승태 김정일 김주용 김태웅 김택수 김태형 김현화 김충열 노인규 마동일 박세록 박승균 서경석 선종철 송용덕 신경호 신영규 왕규현 윤영섭 윤영옥 윤진수 이능석 이재명 이종두 이병준 이수인 이승현 임춘수 장세권 정관호 조열하 조한원 진병학 추재욱 하상태 한기현
- 1964 강창만 권정덕 김용두 김태환 박세준 라찬국 송원길 신두식 안연승 양운택 오수환 오유섭 유광현 유창남 윤흥기 이광신 이몽만 이정필 이재품 이정은 이종성 이주영 이종오 이홍표 임병훈 유광현 정유석 조동준 조성준 차운만 최준희 한태진 허선행 홍선경 홍준표 신우세현
- 1965 구경회 김덕진 김옥현 박수안 신백효 이광선 이법석 이재진 이정의 이한승 이한중 이화성 임현재 전영균 정길화 조성구 지영환 채도경 최동욱 최무원 최영인 한재은 한원민 황규정 홍수웅
- 1966 김의신 김우신 김진수 김진호 김용재 김은한 김충규 민발식 이명희 이성근 이영일 장한교 정량수 조관상 조규용 조의열 한동수 한일성 황 철 허서룡 최순채 최영자
- 1967 강명식 김동수 김성철 김태웅 문경용 우준균 유진일 이근웅 이민우 이소희 이영균 이정화 이준식 이진수 이태안 지일성 최무용 최승웅 한영수
- 1968 고남규 김경인 김명원 김정웅 김영남 김영덕 김재관 김주평 김진홍 김희주 노영일 문광재 박정식 서영일 서윤석 송창호 신용계 안극환 안세현 유우영 이대용 이건일 이규달 이상훈 정재성 차재철 최 철 홍광신 황훈규
- 1969 김병오 김운태 김중권 김창남 박수웅 서 량 송용재 안병일 엄규동 오선웅 윤효윤 이용환 이충호 임안무 임용규 정한규 최승용 최종일 최종진
- 1970 김형달 박찬진 박흥식 문성길 송유준 오석일 이성춘 장극기 조남현 조영갑 최원일
- 1971 강유구 강창홍 강태수 김성환 김유식 김일영 김재홍 김효순 김 훈 김창구 박동수 박상호 배성호 서상현 서정자 오동환 오상현 윤기철 이원택 이종일 이상길 장문석 장 철 정인용 조세진 최영철 하준영 홍성진 황동하
- 1972 김광호 김재석 김현배 박찬호 석창호 오용호 이기진 이신재 장혜숙 정진우 정희현 조경호 황용규
- 1973 김정용 김천일 나두섭 문대욱 민인기 박진섭 방병기 서인석 송정자 심완섭 오인환 위장호 이계석 임준형
- 1974 권철수 구재훈 김용진 유영준 임자은
- 1975 김자역 김원정 박인영 배영훈 전경배 조철영
- 1976 김정아 한승신 유영길 1977 김동훈 박정식 박일우
- 1978 김동수 1980 박남훈 신성식
- 1981 이선희 1982 차민영
- 1983 전원일 1984 서귀숙 정희국
- 1985 박정미 임경욱 1988 신원석
- 1989 이선규 1991 강민중
- 1998 강현선 1999 김정훈 박종철 이도은 한효숙
- 2000 박은경 황필규 2001 김민정 김태곤 장세권
- 2002 최태웅 2008 박종한 이익재
- 2009 양현식 2012 최예원

— 은 2회 이상 납부하신 분

## 농담 골목

밤중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시계탑' 하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그것은 꿈이었다. 과거 47년 동안 내 신경을 섬세하게 해준 바로 그 말이였다. - 노용면

인기 절정의 불란서 벨기인 에밀리 노퐁브의 일인칭 소설 목마름(Soif)은 청년 예수의 마지막 하루 재판을 묘사한다. 기적의 수혜자들이 증인으로 나온다. 아기를 살렸던 기적에 대해 어머니 왈, 아기가 병들어 있을 때는 암전했는데 뛰어다니고 울어대는 통에 실 틈이 없고 밤잠을 못 잡니다. 낮게 해달라고 했지 번잡한 아이로 만들어 달라고는 하지 않았지요. 그는 전지전능하지 않나요? 장님 신세를 면한 자는 뜬눈으로 본 세상이 너무 추해서 다시 장님이 되고 싶다고 불평을 한다. 동남으로 연명을 하든 나병 환자는 치유를 받은 후 동남 그릇이 빈다고 투덜거린다. 마귀에서 벗어난 사람은 마귀가 떠나자 심심해졌다고 못마땅해 한다. 나사로는 몸에 밴 시체 냄새 땀에 사는 게 고통스럽다고 탄식한다.

증언을 청취한 빌라도는 너를 십자가에 처한다고 언도한다. - 이수인  
집콕으로 인한 확진자 추적 경로입니다.  
식탁 > 쇼파 > 냉장고 > 쇼파 > 식탁 > 침대 > 냉장고 > 침대 - 이덕승  
W W W W V가 무슨 뜻일까요? 정답: We will win world war virus.

## 37th CONVENTION DONATION

- 강수상(53)1,000 임종식(57) 500 김운범(58) 100 신상균(58) 500 최창승(58)1,000
- 이종석(60) 100 강창욱(61) 200 한수웅(61) 100 한혜원(61) 100 남성희(62) 100
- 정정수(62) 300 김태형(63) 75 이재품(64) 100 이홍표(64) 150 전희택(64) 300
- 허선행(64) 100 김진수(66) 50 장한교(66) 75 김영남(68)1,000 강창홍(71) 100
- 김성환(71)1,000 김일영(71) 500 김창구(71) 100 배성호(71) 300 이성길(71)1,000
- 윤기철(71)1,000 이기진(72) 200 김천일(73) 100 나두섭(73) 200 문대욱(73) 300
- 박진섭(73) 500 서인석(73) 500 유영준(74) 150 배영훈(75) 50 조철영(75) 100
- 김정아(76) 500 한승신(76) 500 이선규(89) 100 이도은(99) 50
- 남가주지부1,000 서울메디칼(차민영 82) 3,000 <2021년 학술대회로 이전 됩니다>

## GENERAL DONATION

- 한용현(48) 120 강수상(53) 500 김용민(54) 125 노용면(55) 200 김신형(56) 400
- 서상철(56) 150 임종식(57) 125 임종원(57) 150 김석희(58) 200 김운범(58) 120
- 신상균(58) 500 이상설(58) 150 이희성(58) 50 강상진(59) 100 김교안(59) 50
- 오형원(59) 100 최종진(59) 200 한성업(59) 100 권기홍(60)1,000 박명근(60) 50
- 이경화(60) 75 임종원(60) 50 한성수(60) 75 강창욱(61) 250 이회백(61)1,000
- 진창건(61) 100 황현상(61) 75 최지원(61) 50 고희호(62) 250 민경환(62) 75
- 박찬형(62) 250 오태요(62) 250 이영웅(62) 250 권영조(63) 500 김계윤(63) 75
- 김현화(63) 150 송용덕(63) 200 신경호(63) 75 이재명(63) 50 임춘수(63) 200
- 진병학(63) 100 권정덕(64) 100 김태환(64) 200 라찬국(64) 100 양운택(64) 100
- 오유섭(64) 75 이재품(64) 100 임병훈(64) 100 전희택(64)2,000 정유석(64) 500
- 조동준(64) 250 최준희(64) 175 허선행(64)2,000 박수안(65) 100 이재진(65) 200
- 이한중(65) 250 정길화(65) 100 지영환(65) 75 정량수(66) 300 최순채(66) 250
- 허서룡(66) 500 강명식(67) 175 김성철(67) 75 문경용(67) 100 이진수(67) 50
- 최무용(67) 250 김명원(68)1,000 김진홍(68) 250 김희주(68) 100 노영일(68) 300
- 서윤석(68) 600 안세현(68) 500 이건일(68) 300 이상훈(68) 175 차재철(68) 75
- 김병오(69) 250 김중권(69) 200 김창남(69) 250 서 량(69) 375 정한규(69) 50
- 김형달(70) 150 문성길(70) 350 박찬진(70) 100 방준재(70) 500 오석일(70) 300
- 조남현(70) 100 김성환(71) 500 박동수(71) 175 배성호(71) 75 윤기철(71) 500
- 이원택(71) 375 오동환(71) 225 장철철(71) 75 정근희(72) 500 오용호(72) 300
- 나두섭(73) 500 민인기(73) 50 박인영(75) 50 조철영(75) 100 김동훈(77) 100
- 차민영(82) 500 박정미(85) 100 신원석(88) 125 \*Mrs. 송영두(62) 300

## CHARITY FUND

- 이상설(58) 100 강상진(59) 100 이기범(62) 75 조한원(63) 75 신두식(64) 100
- 허선행(64)2,100 홍선경(64) 100 채도경(65) 100 최영인(65) 75 최영자(66) 200
- 김유식(71) 75 김창구(71) 75 하준영(71) 75 김천일(73) 100 민인기(73) 100
- 김용진(74) 100 김정아(76) 75 한승신(76) 75 이선희(81) 100

## SCHOLARSHIP FUND

- 김학륜(58) 100 신상균(58) 200 정태진(59) 75 임필순(60) 200 황현상(61) 200
- 고흥호(62) 200 김한중(62)1,000 이기범(62) 300 조명호(62) 200 김태웅(63)10,000
- 한기현(63) 225 이재품(64) 100 이홍표(64) 125 허선행(64) 100 김진호(66) 100
- 이영균(67) 100 김주평(68) 75 박수웅(69) 200 조남현(70) 100 김효순(71) 125
- 배성호(71) 100 서정자(71) 375 이성길(71) 500 박찬호(72) 200 조경호(72) 75
- 김용진(74) 100 김자역(75) 500
- \*Mrs. 한용현(48) 3,000 \*정병욱 FUND 10,000 \*이유찬(64) 장학금 5,000

## GREEN PROJECT FUND

- 최창승(58) 500 이종석(60) 75 전용주(60) 75 이용길(62) 200 안연승(64) 250
- 이홍표(64) 100 허선행(64)2,100 이광선(65) 75 박수웅(69) 200 이성길(71) 500
- 오용호(72) 100 서인석(73) 100 김정아(76) 500 한승신(76) 500 박남훈(80) 125
- 이선희(81) 100 전원일(84) 125 서귀숙(84) 100 이선규(89) 100 강민중(91) 100
- 박종철(99) 100 한효숙(99) 75 이도은(99) 100 박은경(00) 100 장세권(01)1,000
- 최태웅(02) 100

## AASCDFT DONATION

- 민발식(66) 100
- 강수상(53) 500 김시한(58) 250 김해암(58) 200 김병석(59) 300 오형원(59) 100
- 임낙중(59) 400 박형순(60) 250 이덕승(60) 500 전희근(60) 250 강창욱(61) 250
- 안창현(61) 250 이재승(61) 250 이회백(61) 500 정두현(61) 300 고희호(62) 250
- 박찬형(62) 250 오태요(62) 250 이영웅(62) 250 김태형(63) 300 김택수(63) 250
- 이수인(63) 250 이흥빈(63) 250 정관호(63) 250 추재욱(63) 250 정유석(64) 500
- 조동준(63) 250 허선행(64) 300 이한중(65) 250 김용재(66) 300 정량수(66) 300
- 최순채(66) 250 허서룡(66) 500 최무용(67) 250 노영일(68) 300 김명원(68)1,000
- 김진홍(68) 250 서윤석(68) 600 안세현(68) 500 이건일(68) 300 김병오(69) 250
- 김창남(69) 250 문성길(70) 350 방준재(70) 500 김성환(71) 500 윤기철(71) 500
- 이원택(71) 300 정근희(72) 500 나두섭(73) 500 박인영(75) 250

## 안우성 회기 (2020년 7월 1일 ~ 2021년 6월 30일)

- Dues 2020-2021 임종원(57) 최병두(58) 최혜숙(59) 박정우(60) 이상일(61) 박승균(61) 한수웅(61) 한혜원(61) 권영조(63) 송원길(64) 조성구(65) 안우성(76) 차민영(82)
- General Donation 임종원(57) 75 \*Mrs. 신영철(59, 신영주) 300 권영조(63) 300
- Scholarship 김태웅(63) 장학금 10,000
- 38th Convention Donation 안우성(76) 10,000 서울메디칼(차민영 82) 10,000

아파트에 살고 있는 69세의 여인이 corona blue 증상이 심해지자 정신과 의사를 찾아 갔다.

환자: 저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외롭고 불안하고 무섭고 우울증이 심해서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하는 일이란 화단의 식물이나 벽에 대고 말을 건네는 정도입니다.

의사: 좋은 방법이 있는데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을 길러 보시지요. 도움이 될 겁니다.

환자: 아니요. 저는 모든 애완동물에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의사: 아, 그러세요. 벽이나 식물에다 말을 건네는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혹시 말을 걸었을 때 벽이나 식물이 대답을 하면 곧 바로 저를 찾아 주십시오. - 이덕승

참고: Corona Blue는 COVID-19와 Blue(우울감)의 합성어로 코로나로 인해 자신의 감정이 불안, 분노, 우울로 발전되는 증상